



1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1호

(루게 423)



◆◆◆◆◆◆◆◆◆◆

차 례

◆◆◆◆◆◆◆◆◆◆

| | |
|------------------------------------------|----|
| 신년사 | 4 |
| 새해에 드리는 축원의 마음 | 8 |
| 만수대 언덕우에서 (외1편) | 10 |
| 조선의 고향집 | 11 |
| 김정일 각하께 영광을 | 12 |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헌시 | 12 |
| 농촌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우리 당의 전형화방침을 정확히 관철하자 | 13 |
| 주체형의 인간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한 시형상 | 18 |
| 함박눈 | 22 |
| 작전의 시작점 | 32 |
| 조선아! | 43 |
| 봄을 부르는 새땅우에서 | 44 |

| | |
|------------------------------|----|
| 포전길을 걸으며 | 45 |
| 원앙유정 | 46 |
| 성냥 일곱가치 | 56 |
| 백년을 다시 백년을 | 58 |
| 쇠물로 새기리라 | 59 |
| 빛나게 살자 우리 당앞에 | 60 |
| 이 꽃은, 이 열매는... (외1편) | 61 |
| 두 불빛 | 62 |
| 우리는 농촌3대혁명의 영예론 첫 파견원 | 62 |
| 들끓는 기계바다위에 | 63 |
| 병사시절의 나날에 | 64 |
| 한순간을 살아도 | 67 |
| 힘있는 나라 | 69 |
|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소설과 시대정신 | 71 |
| 작가들의 새해 창작결의 | 77 |
| 혁명의 참된 교과서, 투쟁의 힘있는 무기 | 79 |

김일성 신년사

(1983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1982년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해로 빛내인 커다란 공지와 높은 자부심을 안고 희망찬 새해 1983년을 맞이합니다.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한 우리 조국은 끝없는 환희와 혁명적량만으로 들끓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장엄한 진군길에 나서고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조적폭압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새해의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멀리 이국땅에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와 자랑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7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82년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가득찬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가 전례없이 양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고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5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와 조선인민군창건 50돐경축행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한 정치행사들을 통하여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세기가 넘는 우리 혁명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우리 당이 이룩하여 놓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굴함없이 싸워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 혁명위업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헌신성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습니다.

1982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기를 열어놓은 보람찬 투쟁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습니다.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으며 온 나라가 당이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고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며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직장, 작업반들이 제2차7개년계획을 2년이상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81년에 비하여 116.8%로 장성하였으며 금속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부문들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개건확장하여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광업부문과 건설부문의 로동계급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검덕광업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유색금속광산들을 개건확장하는 방대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유색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용감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긴장한 로력투쟁을 벌림으로써 평양시에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새로운 거리들을 훌륭히 건설하여 우리 혁명의 수도를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려놓았으며 남포갑문건설과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우리 인민들을 매우 기쁘게 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에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전례없는 대풍작을 마련함으로써 드디어 95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은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되며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와 전국가적 전인민적 지원밑에 농업근로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과학적발명과 연구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나라의 과학발전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82년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적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전례없이 많은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의 정당한 혁명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대외사업분야에서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혁명위업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혁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심화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부문은 채취공업입니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오늘 인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채취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어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하겠습니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입니다.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생산규모가 큰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과 북부지구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나는 석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지도일군들이 견결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영웅적투쟁을 벌려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며 단천지구와 량강도지구의 광산들에 큰 힘을 넣어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공업은 올해에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부문의 하나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새 발전소들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북창화력발전소와 청천강화력발전소의 확장공사를 다그쳐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과 알곡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부문입니다. 화학공장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화학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철생산법을 적극 받아들여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선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지도일군들은 당의 방침대로 프레스화, 형단조화, 용접혁명, 절연물혁명을 적극 실현하여 기계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공작기계, 채취설비를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들과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까.

경공업부문일군들은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중앙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여러가지 질 좋은 일용품수품과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까.

생산과 건설에서 양양을 일으키려면 수송이 앞서나가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이고 화차를 제때에 수리하며 철길을 보강하고 열차운행에서 엄격한 규률과 정연한 수송지휘 체계를 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더욱 발전시키며 3화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까.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다시 한번 커다란 장성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까.

쌀은 곧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당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정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알곡고지부터 점령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부침땅면적을 적극 늘이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제2차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까.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80년대 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한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뜨거운 충성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운영해나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인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니고있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의도와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잘하여야 하겠습니까.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하고야말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새해에 드리는 축원의 마음

차영도

눈이

내립니다

개선문 지붕위에

흰눈이 내립니다

설마다 오는 눈은

유정도 하거니와

이해따라 개선문에 내리는 첫눈

어찌하여 이다지도 많은 생각 불러냅니다

눈송이 , 흰눈송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타신

력사의 첫 설날을 수놓으며

이 강산에 내리던 그날의 꽃송이가

개선문에 내립니다

눈은 내리고

끝없이 내리고

저 화강석대돌우에 내리는 눈송이

백두의 바위우에 몇년을 내렸습니다

오로지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 안겨주시려

20성상 설한풍 사나운 백두밀림에서

혈전의 로고를 헤쳐오신 수령님!

피어린 행군길,

밀림속 우등불가에도

언제 한번 수령님 옷자락에

차디찬 눈비 마를 날 있었습니까

정녕, 우리 수령님

백두에서 맞으신 그 많은 눈이 있었기에

이 개선문엔

저렇듯 눈송이 꽃보라로 내리는것입니다

아, 우리르면

저 눈내리는 화강석지붕밑에

얼마나 화려한 거리들이

행복의 추녀를 높이 쳐들었습니까

행복할수록

가슴젖어오는 고마움

불우에 떨어지는 눈송이도

뜨거운것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정녕 내리는 눈은 눈이로되

보이는건 눈이 아니옵니다

수령님 조국을 찾아안고 오신 길 자욱자욱

그 길우에 송이송이 수를 놓는 꽃이옵니다

꽃길따라 천만리

이 마음도 따라가면

걸음걸음 밝혀오는 피어린 자옥

뜨거운 가슴속에 새겨집니다

수령님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인민에게 베푸신 은혜론 사랑

그 사랑속에 우리 일만복 다 누릴수록

가슴 더욱 젖어오는 백두의 20성상!

그 로고 많으신 세월,

그 빛나는 해와 달을

인민은 못잊어 길이 못잊어

력사의 기념비로 개선문을 높이 세웠으니

아,

추녀높은 화강석지붕우에

백두의 눈송이가 내리는 이 아침

어찌 인민의 생각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락원의 거리거리엔

화려한 설명절의 축등,

하늘가에 높이 솟은 행복의 창가마다엔

축복의 눈꽃보라 흩날리는데

대돌우에 내리는

흰눈송이, 흰눈송이

어찌 가슴속에

점점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못잊는 백두의 20

성상

행복이 더할수록

어버이수령님 더 잘 모실

인민의 소원, 인민의 념원!

그 념원으로

이해의 설날은 새벽부터

더더욱 쇠물이 사품쳐 끓는 설날,

창조의 희열로 새날이 밝는 설날

멀리 기적소리 동트는 하늘을 흔들고

출항의 배고동소리 잠자던 파도를 깨우는

이 해의 설날은

열정의 아침, 투쟁의 새날!

아, 락원의 이 강산에 수령님 높이 모시려

수령님 바라시고 수령님 의도하심에

천만의 심장이 하나로 뛰고

억천만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나니

어버이수령님께 만수무강 축원의 인사

삼가 드리는 새해의 이 아침

아, 력사의 개선문지붕우에

눈이 내립니다, 꽃눈이 내립니다!

만수대 언덕우에서 외1편

전초민

여기서 빛을 뿌리여라
위대한 태양이,
여기서 흘러내리여라
사람의 해빛이
우리 수령님 높이 서계시는
만수대-조선의 인덕이여

우주의 한복판에 오르시여
억만 유성들을 지휘하시는듯
승엄하신 영상
이 땅우에 아침해를 받들어올리시고
락원의 봄을 불러오신
아, 위대한신 그 손길,

그 손길 하늘 한끝을 짚으셨는가
그 손길 가리키는곳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신비 한눈에 안겨오는듯
그 손길 따라서면
천만산악이 두렵지 않고
그아래 머리숙이고 서있으면
막혔던 모든 생각 단숨에 풀리는듯

승엄하여라 그 영상
펠릭이는 외투자락에선
아직도 백두의 설한풍이 울고
전화의 검은 연기 스쳐가는듯...
얼마나 먼길을 걸어오셨던가
우리 수령님!

아득히 흘러간 20년대
숲은 시들고 강물은 마르고
사람도 산천도
숫처럼 빛을 잃고 몸부림칠 때
민족의 암담한 운명앞에
주체의 등불 밝혀들고 헤쳐오신 길,

세월은 멀고도 짧은것인가
혁명은 준령을 넘고 또 넘어
락원의 강산에 아침노을은 비껴오는데
아직도 우리 인민에게
다 주시지 못한 사랑 많으신듯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아버지수령님

비가 오면 쉬실가
눈이 오면 쉬실가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
모두다 뒤로 미루시고
70평생
앉으실 자리 서실 자리 따로 있었던가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으시며

생각하면
인간의 한생을 백번 다시 이어도
미치지 못할 멀고도 험난한 길
간고무비한 그 길우에서
언제 한번 편히 쉬시지 않으신
우리 수령님!

아, 그 길은 정녕
혁명의 위대한 진리로만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서만
재이고 헤아릴수 있는
주체리념의 가장 숭고한 길이였나니

하늘땅이 열리어 수억만년
그 언제 있었던가
그러한 위인!
그러한 시대 그러한 역사를 창조한
5대륙이 머리 들고 한결같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 사랑 그 해빛이 있어
조선은 영원히 해지지 않는 나라
사회주의 지상의 락원!

그 사랑, 그 은혜, 그 로고
우주천지간 그 어데 비길데 있던가!
아버이 그 사랑이 있어
세상에는 또한 영원이란 말이
생겨난게 아니랴!

인생의 가장 참혹한 나락밑에서
인간존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신
아, 그 사랑 그 은정에 다 보답할줄 몰라
다만 그것으로 하여 모대기고
또 모대기는 인민의 마음

억만 씨앗이 되고 새싹이 되어
충성의 꽃바다를 펼치리라
오로지 아버지수령님과
당중앙을 우리러 받드는

한번 피고 두번 피고
 백번 다시 피어나도 변함이 없으리라
 오로지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기쁨이 되는
 주체의 붉은 꽃이 되어
 아침해 찬란한 조선을 만대에 빛내리라

백전백승의 기치
 위대한 인간애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수령님 서계신
 아, 이 세상의 상상봉 만수대언덕이여
 너를 우러러 세계는 또한
 영원히 해질줄 모르리라!

조선의 고향집

조선의 하늘을 떠받들고
 집은 서있어라
 지금은 맑고 푸른 하늘에서
 종다리노래 은방울처럼 굴러내리는
 해빛이 꽃무늬를 짜 지붕에 씌워주는

아, 이 집이여라
 이 작은 초가집이여라
 일제의 침략에
 나라가 발굽까지 패워져나갈 때도
 온 겨레의 슬픔을 한품에 안고
 저 하늘을 곳곳이 떠받들고 서있을

하늘이 온통 무너져내리는듯한
 그 모진 수난의 역사를
 안개처럼 가버이 밀어내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오늘도 조용히 사립문 열어놓고
 옛모습 그대로 서있는
 그 사립문으로 기어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맞아들인
 만경대고향집이여

지금은 온 나라에
 층층이 높이 솟은 집들
 오막살이 그 시절을 옛말하며
 푸른 하늘과 속삭일듯
 행복에 넘친 창문들을 여는데

이젠 저 갈노전을
 비단포단으로 갈아깎고
 금실린 나무기둥은
 금강석을 다듬어세워도 모자랄
 인민들의 마음인데
 오늘도 뜬김이 서리고

죽가마 끓는 소리 들리는듯
 락수물 떨어지는 처마밑에
 유리문 한쪽도 보탬없이 서있는
 소박하고 겸허한 집이여!

불수록 깊어만지는 생각
 차마 그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조선의 고향집
 우리의 모든 행복
 모든 기쁨의 시원이 열린
 만경대고향집

우리 그 품을 떠나 순간도 못살아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도
 언제나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있고
 그래도 못견디게 그리워
 때없이 달려와 마음속을 터 놓고
 조용히 안겨보는 어머니품

조국은 만사람의 어머니라더라
 허나 만경대의 초가집을
 조국과 인민-그 모든것 한품에 안은
 크나큰 어머니!

아, 우리 다시 어느 먼 초소에 가있어도
 마음의 한끝은 언제나 이 집에 두고
 이 집과 함께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칠벽으로 받들어가리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붉은 노을이
 온 지구위에 비껴가는 저 하늘을
 영원히 영원히 목숨으로 받들고!

김정일각하께 영광을

부바까르 까마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은 주체의 위업을 빛내여가시며
세기적인 변혁으로 역사를 수놓으시여라
당신께서 조선을 위하여 쌓으신 공적 영원불멸
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싸우시는 앞길에 영원
한 승리가 펼쳐져있거늘

당신의 덕망 한없이 고결하고 훌륭하며
당신의 뛰어난 재능 세계가 알고있나니
당신의 위업 위대하고 숭고하여라
당신의 이름 영원할 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천세만세 길이 빛나라

(필자 세네갈 시인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헌시

나빌 아흐마드 무쓰라파

당신의 탄생으로 이 세상 밝게 빛나니
우리모두 당신을 칭송하여 노래불렀습니다
경모하는 **김정일** 지도자이시여
당신의 존함 자주의 앞길 밝게 비쳐주나니
당신은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분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신분
당신께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여
영웅으로, 투쟁의 기수로 되시였습니다

당신의 영광에 찬 역사
오늘을 위해 바치시였나니
뛰어난 슬기를 키우시며 자라신 어린시절도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탐구로

지혜의 최고봉에 오르신 청년시절도
모두가 비길데없이 귀중한 삶의 순간순간이었
습니다

당신께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과학리론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나라 주체사상화의 불길 지피셨기에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은 주체의 요구대로
꽃피고
조선의 면모는 새롭게 단장되어갑니다.

(필자 에쥔트 메니야드 와이엘세계출판물

전람사 사장임)

농촌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우리 당의 전형화방침을 정확히 관철하자

류 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어 농민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농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창작하는 사업은 당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은 사회주의농촌현실주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며 작품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더욱 제고하고 그 인식교양적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최근 우리 당은 현실적요구와 농촌현실주제작품 창작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의 주제방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용감하게 싸웠으며 전후 협동화를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50 대 60 대 되는 농장원들이 오늘도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지켜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사실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촌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들에서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구자로 형상할데 대하여 가르치였다.

농촌현실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에서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구자로 형상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즐기치게 발전하여온 우리 나라 농촌현실의 구체적인 실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에 맞는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근 40년에 이르는 력사적기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거대한 혁명적변혁이 이루어졌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에 따라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가지고 토지개혁과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가장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농민들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른 우리 나라 농촌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농민들이 성장하여온 자랑스런 로정이다.

지금 농촌에서 50 대 60 대 되는 농장원들은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민주교육도 받았고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았으며 전후 농업협동화를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는 지난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전후에 농촌을 지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촌에 진출한 로동계급출신들과 제대군인들도 적지 않다.

50 대 60 대 되는 농민들은 토지혁명, 조국해방전쟁, 농업협동화를 거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보람찬 나날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농촌의 참다운 주인으로, 믿음직한 농촌혁명가로 자라났다.

농촌의 오랜 핵심들인 이들은 자기들의 체험과 실지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깊이 확신하고있으며 오늘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바쳐 나가고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로쇠될수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며 당이 바라는데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려는것이 농촌의 오랜 핵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드는 그들의 충성심은 더없이 깨끗하고 웅심깊고 뜨거운것이며 사회주의농촌의 오늘과 래일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바치는 그들의 주인된 자각과 책임, 창조적열의

와 적극성은 참으로 높은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의 발전력사와 더불어 성장하여 온 이러한 오랜 핵심들은 우리 나라 농촌의 어디에 가나 있으며 그 어느 초소에서나 그들은 미더운 주인이 되어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이러한 현실은 농촌 현실물창작에서 농촌의 오랜 핵심들, 50 대 60 대 되는 농민들의 형상창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구자로 형상하는것은 이처럼 우리 나라 농촌의 객관적인 현실이 우리 문학앞에 제기한 절박한 과제이다.

농촌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구자로 형상하는것은 농촌현실의 객관적인 요구일뿐아니라 또한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과 새생활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주체적문제이론은 우리 문학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현실적인 인간과 생활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것은 사실주의적전형화의 기본원칙이며 일반적인 요구이다. 사실주의적문학작품에서 전형적인것은 생활에서 전형적인것의 예술적인 반영이다.

현실적인 인간과 생활을 떠난 전형화란 있을수 없으며 작가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꾸며지고 만들어진 온갖 《전형》은 참다운 예술적전형으로 될수없다. 그러한 전형은 인간과 그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밝혀낼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상정서감흥도 줄수 없다.그것은 오히려 생활의 진실을 거세하고 성격의 사회계급적본질을 외곡하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 우리의 농촌현실을 반영하면서 실지 생활에서와 같이 토지개혁과 조국해방전쟁, 농업협동화의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오늘도 농촌의 핵심으로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는 50 대 60 대 되는

농민들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는것은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만일 생활의 진실을 외면하고 오늘의 농촌현실을 반영하면서 50 대 60 대 도]는 농민들은 오직 나이가 많다는 그 한가지 리유로 몰밀어 다 보주의자, 리기주의자로 설정하고 그들이 농촌청년들의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저해하는것으로 형상한다면 그것은 생활에 대한 외곡으로 될뿐아니라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에도 심히 어긋나는것으로 될것이다.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오늘의 농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50 대 60 대 되는 농민들의 선구자적역할을 옳게 보여주어야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농민들에게 혁명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농업전선을 계속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할수 있을뿐아니라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는 사업도 더 잘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농촌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50 대 60 대 되는 농민들의 선구자적역할을 옳게 보여줄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농촌의 구체적인 실정과 사실주의적문학예술의 전형화의 원칙에 맞는 가장 정당한 방침으로서 농촌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혁명적인 작품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발전하는 사회주의농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농촌의 오랜 핵심들을 전형으로 내세운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기 위한 창조사업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이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적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현실에 대한 옳은 창작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 문제이다.

창작적 립장과 관점문제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대하며 현실의 어떤 측면들을 어떻게 전형화하는가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작품의 사상에술적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옳은 창작적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현실을 정당하게 보고 평가할수 있으며 생활해서 본질적이고 의의있는것을 적극 찾아내어 그것을 시대적 높이에서 일반화할수 있다.

농촌현실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오늘의 우리 나라 농촌, 즉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

여 사람도 자연도 모든것이 변모하고 눈부시게 발전한 농촌현실을 정확히 보고 대하며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이다.

오늘의 우리 농촌은 토지개혁때나 전후 농업협동화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이후 1960 년때의 농촌현실과 또 다르다. 그리고 농민들도 그때의 농민들과는 다르다.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기간 농민들의 사상의식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오늘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공산주의적혁명가의 품모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변모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정당하게 보지 않고 농업협동화시기의 농촌에 대한 낡은 창작적관점을 가지고 농촌이라고 하면 의례히 보수주의와 리기주의가 많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곳으로 작품에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곡하며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을 어기는것으로 될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대한 옳은 교양적목적을 실현할수도 없다.

물론 우리 농촌에는 아직도 지난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잔재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낡은 사상의 잔재와 그 표현은 토지개혁시기나 농업협동화시기의 그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농촌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그 표현도 오늘의 시점에서 보고 대하여야지 지난 시기 농촌에 대한 일반적인 관철에서 대하여서는 현실에 맞게 옳게 그려낼수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의 농촌현실에 대한 옳은 창작적관점을 가지는 문제는 단순히 오늘의 시대적분위기나 이러저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재현하는데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는 사실주의적전형화의 견지에서 오늘의 농민들과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고 대하며 발견하는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로서 그것은 구체적인 형상창조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그러므로 농촌현실주체의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지난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오늘의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옳은 창작적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의 정책에 기초한 옳은 창작적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오늘의 발전하는 농촌현실을 보아야 하며 농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서의 부분적인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도 오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작가들이 오늘의 농촌현실을 똑바로 보는 옳은 창작적 관점과 립장에서야 우리의 농촌현실과 농민들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거나 외곡하여 그리는것과 같은 온갖 비사실주의적경향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창조적으로동으로 들끓고 전진적인 기상과 생활락천적인 정서로 충만된 농민들의 생활과 충성의 구슬땀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훌륭히 전형화할수 있다.

농촌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전환을 일으켜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구자로 훌륭히 형상하기 위해서는 창작적관점을 바로 가지는것과 함께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매 인물의 위치와 역할을 옳게 밝히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가 못보여주는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모순들을 정확하게 그려내는가 못그려내는가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구성의 짜임새와 립체성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였다.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인간관계는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투쟁과정에 그들호상간에 맺게 되는 사회정치적 및 료리도덕적 제관계의 형상적반영이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생활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며 그 인간관계속에서 자기의 사상과 사회계급립장을 드러내며 정신도덕적품모를 나타내게 된다.

문학작품에서 인간의 성격과 그 운명의 발전은 인간들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관계속에서만 밝혀질수 있다.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심화발전을 떠나서는 매 인간의 운명선에 대해서는 물론 그의 생활도 옳게 파고들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생활의 진실을 정당하게 반영할수 없다.

인간관계가 옳게 설정되어야 작품에서 작가가 내세우고 긍정하는 인간의 성격을 정확히 밝힐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고 작품의 사회교양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있다.

현시기 농촌현실물작품창작에서 50 대 60 대 되는 오랜 핵심들의 선진적인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그리자면 우선 인간관계부터 똑바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이 선진적인 역할을 노는 인물로 전형화될수 있게 그들을 응당한 위치에 세워야 하는것이다.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는 해방 후에 태어나서 자란 20 대 30 대의 청년들도 있고 40 대는 물론 그이상의 세대에 속하는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이 생활하고있다.

여기서 어느 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선진적인가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제시될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높이가 결코 나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물론 새시대의 교육을 받은 20 대 30 대 되는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들은 농촌에서 부정적인 현상들과 투쟁하며 농민들을 선진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단단히 한몫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20대청년들이 앞장에 서서 하고 50대 60 대되는 사람들은 개인리기주의자, 보수주의자로서 당의 주체농법관철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더우기 토지개혁과 조국해방전쟁, 농업협동화시기에 헌신적으로 투쟁한 50대 60 대 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부정인물로 설정하는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의 견지에서 보나 전형화의 견지에서 보나 다 맞지 않는다.

이것은 다 농촌에 대한 낡은 창작적관점의 표현이다.

작가들은 낡은 창작적관점에서부터 오는 인간관계설정에서의 일면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의 핵심적역할을 충분히 보여줄수 있게 인간관계를 바로 설정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이 선진적역할을 하는 인물로 설정되게 인간관계를 맺어주어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20 대 30 대 청년들을 부정인물로 설정하라는 요구와는 다른 문제이다.

현실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전형화의 원칙을 잘 구현해나간다면 계층에 따르는 공부정관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도 인간관계를 잘 맺어줄수 있으며 생활의 진실을 옹계 밝혀낼수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매 인물에게 뚜렷한 형상의 몫을 주는것이다.

매 인물에게 뚜렷한 형상의 몫이 있어야 그 인물이 살고 전반적인 형상체계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이 정확히 밝혀질수 있다.

특히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진분자로 내세우자면 선진적인 인물로

서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보여줄수 있게 그들에게 뚜렷한 형상의 몫을 주어야 한다.

작품의 사상주제적목적과 생활반영의 특성에 따라 작품에는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될수도 있고 또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로 설정될수도 있다. 꼭 주인공으로 설정하여야 그들의 핵심적역할이 강조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반적인 인간관계속에서 그들의 핵심적, 선진적역할이 두드러질수 있게 형상의 몫을 뚜렷이 주는데 중요성이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구자로서의 뚜렷한 형상의 몫을 가진 50 대 60 대 되는 농민들의 지위와 역할이 작품에서 옹계 밝혀져야 그가 주인공이든 아니든 농촌핵심으로서의 전형화가 훌륭히 실현될수 있으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품모가 웅심깊게 드러날수 있다.

농촌현실주제작품에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우 그들에게 형상의 몫을 명백히 주며 그들의지위와 역할을 옹계 밝히는 문제는 언제나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농촌의 오랜 핵심들의 선진적인 역할은 그들의 지나온 경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속에서 사람들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 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50대 60대되는 농민들의 지위와 역할은 마땅히 그가 주인공으로 설정되였는가 안되였는가 하는 실무적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위치에 서있든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떠맡어나가는가 하는데 의하여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에게 작품의 주제사상을 천명하는데서 보다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그 호상관계를 설정하며 그러한 견지에서 형상의 몫도 명백히 주어야 한다.

그래야 농촌현실물작품창작에서 오랜 핵심들의 선진적인 역할을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으며 오늘의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전형적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농촌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전환을 일으켜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구자로 훌륭히 형상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의 핵심적, 선진적역할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을 깊이 탐구하여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며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내기 위하여서는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작품에 의의있는 좋은 종자가 심어지고 종자의 요구에 맞게 인간관계가 옹게 설정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적인 형상으로 천명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 맺어지고 생활을 통하여 표현되는것만큼 그것은 생활적인형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인물들이 말은 형상과제 역시 생활형상을 통하여 풀려나아야 한다.

농촌현실주제의 작품에서 인간관계를 옹게 설정하고 매 인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백히하는 문제와 그것을 생활적인 형상으로 잘 안받침하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는 여기에 오랜 농촌핵심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선구자로서의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의 형상창조를 위해서는 생활도 다양하게 탐구하여야 하며 형상수법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오늘의 농촌에서의 그들의 핵심적역할을 옹게 보여주는것과 함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자랑찬 년대들에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선진적인 역할을 형상적인 통일속에서 잘 그려내는것이다. 말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을 위한 농촌의 오랜 핵심들의 오늘의 투쟁모습을 잘 그리는것과 함께 토지개혁, 조국해방전쟁, 전후농업협동화를 위한 투쟁시기에도 그들이 헌신적으로 잘 싸웠다는것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토지개혁, 조국해방전쟁, 전후농업협동화를 위한 간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속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친 오랜 핵심들이 오늘도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지켜 선진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사실을 생활적인 형상으로 재현하는것이야말로 그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랜 농촌핵심들의 전형화를 위한 생활탐구는 다양한 형상과 방법으로 진행될수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하는 오늘의 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난날의 헌신적인 투쟁모습도 일정한 지면을 가지고 형상할수 있으며 또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의 형식으로 재현해보일수도 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개혁, 조국해방전쟁, 농업협동화시기의 헌신적인 투쟁에 대하여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처리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화폭을 통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며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받아안던 이야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이야기 등을 펼쳐지면서 그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목적과 작가의 형상적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그 어느 경우나를 막론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잘 싸워온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이 오늘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다는 사상을 생활적인 형상으로 잘 천명하는 문제이다. 50 대 60 대 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었든 주인공으로 설정되지 않았든기간에 그들의 형상을 통하여 이러한 성격적특성과 사상적지향을 뚜렷이 밝혀야 오늘의 농촌현실을 진실하게 재현하고 농민들의 전형화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농민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회주의농촌진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빛나는 년대들을 걸어온 50 대 60 대 되는 농민들은 오늘도 우리 농촌에서 핵심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으며 그들의 선진적인 역할에 의하여 새세대들이 또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자라나고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주의농촌현실과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농촌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에 선 높은 영예와 공지를 안고 우리 작가들은 농민들의 형상창조에서 당이 제시한 전형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며 나아가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한 시형상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에 대하여-

최길상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최근 우리의 시가문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시대의 요구를 훌륭히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내놓고 있다.

특히 당과 수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가사들이 사상에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창작되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는것은 우리 가사문학의 특출한 성과이다.

그중에서도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적신념을 기본핵으로 하여 노래한 명가사로서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정신교양에 특별히 기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혁명을 끝까지 하려면 그 어떤 시련과 풍파도 이겨낼수 있는 혁명적신념을 가져야 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었다.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는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해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는 시형상으로 해답을 준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은 창작에서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린 소설과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가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인간, 주체형의 인간들의 사상감정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데 있다.

우리 문학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사명을 다하려면 주체형의 인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당에서 가르쳐주고있는바와 같이 주체형의 인간이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지녀야 할 모든 품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공산주의자가 지녀야 할 가장 높은 품모와 자질에서 근본핵으로 되는것은 혁명적신념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있는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자의 최고전형으로 된다.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는 바로 우리 시대 인간, 주체형의 인간들의 사상감정의 정수인 우리 당에 대한 신념을 깊이있는 시형상으로 노래하였다.

혁명의 길엔 영광도 있고

모진 시련도 많아라

어머니당이 준 신념이 없다면

그 어이 먼길 가라

한번 다진 전사의 맹세 생명보다 귀중해

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

혁명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더우기 우리 혁명은 그 장기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험난한 로정을 걸어왔다.

우리가 걸어온 혁명의 길은 그 어느것이나 전인미답의 초행길이였다.

포악무도한 일제의 식민지적 억압과 략탈, 종파사대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집요한 파괴압해책동을 짓부시며 험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야 했던 조선혁명의 려명기로부터 항일의 피어린 나날들,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수행과 미제의 야수적인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 등 우리 혁명이 헤쳐온 길은 참으로 시련에 찬 혈로였다.

우리 인민이 이 험난한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갈수 있는것은 다름아닌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신념, 그것은 당과 수령에게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며 운명을 같이하려는 철석같은 결의의 표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은 인간의

지 발현의 최고 정수이며 그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신념의 최고 권화이다.

사회적존재로서 인간이 발전해온 역사는 신념의 발전력사라고도 말할수 있다.

인류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신념과 신념의 대결과 충돌이 깃들어있으며 어떤 역사발전단계에서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신념이라는것이 존재하여왔다.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신조의 바탕으로 되는 신념은 각이한 역사적단계에서 사회계급적 및 역사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한줄도 못되는 지배계급들이 근로인민대중을 비인간적으로 착취박탈하고 무지와 몽매속에 몰아넣음으로써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유린말살되던 모든 계급사회에서는 인간의 신념이 착취사회의 무제한한 전횡을 합리화하고 근로인민대중이 가난과 빈궁을 숙명적인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적응하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것으로 형성 되였었다.

그리하여 가난한 근로인민대중은 운명의 노예가 되는것을 불가피한것으로 생각하고 저세상에 가서나 《사후의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 온갖 종교와 미신적이고 허황한 《신념》을 가지고 지배계급들의 전횡에 맹목적으로 순응해왔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신념의 비과학적기초가 허물어지게 되였고 허황한 세계에서 탈피하여 투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가난한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신념이 발생하였다.

지난 세기의 모든 형태의 신념발전의 역사는 신념이 오직 자기 당과 자기 수령의 위대한 철학적사상에 바탕을 두고 저기에서 흘러나온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으로 될 때 추호의 드림도 없고 조그마한 공백도 없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닌 신념은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혁명적신념이다. 그것은 오직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들속에 정수를 이루고 형성된것으로서 자기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투쟁의 보람,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성이 담보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적신념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당에 대한 신념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억세여지고

굳게 다져진것이다. 그것은 그 어떤 장벽으로 막을수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이 세상 가장 위력한 힘을 지닌 필승불패의 혁명적신념이다.

하기에 가사에서 노래되고있는바와 같이 혁명의 길엔 영광도 있고 모진 시련도 많지만 우리 인민은 어머니당이 준 이 신념을 안고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드림없이 걸어가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모든 혁명투쟁과 실천행동에서 위훈을 날게 한 초석이며 사상의지의 핵으로 되고있다.

가사가 우리시대, 주체시대 인간들의 주도적인 감정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할수 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을 개념적이거나 일반적인 호소로써가 아니라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활감정으로 포착하고 시화하였기때문이다.

가사는 혁명의 길에는 영광도 있고 모진 시련도 있으나 영광과 시련의 길위에서도 변함이 없는것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이고 의지이라는것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인간신념은 영광의 날이 아니라 모진 시련의 나날에 검증된다.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혁명의 나날, 때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야 하는 엄혹한 생사의 정황에서만 신념은 자기의 진가를 나타내게 된다.

우리 당이 준 우리 인민이 지닌 혁명적신념은 그 어떤 시기에도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풍랑도 뚫고 불비속을 헤치며 당을 따라 끝까지 가고 또 가는 우리 인민의 의지이며 지향이며 념원의 전부이다.

바로 이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상감정에서 근본핵을 이루고있는 혁명적신념을 깊이있게 노래한데 이 가사의 철학성이 사상예술적성공과가 있다.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가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공과는 또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주도적인 감정을 짧은 시형상속에서 폭넓게 일반화한데 있다.

아직 인류의 사상의식발전에서 그 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고의 높이에 이루고있는 주체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인 감정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여 짧은 시형상을 통하여 보여준다는것은 어려운 창작과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화위업이 빛나게 수행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간존중의 새력사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 이 새로운 역사적시대는 주체형의 새인간들을 끊임없이 키워내고있다. 어디를 가나 숨은 영웅들, 3 대혁명전우들의 위훈이 빛나고있으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모들이 발휘되고있다.

거창한 현실속에서 발양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주도적인 감정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일찌기 역사에 있어보지 못한 뜨거운 충성의 열정으로 충만되어있다.

우리 시문학은 바로 주체시대가 배출하고 그속에서 시대를 안고 올라나오는 주체형의 인간들의 심장의 고동과 숨결을 체현하여야 하며 그것을 시적으로 일반화하여 감동적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는 시대감정을 폭넓게 일반화하여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시대의 요구에 높은 시적형상으로 대답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인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문제들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해명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는 주체형의 인간들의 사상감정의 정수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심오하게 제기하고 높은 시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그것은 가사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신념을 폭넓게 일반화하면서도 사람들이 시의 세계에 들어가 사색할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형상화하였기때문이다.

조선혁명 동트던 아침
한별을 따르던 녀인가
향도성 받들어 천만의 심장이
충성의 꽃 피워가네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 천금보다 귀중해
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의 력사가 반영되어있으며 신념의 높이와 가치가 격조높이 구가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 그것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형성되어 멀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굳세어진것이다.

이 신념은 아직 우리에게 주권도 당도 없고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모르는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구성으로,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며 혁명의 난국을 헤쳐가면서 지녔던 한별정신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간직한 한별정신, 그것은

혁명적신념과 의리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충성심이었다.

그로부터 흘러나온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신념,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밖에 모르며 수령님을 받들어나가는 한길에서 일생동안 시종일관하는 불변성이며 혁명에 한목숨바칠 높은 각오를 가지고 한번 먹은 마음 끝까지 변치않는 강직한 절개이다.

이 신념은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꼭 절 많은 혁명의 길을 역세게 걸어나가게 한 마음의 기둥이었으며 그들을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게 하는 빛이며 생의 비결이고 투쟁의 원동력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한 혁명은 반드시 승리하며 수령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안고 그 길에서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가사는 일찌기 조선혁명이 동트던 아침에 한별을 따르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모든 행동의 발현이 혁명적신념에 바탕을 두고있었다는것을 시적으로 확인한 기초우에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당을 따르는 신념이 바로 그 불변의 신념속에 원천을 두고있다는것을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

한별을 따르던 그 녀를 이어받아 우리 당을 주체위업의 향도성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가는 주체형의 인간의 천만의 대오가 오늘 이 땅우에 대하의 물결인양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한별정신을 간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신념, 그것은 오늘 우리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의 기치드높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신념속에 뿌리내렸다.

한별정신을 간직해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철석같은 신념, 그것은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야 주체혁명위업의 세계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로 우리 인민들에게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할 하나의 신념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것이다.

가사는 바로 간고한 시련을 거쳐 멀리 전진하여 온 혁명의 길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게 자리잡고 삶의 신조로, 비결로 된 신념을 폭넓게 일반화하여 집약된 시형상으로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사를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을 력사적으로정속에서 감수 할뿐아니라 장엄한 주체시대의 맥박속에서 뜨겁 게 느끼게 된다.

여기에 바로 이 가사가 우리 시대 인간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시적으로 노래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킨 특출한 성과가 있다.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가 이룩한 사상에 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혁명적랑만성을 체현시킨것이다.

오늘 우리 시가문학에서 혁명적랑만성을 체현시키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으로부터 나서는 특별히 중요한 형상과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승리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당원들을 무장시키며 사회의 모든 객관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줄 아는 혁명투사로 당원들을 단련하여야만 장기적투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학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자주성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오직 래일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혁신하고 전진하는 자주적인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랑만성을 옹계 보여주는것은 후대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 불려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랑만성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 미래에 대한 강렬한 사상정서적지향이며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싸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의 하나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전도와 최후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일시적인 난관과 실패 앞에서 자그마한 동요와 우울, 침체도 모르며 랑만적으로 싸워이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랑만성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확신에서가 아니라 미래를 자기 힘으로 개척하려는 혁명정신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이 구현된다.

가사는 바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의 하나인 혁명적랑만성을 풍부히

구현하고있다.

영광의 날엔 이 길을 가고
준엄한 날엔 판길 가랴
이 한몸 불속에 재가 된다 해도
이 신념 지켜가리라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순간인들 멈추랴
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 그로부터 발양되는 혁명적락관이 없는 신념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신념이 아니다.

그런 신념아닌 《신념》은 흔들리기쉽고 휘여들기 쉬우며 변하기 쉽다. 그것은 순탄한 길우에서는 가려볼수 없다.

혁명적락관에 넘치는 신념이 없는 사람은 순풍에 돛을 달았을 때에는 망망대해를 단숨에 점령할것 같은 《기세》를 보이지만 풍랑이 일면 주저앉고 한치도 전진하지 못한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바로 사람들에게 어떤 역풍에도 주저하지 않고 주체의 항로를 따라 풍랑을 헤쳐가는 불굴의 의지와 굳은 신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가사는 영광의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오직 당을 따라 한길을 가며 그 길우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불속의 재가 된다 해도 우리 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을 혁명적랑만이 도도히 넘치는 서정속에서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항일의 혁명투사들이 상상할수 없는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명랑하고 낙천적이였으며 겹겹이 쌓인 포위속에서도 단두대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적절개를 굳건히 지킨것처럼 그 어떤 모진 시련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신념을 간직하고 있다는것을 높은 시형상으로 확증하고있다.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는 이처럼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우리 시가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 신념을 노래한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함박눈

김룡락

역전광장에 나선 장금이는 한참동안이나 그냥 한자리에 서있었다. 어머니의 바래움을 받으며 이곳을 떠나던 일이 어제런듯 삼삼히 눈앞에 밝혀온다. 그날 어머니와 함께 이 광장을 거닐며 이제 자기는 대학을 마치고 가정까지 이루는 날이면 곧 어머니를 모시겠노라고 얼마나 열기를 띠고 다짐했던가. 어머니도 그때 얼마나 기꺼이 그 다짐을 받아들였던가 했건만 글썽 이제야 어머니를 모시러 오다니.

큰길에 나서자 황소도 날려보낸다는 이고장의 드센 바람이 며칠전에 내린 눈을 모래가루와 뒤섞어 얼굴에 끼었어댔다. 하건만 자연의 그 황포한 광란질도 결코 어머니에 대한 골똥한 생각에서 장금이를 떼내지는 못하였다.

10년이란 세월을 하루와 같이 돌보아주던 보육원어머니! 하건만 것이 여물기가 바쁘게 저마끔 엄지품을 날아나버리는 작은 새들마냥 모두 슬하를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어머니는 쓸쓸할텐가...

기억을 더듬어 그동안 몰라보게 변한 거리의 아빠트들을 예돌아 로타리를 지나니 아담하게 꾸려진 4층짜리 다층주택이 한눈에 안겨왔다.

꿈속에서도 몇번이나 달려와 하염없이 지켜보곤 하던 저 파란창문, 방금 어머니가 나오서 손저어 불러줄듯한 흰 대리석을 깬 란간, 아!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과 가슴 허비는듯한 그리움을 더하여 주는가!

이제 몇분만 지나면 곧 어머니를 만나뵐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조금해난 장금이는 저도 모르게 줄달음쳤다.

하나 손기척소리에 문을 열어준 사람은 뜻밖에도 30대에 나는 통통한 녀인이었다. 녀인의 입에서 리숙경어머니가 딴 거리로 이사갔다는 말이 나오자 어지간히 불안한 생각들이 장금이를 휩쌌다. 왜 이사했을까? 무슨 곳은 일이 생긴것은 아닐까? 그러나 낯모를 녀인을 붙잡고 그런것을 물을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녀인에게서 그저 길만 물어 어머니가 이사를 간 새 탑식주택을 찾아내기까지에는 또 40분남짓한 시간이 착실히 걸렸다. 첫현관 맨아래층 첫집앞에 다가가 손기척을 하자 이번에 문을 열어준 사람은 체소한 할머니였다. 장금이를 잠시 눈여겨보고나서는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누굴 찾으?》

불빛을 잔등에 받으며 선바람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엄한속에도 부드러운 맛이 풍기는 그목소리를 어찌 장금이가 가려내지 못하랴. 날듯이 집안에 뛰어든 그는 가방을 복도에 내려놓고는 몸매를 헝클어뜨리며 상대방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머니!》

《아니, 이게 누구냐?》 얼떠름해진 늙은이는 장금이의 동실한 머리채를 내려다보며 기계적으로 뇌였다.

《애들아, 저기 얼른 돋보기를 갖다주려무나.》

사이복도 원견에 위치한 방에서 총각아이 세넷과 처녀아이 세넷이 일제히 쓸어나왔다. 처녀아 이하나가 돋보기를 끼워드리자 늙은이는 두손으로 장금이의 두뺨를 쳐들어올리고는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을 뜯어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주름진 이마를 우로 밀어붙여 더 깊은 교랑들을 파며 흐느낌소리를 터뜨렸다.

《이게 장금이가 아니냐? 내 딸이 왔구나. 그런 걸 글썽 알아보지 못하다니. 별나게 오늘아침에 두 집앞에 까치가 날아와 운다 했더니. 알고보니 너 조금두 변하지 않았구나. 입술이랑 도도룩한게 처녀적 그대로라니까. 키두 림름한게 얼마나 보기 좋겠니. 가만, 너 지금 몇살이더라?》

《마흔을 먹어가요, 어머니.》

《아니 뭐라구? 하긴 내가 신다섯을 지났으니까.》

《어머닌 그동안 많이 변했어요.》

장금이는 자기 볼에 대인 어머니의 두손을 쓸어만졌다. 얼마나 정답고 살뜰하고 재간과 솜씨를 보여주던 손인가. 아프다면 머리를 짚어주고 울면 눈물을 닦아주던 손, 자기를 녀학생들에게 재봉하는 법, 다림질하는 법, 풀하는 법을 가르쳐주던 손, 그러던 손이 이제는 이렇게 퍼런 힘줄들이 드러나고 짹짹해졌단말인가? 하나 목소리는 예나 다름없이 쟁쟁하였다.

《아니, 그냥 이렇게 복도에 서서 울기냐? 몸이 그대로 얼음장인데. 애들아, 너희들두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구경이나 마저 하려무나. 평양에 있는 한장금아지미다. 내가 자주 말하던.》

아이들이 들어가자 어머니는 장금이쪽을 향해서 도 발을 달았다.

《태반은 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의 아이들이란다. 그 부모들은 너하구 학년들이 달랐으니까 이름이나 불러서는 모를게다.》

방아래목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어머니는 펄펄 끓는 우유주전자를 들여와 무슨 가루약까지 타서는 연거퍼 석잔을 부어주고 그자리에서 잔을 비우게 하였다.

《기침을 안짓는걸 보니 만성기관지염이 떨어진 것 같아보인다만 몸은 아래목에서 그냥 폭 녹여야 하겠다.》

결국 저녁식사까지 끝난 연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는 집구경이나 하자며 부엌칸과 복도 건너편에 있는 방까지 마저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다소곳이 앉아 텔레비를 구경하고있는 건너편방은 객실처럼 넓었으며 벽에는 손풍금과 가야금과 바이올린과 기타도 각각 뒤개씩 걸려있었다. 그리고 한쪽벽에는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이 붙어있었으며 그앞에는 긴책상이 가로놓여있었다.

《보다 싫이 난 이렇게 큰집을 쓰고산단다.》 자기 방으로 돌아오며 어머니가 하는 말이었다.

《넌로보장으로 돌아어두 숙경어머니네 집은 아이들의 모임터로 되게 마련이라면서 얼마전에 이런 큰 집을 배경해주는게 아니겠니. 그리구 집안을 다 꾸려주기까지 하구. 책상이랑 책장은 비품이라치구 책들이랑 악기들이랑 모두 나라에서 마련해준거란다. 텔레비는 벌써 몇년전에 선물로 받았던거구. 그래 이렇게 집을 꾸려놓으니 아이들이 모여들어 책도 읽구 숙제도 하구 텔레비도 보구 노래도 배우군하면서 여간 흥성거리질 않는구나.》

잠시후 어머니는 텔레비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바래주고 와서는 장금이더러 물었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지금두 석찬인 내과과장이구 넌 소아과의사구, 그러냐?》

《그래요. 어머니.》 장금이는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장관을 쓸어만지며 이렇게 대답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사람들의 불행을 가셔주는 일을 맡아보고있으니 얼마나 장하냐. 석찬인 어릴적부터 책임성이 높았으니까 일을 본때있게 할거다. 그런데 넌 초저녁잠이 많던 버릇이 이젠 완전히 떨어졌는지 모르겠구나.》

《이젠 환자결에서 사흘밤을 밝히래도 밝혀요.》

《용구나. 학원에 금방 들어와서는 저녁식사만 끝나면 숙제도 미처 다 하기전에 책우에 머리를 박구 쓰러졌지. 그런다구 꾸중해줬더니 하루저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지 않았겠니. 자. 호실아 이들을 데리구 밖에 나와 암만 찾아다녀두 있기를 하나. 하는수없이 이젠 아이들을 재워놓구 혼자손을 써보려는 생각으루 이불들을 내려주는데 글썽 넌 이불장속에 들어가 이불 여러장을 뒤집어쓰구는 꼬부리구 자는게 아니겠니. 책상앞에서

자다가 들키면 또 꾸중을 듣겠으니까 그런 엉뚱한 궁리를 했지.》

《생각나요. 》

《그러던 애가 후엔 얼굴에 뺨수를 끼얹으면서 두 줄음을 이겨냈지. 그런 이악한 성미니까 졸업하는 날까지 반장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해낸게 아니겠니. 어쨌든 환자들을 돌보자면 잠이 적어야 할거다. 동생한테서는 편지를 받느냐?》

《받아요. 》

《나두 며칠전에 받았다. 조국의 고지를 믿음직하게 지켜섰다구 써보냈더구나. 그래, 무슨 일로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느냐?》

《어머니를 한번 찾아뵙고싶어서요.》

《대학으루 떠난 다음에 이게 두번째지?》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장금이는 벽를 가리켰다. 《저건 샘골시절부터 우리 호실에 걸려있던 그 벽시계가 아니나요?》

《알아보는구나. 》

《전전에 왔을 때에도 있더니 아직도 그냥 있구만요. 어떻게 몰라볼수가 있나요. 샘골에서 겪던 일이랑 죄 상기시켜주는 물건인걸요.》

《그때 너야 몹시 어렸는데.》

《그래두 다 생각나요. 학원이 처음 자리잡았던 곳인걸요. 정말 깊은 산골이었어요. 밤이면 승냥이의 울음소리까지 손에 잡힐것처럼 들려왔어요.》

《그런 깊은 산골이었기에 원쑤놈들의 비행기들두 거기까진 거의 날아오질 못했지. 나라에서는 너희들을 보호해주려구 그런 안전지대를 골랐던 거니까.》

《알아요. 거기서 어머니 힘상한 물골들을 하고 학원에 찾아온 나와 내 동생 장혁이를 아무 꺼리낌없이 품에 안아주었지요. 누데기보다 더 험어빠진 옷들을 벗겨서는 활활 불살라버리구요. 목욕탕에 안고 들어가 목은 때를 다 벗겨준 다음에는 새교복을 입혀주었구요.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서는 손수 음식을 입에 떠넣어주었지요.》

《아버지원수님께서 전쟁의 그 준엄한 불길속에서두 너희들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애육원과 학원들을 세워주시구 먹을것, 입을것, 학용품들을 보내주신 덕분에 너희 오누이한테두 그 은혜가 차례졌던것이지.》

《나도 알아요. 》

《그래, 거기서 필환이하구랑 다투던 일이 생각나니? 윤필환이하구말이다.》

《왜 생각 안나겠어요. 학원에 들어온 바로 다음날에 있는 일인걸요.》

장금이는 머리로 눈도 몸집도 류달리 크던 소년의 모습을 추억의 갈피속에서 추려냈다.

《어머니는 원쑤들의 손에 희생되고 아버지는 후퇴때 갈라진 다음 소식을 모른다는 말을 자기

한테서 얻어듣고는 동생과 둘이서 머리를 깎아 종이에 싸서 굴뚝밑에 파묻고 세번 절을 하라던 소년, 그러면 아버지가 인차 데리러 온다고 섰하던 소년, 그래 자기는 귀가 솔깃해서 장혁이와 함께 시키는대로 했다가 물러섰던 아이들이 손뼉까지 치며 웃는것을 보고서야 놀림을 받은줄 알고 거짓말을 꾸민 소년과 대판싸움을 벌렸던 일, 그러다가 후에 모두들 친해지던 일...

《바로 그 필환이가 저 벽시계를 다시 살려왔다. 한번은 고장이 났기에 폐품으루 돌려왔더니 그 필환이가 시계방에 들고 가서 새것처럼 고쳐오질 않았겠니. 그러며 하는 말이 리숙경어머니가 있는 집은 언제나 학원시절의 향취가 풍겨야 한단나.》

《도안전국에 소환돼갔지요?》

《소환될번하다가 필환이 그 애가 자기는 고향땅이나 다름없는 이고장에서 언제까지나 일하겠다구 적극 제기해서 그 제기가 관철됐단다.》

《그럼 시안전부에 그냥 있단말이지요? 그렇다면 뭘 만나볼수 있겠구만요?》

《만나보지 못할거다.》

《왜요? 출장을 갔나요?》

《그 사람은 전사했단다.》 하고 어머니는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뭐라구요?》

《간첩암해분자들과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절도사건을 하나 다루었는데 캐들어가보니 그게 간첩암해분자들과 련결된 사건이었던단다. 밑뿌리까지 들춰냈는데 놈들이 발악하는통에 그만...》

장금이는 어지간히 놀랐다. 어쩌면 자기네와 함께 자란 사람들속에서 벌써 곁을 떠난 사람이 나졌단말인가? 그런 사실을 어쩌면 석찬이나 자기는 감감히 모르고있었던말인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우리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차츰 알리자구 했지.》

《아이들이 많아요 필환동무한테?》

《팔자식 하나밖에는 없다.》

《전때 내가 여기 왔을 때 놀러 다니던 애말인가요?》장금이는 쌍꺼풀진 눈에 불이 통통하던 소년을 상기하며 이렇게 물었다.

《물론 그 애지.》

《경옥이라구 했지요?》 장금이는 잠시 기억을 더듬고나서 또 물었다.

《넌 정말 기억력두 좋구나.》

《그때 그 애하구 아주 친했뻤는걸요. 그 앤 아버지와 어머닐 따라서두 놀러 오구 혼자서도 날 찾아 곧잘 다녔어요. 그래서 우린 손잡고 거리구경도나갔구 그 애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서 비행기와 그네도 탔어요. 하루는 바다가에 같이 나갔

던 일도 있어요. 한번 만나보고싶군요. 이젠 켜졌겠지요?》

《켰지.》

《이젠 자기 어머니하고 단둘이서 지내겠군요. 그 애 어머닌 지금도 인민학교 교원인가요?》

《교원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사정이 생겨서... 자. 오늘저녁엔 이만하구 자자. 이틀이나 기차에서 치웠으니 오죽 피곤할테나.》

어머니는 잠자리 두개를 만든 다음 장금이에게는 창문쪽에 가까운 자리를 배정하고 자신은 출입문쪽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는 황황히 스위치를 켰다.

그러자 방안에는 순식간에 고요가 드리워졌다. 다만 벽시계만이 그 고요를 타고 큰소리로 잘락거렸다. 그러는 모습이 흡사 긴긴 나날 어머니가 걸어온 그 숭엄하고도 보람찬 발자취들에 대하여 말해주는듯싶었다. 그러며 샘골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언제나 느끼던 그 포근하고 아늑하고 정겨운 무엇을 온 방안에 펼쳐놓는것만 같았다.

(정말이야. 여긴 모든게 정답구 마음에 들어.)하고 장금이는 생각하였다. (나라에서 직접 보살펴주구 모두들 돌봐주기까지 하니... 게다가 때물은 고장이겠다.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여기를 훌쩍 떠난다는게 쉽진 않을거야. 하지만 무조건 모시고 떠나야 해. 석찬동무의 말마따나 사람이란 늘 그막에는 아무래도 의지할 언덕을 찾는 법인데.)

느닷없이 남편 석찬이의 목소리가 귀천을 적신다.

《이해도 다 가는데 아직도 우린 어머닐 모셔올려오지 못했소. 년로보장으로 넘은지가 벌써 2년째데 이러단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겠소.

우린 인정도 없고 덕도 모르는 얼음장같은 인간들이란말이요. 우리 두사람을 놓고봐도 그래. 당신네 오누이를 놓고봐도 그래, 우린 온 가정이 리숙경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났소. 하다면 우리가 어머닐 늘그막에라도 돌봐드리는데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소. 또 우린 둘 다 의료일군이요보면 늙은일 모셔드리는데서도 얼마나 책임자들이요. 당신이 휴가를 받고 제잡담 모시고 와야겠소. 이런 앞에서야 아무래도 녀자들이 더 꼼꼼할테니까.》

(정말 우린 얼음장같은 인간들이였어.)하고 장금이는 또 자책에 모대졌다. (극상 몇자 적는 편지조차 1년에 뉘번 날리기가 고작이였으니까. 그러게 어머니가 이사한것도 몰랐지. 뉘은 털어놓고 말씀드려야겠어. 평양으로 올라가자구.)

벽시계는 여전히 큰소리로 잘락거렸다.

아침식사가 끝난 다음 어머니는 단호하게 섰하였다.

《오래간만에 왔으니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인사나 해야지. 여긴 네가 알 사람이 한둘만두 아닐거다.》

거리는 쌀쌀하기는 했으나 바람은 거의나 없었다. 간밤에 것처럼 날씨가 사나웠다는 사실이 믿어 지지 않았다.

《너 남창석을 잊지 않았을테지?》

《참 어머니두.》

어머니의 물음에 장금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이지 어찌 남창석을 모를수 있으랴. 네모반듯한 얼굴에 몸매가 단단하던 소년, 필환이를 꼭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소년, 필환이가 자기처럼 아버지를 인차 만나게 해주마고 절을 시키며 놀려대던 날도 옆에서 같이 맞장구를 치던 소년, 그런가하면 후날에는 필환이랑 함께 연극소조에 들어 솜씨를 보이던 소년.

《바로 그 창석이한테 지금 우린 가는길이다. 도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일하다가 몇달전에 이곳 시인민위원회 교육과장으로 전근해왔단다.》

《그런것도 우린 모르고있었구만요.》

이때 장금이는 모습이 비슷한 두 인민학교 어린이가 달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것을 보았다.

《어데 가요? 우린 지금 할머니네 집에 가는길 이야요.》 큰아이쪽이 하는 말이였다.

《원 녀석두. 감기들겠다.》어머니는 소년의 풀어헤쳐진 외투앞자락의 단추들을 채워주었다. 《할머니 좀 다녀올데가 있어서.》

《엄마가 우리보구 뭘부터 할머니네 집에 좀 가 있으라구 그랬어요. 아버지 어제 출장가구 엄만 또 일이 있어 래일 외가집에 가야 한대요.》

《준일이네가 와있는걸 할머니야 제일 좋아하지.》

두 아이는 좋다고 손뼉을 치며 되돌아 달려갔다.

열길을 빠져나와 큰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장금이는 마주 달려오던 승용차 한대가 뺄하고 몇더니 검은 외투에 서류가방을 든 점잖은 사람이 내리는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어머니앞에 다가와 각뚱이 고개를 숙이고나서는 걱정어린 목청으로 묻는것이였다.

《그러잖아 저녁에 들리자면 참이었습시다. 어머니. 편찮으시다던데 이렇게 나와다녀도 일없는가요?》

하나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그옆을 스쳐 지나서는 운전칸쪽으로 스텝스텝 걸어갈 뿐이였다. 그리고는 마침 차문을 열고 인사하는 운전수를 향해 마주 인사를 보내고는 단호하게 분부하는것이였다.

《건물관리소장은 남겨두구 혼자 떠나라구. 소장하구 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네.》

운전수가 우물쭈물하다가 어쩔수 없다는듯 차를 몰아가자 어머니는 관리소장쪽으로 돌아서며 엄하게 나무랐다.

《내 병은 넘려말구 임자의 머리속에 생긴 병이나 걱정하라구. 보다싶이 난 건강하네. 그래. 사무실까지 얼마나 멀어서 승용차신세를 지나? 김희만이너더 이런 특권행세를 하라구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긴줄 아는가?》

김희만소장은 거북한 웃음을 지으며 뒤더수기를 굽적거렸다.

《인차 인수해야 할 물건들이 있어와서...》

《걸어가두 넉근 시간을 맞춰낼수 있을거네.》

《그렇게 엄하게 다뤄도 일없는 사람인가요?》

김희만소장의 모습이 사람들의 물결속에 잠겨버리자 장금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렴, 학원에 다닌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에 숙경이가 간섭할수 없단말이나? 너희들이 학원을 마친 다음 다른 학원이 여기 와서 합칠 때 편입된 사람이다. 그건 그렇구. 어머니앞인데 너 숨기지말구 솔직히 말해주렴. 너 혹시 석찬이와의 사이에 무슨 일 생긴게 아니냐?》

장금이는 어지간히 놀랐다. 어떻게 돼서 어머니는 그런 의혹을 다 품었을까? 그래서 되물었다.

《왜 어머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새 넌 잠들지 못하더구나. 신세백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는게 꿈결에 울지를 앓나, 이상한 잠꼬대를 하지 앓나, 무슨 일인지 자꾸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더구나. 얼굴엔 지금두 잔뜩 수심이 끼여있지를 앓나. 어찌다 찾아온다는 애가 미리 전보 한장 치기를 했겠나. 그래서 내 사실 너더러 바람이라두 쏘이라구 이렇게 데리구 나섰단다.》

《.....》

《정혜영이라는 3기졸업생두 꼭 작년 이맘때 너처럼 불쑥 나타나서는 제대루 자지두 못하더구나. 알고본즉 가정불화가 생긴게 아니겠니. 그래 난 그 주인되는 사람과 편지거래루 끝내 일을 호전시켰다만 네가 어쩐지 꼭 혜영이의 경우를 연상시키는구나.》

《생활인만큼 우리도 종종 다투는 일이야 있지요 뭐.》

《말하기 힘들면 나중에 듣자꾸나. 혜영이두 첨엔 좀체로 말을 앓더구나. 어쨌든 내 짐작이 맞았거들랑 넌 모든걸 나한테 말기구 우리 집에서 꼭 마음을 가라앉히려. 설마 석찬이가 이 어머니의 말까지 모르느라구 하진 앓을테지. 다 좋은 사람들이면서두 생활에서는 간혹 실수할수도 있는거다. 우리 집엔 암만 오래 있어두 일없다. 살림걱정은 조금두 하지 말아라. 나라에서 돌봐주는것만으로도 남아돌아가는 판인데 사방에서 뭘 보내오니 미처 처리를 못할 지경이다. 그래 이젠

제발 보내지말라구 싸우다 못해 내가 손을 든 정도니까.》

(더는 미룰수가 없어. 이제는 평양으로 이사가야 한다구 속심을 털어놔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장금이는 결단성있게 허두를 땀다.

《어머니하구 사실 의논할 일이 있어요.》

《가만 아무래두 애긴 미뤄야겠구나. 다 왔다. 저 3층집이 바로 시인민위원회 청사란다.》

어머니는 장금이를 2층의 복도칸으로 인도하였다. 책상앞에 혼자 앉아있던 사람이 어머니를 보자 결상을 밀치며 마중나왔다. 그 단단한 몸매며 네모반듯한 얼굴에서 장금이는 낯익은 모습을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보았다.

《자, 누굴 내가 데려왔나 알아맞춰보라구. 창석과장》 어머니가 옆으로 비켜서면서 섬기는 말이였다.

필경 방안에는 환성들이 울랐으며 결상들을 끄당기는 소리들이 난 다음에는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하였다.

《나야 애군이였으니까 그때의 일은 학급반장이였던 한장금동무앞에 지금이라도 사죄해야지요.》

창석과장의 입에서는 어느덧 이런 룡말마저 나오게끔 되었다. 그러며 그는 실지 사과하는 시늉으로 고개까지 끄덕여보였다.

《그보다 난 도내순회공연을 다닐 때 필환동무랑 창석동무랑 주인공역을 기막히게 수행하던 일을 자주 회상하군해요.》 하고 장금이는 대답하였다.

《부모들의 원수를 갚는 소년애국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을 가지고 순회공연하던 때의 일말이야요. 그때 필환동무와 창석동무가 어찌나 실감있게 역을 수행했던지 공연이 끝나자 관람석에 앉았던 인민군 전사 한분이 <동생들아-> 하고 소리치면서 무대에 뛰어들라 두 동무를 포옹한 일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두가 달라붙어 우릴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 그런 역들도 수행할수 있었지요. 그리고 석찬동무나 장금동무도 모두가 훌륭하게 배역들을 담당했었지요. 더구나 장금동무야 그때에도 얼마나 이악했던가요. 글썄,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리자 쓰러지길래 의사선생들을 불러 와보니 자그만치 열이 39도 8부였거든요. 급성폐염에 걸려가지고도 기침소리 한번 안내고 끝까지 역을 수행해냈더라말입니다.》

《결국 의사선생님들과 어머니를 또 고생시켰지요 뭐.》

《참 즐거운 학원시절이었습니다. 거기 들어와선 누구나 다 행복을 온 가슴으로 감득했으니까요. 그땐 우리 어머니도 젊으셨었는데.》

《지금은 늙었다말인가?》 어머니의 말이였다.

《쩍하면 늙었다질 않나. 앓는다구 소문들을 퍼질 않나. 자. 내가 알고싶은 문제나 하나 해명해달라구. 지난 수요일에 명동지구의 유치원들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간식을 공급받지 못한걸 과장은 알고있나?》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리숙경이가 년로보장을 받구 집에 들어 앉았다구 해서 세상과 흠담을 쌓고 지내는줄 아나?》

《역시 어머니앞에서는 꼼짝 못하겠구만요.》 장석이는 장금이쪽을 보며 어쭙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고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일군들이 일을 쓰게 못했지요. 제일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물론 이 창석이구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겁니다. 어머니.》

《일군들의 잘못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배려가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가닿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걸 부서사람들속에 잘 침투시켜야겠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행정시간이 돼오는데 떠나보지 않겠나? 오렘만에 만난 회포는 후에 또 모여서 나누기로 하자구. 장금아, 넌 오늘 시내구경이나 몸을 놓고하려무나. 자란고장이라두 이젠 전혀 도시를 알아보지 못할거다.》

알고본즉 어머니는 교육과의 주최로 시내북판에 시적인 시범단위로 될 큰 유치원이 새로 서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그 일에 참여하고있었다. 조연도 주고 어떤 일은 직접 손을 대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권유대로 장금이는 시내구경을 대충 마치고 정오무렵 집에 돌아왔다.

점심참에 집에는 서른댓에 나는 녀인이 다녀갔다. 어느 유치원의 원장이라는 그 녀인은 사업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 점심참을 리용하여 찾아왔던길이라며 햇김치가 든 큰 단지를 부엌칸에 놓고 돌아갔다.

어머니가 돌아온것은 저녁무렵이였다.

《오늘은 일찍 온다는게 병원에 들러 지체되다보니 그만.》 방안에 들어서며 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2기졸업생들중에 삼득이라고 있다. 그 사람의 처가 해산을 했는데 몸이 어쩐가 해서 병원에 들러봤더니 아주 건강하더구나. 그런데 모처럼 네가 왔다구 사람들이 찾아올것 같은데 뭘 좀 물어야지. 네가 좋아하는 수수지짐두 꾸밈히 지켜보자꾸나.》

이런 다음 어머니는 선자리에서 부엌으로 나갔다.

어머니대로 말대로 정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보매 창석이로부터 전화로 모두 기별을 받은 모양이였다. 그속엔 녀자손님들도 더러 끼여있었다. 모두 들어와 앉으니 방 하나가 가득

차보였다. 이곳에도 이렇게 학원출신이 많았던가 하는 생각에 장금이는 슬그머니 놀랐다.

처음에는 낮이 설어보이던 사람도 좀 지내느라면 그 얼굴모습이 낮익어왔으며 더구나 학원생들이라는 귀중한 회상을 통하여 누구나 다 공통적인 화제를 찾을수 있는 사이였다.

한식경이 지나자 창석과장도 나타났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상을 마주하고는 허물없이 이야기들을 벌려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약속이나 한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그림고 따뜻한 추억과 밀착된 이야기들을 엮어 놓는것이였다.

그 시발을 이룬것은 바다가에 철썩을 나갔던 때의 이야기였다.

《그때 어머니가 끓여준 섭죽이 어찌나 맛있었던지 여섯사발이나 먹고 몸을 놀릴수 없어 바위에 기대서는 자기를 다치지 말라고 아우성을 울리던 친구가 있었지요. 그바람에 그 친구한테 섭죽여섯사발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지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통에 사람들은 몸을 들썩거리며 꺾꺾 웃었다.

뒤따라 무슨 이야기인들 안나왔으랴.

장금이도 봄빛처럼 부드럽게 가슴을 덥혀주는 그러한 추억의 그림폭들을 혼자만 간직하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은은한 목청으로 말문을 터놓았다.

《학원이나 숙경어머니를 회상할 때면 난 늘 전쟁때 친부모를 잃고 동생 장혁이와 함께 먼 이모별되는 집에 잠시 얹혀살던 때의 일부러가 대비적으로 떠오르는걸 어쩔수가 없어요.》

이렇게 운을 댄 그는 말을 그만둘 사람처럼 눈을 조프리고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뒤를 이어나갔다.

이모네 집에도 아이들이 많았다. 그렇다보니 오누이는 눈치밥을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다고 결코 이모를 나무랄수는 없었다. 주인을 군대에 내보낸 몸으로 혼자 다섯이나 되는 제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판에 장금이네 오누이까지 없었으니

왜 앤들 마르지 않았으랴. 그래서 장금이는 끼니때면 동생곁에 붙어앉아 빨리 숟가락을 놓으라고 무릎을 꼬집어야 하였다.

그러나 하두 철없는 장혁이는 끝내 말썽을 일으키고야말았다. 집이 빈집에 이모네 맨 큰총각아이의 밥그릇에 남아있던 밥을 몰래 먹어버렸던것이다.

결국 일은 탄로되어 장혁이는 큰총각한테 매를 맞았을뿐더러 이모한테서 배에 거렁뱅이가 들어앉았느냐는 뉘욕까지 들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것이다.

《그날밤 나는 장혁이를 강변에 끌고나가 얼굴에 상처가 나도록 찌리나무로 때려주었어요. 그러다가 끝내 동생을 붙잡고 목놓아울었어요.》 하고 장금이는 입술을 살며시 깨물고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엔 그분들의 역성을 등에 믿고 오히려 제편에서 누님한테 매를 들던 동생이 지금은 두손을 비비면서 다시는 안그러겠노라고, 한번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느라니 자기자신이 저주로와져 이번엔 제가슴을 주먹으로 마구 갈겨댔어요. 모든건 미국놈들때문에 부모를 잃은탓인데 동생한테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바로 이런 과란곡절을 겪다가 학원에 들어온 그들 오누이였다.

한데 첫날저녁 장금이는 큰 실수를 하였다. 동생과 함께 식당에 인도된 그는 식탁에 마주 앉기 바쁘게 인차 숟가락을 놓고는 동생곁에 다가앉아 무릎을 꼬집었던것이다. 여기에서까지 미움을 받게 되면 세상에 의지가치할데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뒤더수기를 꼭 그러잡고 놓아주지를 앓았던것이다.

할때 동생의 무릎을 꼬집는 장금이의 손을 살며시 잡아 상우에 올려놓고는 도로 수저를 집어주는 손이 있었다. 리숙경어머니였다.

《다 먹어야 한다.》 하고 어머니는 말하는것이였다. 《너희들이 잘먹고 건강하고 마음껏 뛰놀아야 아버지장군님께서 기뻐하신다. 여기는 장군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행복의 요람이다.》

이렇게 행복의 요람속에 안겼으며 십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행복의 꽃동산에서 보낸 그들 오누이가 아니었던가.

그 하많은 이야기를 어찌 다 번지랴만 그래도 다문 앓을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받아안던 류달리 각근하고 뜨겁던 사랑 하나에 대해서만이라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장금이의 마음이였다.

정말이지 첫 한해동안은 자주 앓았다. 모름지기 미국놈들때문에 부모와 집을 잃고 한동안 동생까지 돌봐주며 객지에서 시달린 후환이었을것이다. 한가지 병이 나을사하면 뒤미처 다른 병이 달려들고 그 병을 물리칠라 하면 또 딴 병이 접어들고...

그러던 끝에 나중에는 디프테리아라는 악성전염병까지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는데야. 하지만 짐승들이 득실거린다는 험한 산길을 한밤중에 툭아 군소재지까지 왕복 80리를 단참에 달려 그 밤으로 주사약을 가져옴으로써 의료일군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장금이를 죽음에서 구원해준 어머니, 그후 두달동안 전염될 위험성따위는 아랑곳도 없이 하루같이 품에 안아 잠을 채워주던 어머니,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 옛말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머니...

《그래서 끝내 난 살아났어요. 결국 학원에 들어와 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을 말끔히 가시고 행복을 온 심장으로 느끼면서 자랐어요. 학원이란 그런곳이었구 우리 리숙경어머니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우릴 바로 그렇게 키워준 어머니였어요.》

장금이는 뭔가 더 말하려 하였으나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다. 여적 묵묵히 앉아 듣기만 하던 창석이라며 끝내 슬며시 말문을 열었던것이다.

《난 필환동무와 단짝이 돼서 어머니를 제일 속태운 놈이었으니까 그 속태우던 이야기는 아마 좀 해야 할가보군요.》

장금이는 숨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앉아서 물었다. 그자신 이미 잘 알고있는 이야기였지만 이 밤만은 사람들이 모여앉은 가운데 울려나오는 그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여운을 풍기며 가슴팍으로 차곡차곡 안겨드느것이였다.

부모를 잃고 류량살이를 하던 때 몸에 밴 제멋대로 지내던 나쁜 습성으로 하여 학원생활이나 집단생활에 도무지 재미를 붙이지 못하던 두 소년. 그 나쁜 습성으로 하여 남의 채마밭이나 강냉이밭을 습격하기가 일수요, 그러다 비판이나 받으면 학원을 뛰쳐나던 그들. 했던만 신통히 그 때마다 기어이 두 소년을 찾아내어 설복해서는 도로 학원으로 데려다주던 어머니.

한번은 어떤 아슬아슬한 고비마저 넘긴 두 소년 이었던가.

그날도 학원을 뛰쳐난 그들은 웬 골짜기에 외파로 서있는 집채를 만나자 무작정 거기서 밤을 나기로 작정했었다. 누구네가 림시창고로 지어 쓰던것 같은 건물안은 바깥처럼 쌀쌀했으나 피곤에 물렸던 두 소년은 그냥 쓰러지고말았다. 그러다가 추위에 못이겨 창석이쪽에서 혼자 눈을 뜬것은 금시 해살이 문썸으로 엿보아들기 시작한 이른아침이였다. 그는 작정이들을 그러모아와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적비행기의 앙칼진 날개소리가 들려온것은 바로 그 시각이였다. 아니, 어느새 벌써 그놈은 건물로 내리꽂히고있었다. 기총사격소리, 소이탄이 떨어지는 소리, 이리하여 건물에 불이 달린것은 그야말로 몇순간사이에 일어난 일이였다. 창석이는 사람살리라고 소리지르며 향방도 없이 달렸다. 그럴 때 마주 달려오는 사람 셋이 있었으니 그 맨 앞장에 선 사람이 다름아닌 리숙경어머니일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어머니는 분단위원장인 최석찬이와 학급반장인 한장금이를 데리고 막 달려오는 길이었던것이다.

하나 그들이 창고로 달려갔을 때 놈들의 쌍발기는 아직도 뱅뱅 돌며 그냥 기총소사를 해대고있었다. 인적없는 골짜기에 서있는 건물 한채를 놓고도 이토록 집요한놈들인데야. 했지만 어머니는 건물안으로 뛰어들었던것이다. 불길도 기총탄도 아이들의 고함소리도 결코 어머니를 멈춰세우지는 못하였으니 기어이 불속에서 필환이를 둘러업고 뛰어나왔던것이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멀찍이 물러나와 필환이의 몸에 달린 불부터 끄고는 필환이를 땅우에 얹어놓고 량것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게 해주던 어머니.

《끝내 이런 고비까지 겪고나서야 필환이와 난 사람이 됐지요. 그때 어머니가 하던 말씀을 난 평생 잊을수가 없지요.

<너희들이 자꾸 학원을 뛰쳐나면 사실 난 아버지장군님 앞에 면목이 없다. 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을 맡겨주시면서 부모있는 집 아이들 부럽지 않게 잘 길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학원을 뛰쳐나는거야 내 지성이 모자라서 그러는게 아니겠니?>

어머니의 말씀이었지요. 그때 난 필환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우는걸 목격했는데 그 친구와 섭쓸려다니면서도 그렇게 목놓아우는건 본 일이 없었지요.》하고 창석이는 말을 맺었다.

장금이가 말을 받았다.

《그후에 또한번 필환동무는 몹시 운적이 있었어요. 창석동무도 함께 부둥켜안고 울었구요. 어머니가 도소재지로 소환돼가던 때말이야요. 그건 벌써 우리가 이 북방도시로 옮겨온후에 있는 일이었어요. 생각나요?》

창석이쪽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보이자 장금이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닌 큰 기업소의 야간정양소 소장으로서 소환돼가게 됐는데 우리한테 그걸 꼭 비밀에 붙이고 우리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을 타서 학원을 떠나갔거든요. 그래 온 학원이 울음판에 잠기구 필환동무와 창석동무는 어머니가 간 곳을 대달라고 원장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졸랐지요. 그럴 때 어머니가 다시 학원에 되돌아와 더는 학원을 떠나지 않겠다는걸 선포하자 필환동무와 창석동무는 이번엔 기뻐서 부둥켜안고 울었지요.》

《모두 울었댔요. 장금동무도 울었구 석찬동무도 울었구...》 창석이는 두리뭉실하게 말을 맺었다. 끝내 어머니쪽에서 역정을 내였다.

《리숙경이 애긴 제발 그만하라구. 이거야 어디 낮이 간지러워 살겠나. 아무렴 어버이수령님께서 귀중한 보배덩이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신임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치구 그만큼 애를 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구 자네들을 아버지원

수님의 충직한 아들딸루 키워내는 그속에서 나자신이 누구보다두 행복하게 지냈던걸세.》

창석과장이 그 말을 받았다.

《어머니, 우리도 바로 그 애길 하고싶었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손님들은 헤어졌다. 그들을 바래주러 나온 장금이는 창석이와 함께 맨뒤에 떨어져 서 눈길을 밟으며 천천히 발자욱을 옮겼다. 언제 내리기 시작했는지 밖에서는 소리없이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던것이다.

《까놓고 말해 필환동무와 내가 애만 먹이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머리에 그렇게 서리가 내려앉지는 않았을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지요.》 나직이 외우는 창석이의 말이였다. 《한데 어머니를 애먹인 일보다 지금 와 돌이켜볼 때 훨씬 더 어머니앞에 죄지는 일이 있지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가 도소재지로 소환돼가던 때의 애길 금방 장금동무가 꺼냈지만 그때 사실 나부터도 그렇게 울지 말아야 했고 어떻게나 어머니를 도소재지로 떠나보냈어야 했지요.》

《그래요?》

《도소재지에는 그때 어머니를 무척 기다리는 분이 계셨답니다. 바로 날 대학시절에 가르쳐주던 잊지 못할 스승이지요. 전쟁전부터 어머니를 알고 있었는데 전쟁때 어머니가 가족을 잃고 혼자 남겨져자 진정으로 동정해주다가 차츰 그리워하는 사이로까지 됐지요.》

《어머니는요?》

《어머니쪽에서도 결코 무심히 지나칠수 없었던 그런분이지요. 지금까지도 선생님은 그냥 교편을 잡고계시지만 학문에서나 인격면에서나 쉽지 않은분이니까요. 그래서 두분사이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호상간의 관계를 락착짓자는 약속이 비속이 돼있었습니다. 우에서도 그런 내막을 알고있었기때문에 어머니를 조동시켰했는데 우린 자기들의 생각만 하고 어머니를 도로 데려오라고 울면서 폐질을 썼더라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우릴 잠재워놓고 떠난 일만 해도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울음판까지 벌려놨다는 기별마저 받고는 끝내 일신상의 행복에 구애될수가 없어 우리한테로 돌아왔던것이지요.》

《그럼 난 오늘밤 괜히 어머니의 가슴속에 있는 옛상처를 건드려왔구만요. 조동되던 때의 애기를 꺼내면서. 그런 깊은 내막을 모르다보니...》

《오래전 일이니까 이젠 상처라기보다 역시 하나의 추억으로 변했겠지요. 어쨌든 그때 우리가 조용히 어머니를 떠나보내기만 했다면 어머니 새로 가정을 꾸렸을거고 슬하에 친자식들도 두게 됐을겁니다. 난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

았고 또 선생님의 총애를 각별히 받았던 사람으로서 두분의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가 참으로 아쉽게 여겨 지지요. 어머니가 학원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그 선생님은 여러해나 놀러 어머니를 기다렸답니다.》

《.....》

《그때 난 이래저래 어머니앞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서 그 죄를 씻기 위해 누구보다 어머니를 잘 모셔드려야 하겠는데 그것도 뜻대로 될것 같지 않구만요. 솔직히 말하면 난 고향땅이나 똑같은 이고장에 와서 한번 일해보겠다는 욕망과 함께 여기오면 어머니를 모실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동시켜줄걸 적극 제기해 나섰더랬는데 막상 와보니 어머니를 함께 모실수는 없더군요. 정말 쉽지 않은 어머니지요. 그러기에 어머니를 년로보장으로 넘을 때 로력훈장까지 수여받는 영광을 지녔지요. 겸손하고 자기자랑을 하지 않는 어머니니까 이번 애긴 장금동무한테 하지 않았을겁니다.》

장금이가 방안에 돌아왔을 때에도 시종합병원의 의사로 일한다는 김덕훈이라는 학원3기졸업생은 어머니와 마주앉아 말다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러더니 장금이를 보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장금이더러 상을 물리라 이룬 다음 혼자 그를 바래주고 돌아온 어머니는 문가에 선채 늙은이답지 않게 웃음을 지었다.

《저사람은 늘 와서 저런 식으루 날 나무랜단다. 관절염이 도진다 하지 않나. 상처자리가 말썽을 부릴가봐 걱정된다 하며 날 보고 자꾸 글썽 집에 누워 쉬라고 졸라댄단다. 제 아니라구 내가 자기 몸에 생기는 고장두 모르구 앓았을가?》

《돌봐주면 좋지요 뭐. 나보기엔 시내에 있는 학원졸업생모두가 어머니를 돌봐주는것 같구만요.》

어머니앞에 마주 일어선 장금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어머니의 머리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을 털어드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털어드려도 불빛에 번뜩이는것은 여전히 눈송이와 좀체로 분간하기 어려운 흰서리뿐이였다.

《어머니 우리때문에 머리가 다 희였구만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겠다고 밤길을 툭아와서는 누구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던 일이란 눈에 선해요. 이상한 짐승이 눈에 불을 환히 켜고 따라오는걸 봤기때문에 그랬노라는 말쑈는 후날에야 했지요.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 머리가 몇오리씩 희여졌을게 아니냐요. 내가 자꾸 앓아서 애를 먹이지만 앓았어도 이렇게 흰서리가 덮이지는 않았을거라고. 얼마나 어머니 머리가 고왔어요. 언제나 기름을 바른것처럼 까맣게 윤기가 돌았는데.》

《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내 이젠 나이가 어떻게 되기에 하필 너희들때문이겠니. 마음은 젊어있는다 해두 세월이 흐르는데 걸모양까지 안변할수야 없지 않니?》

이러며 어머니는 장금이를 쳐다보았다. 언젠가는 허리를 굽혀 장금이를 안아주던 어머니였건만 지금은 거의 머리높이나 더 큰 장금이를 쳐다보아야 했다.

《오늘밤에 많은 동무들을 만나본게 참 기쁘구만요.》 하고 장금이는 말들 이었다. 《그러고보니 이젠 경옥이와 그 애 어머니까지 마저 만나보고 싶군요. 필환동무를 만나보지 못하는 대신 그 가족들이라도 만나본다면 썩 기쁘겠어요.》

《경옥이말이나?》 어머니는 혼자말처럼 뇌었다. 《그건 그렇구, 넌 이 나이드 어머니를 그렇게 망신시키는 법이 어디 있니? 예 와 앉거라.》 어머니는 장금이의 손목을 잡고 방한복판에 데리고 들어가 자기부터 먼저 앉으면서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어머니앞에 마주앉으며 장금이는 물었다.

《창석인 죄다 알고있더구나. 얼마전에 너희 부부에 대한 글이 잡지에 소개됐다면서? 사진까지 큼직하게 났다더구나. 그럼 그렇다구 말할노릇이지. 그런줄두 모르구 난 비 애길 잘못꺼냈다가 그만... 창석인 막 무릎을 치며 웃는게 아니겠니.》

장금이는 조용히 웃었다. .

《그러구보니 너두 이 어머닐 데리러 왔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요.》

《디들 데러가겠다는 판이니 원. 필환이두 어머니 꼭 자기가 모셔야 한다구 살아있을 때 말끝마다 외웠더랬다. 년로보장을 받는다니까 원산에서 올라질 않나, 함흥에 있는 아이들이 편지마다 독촉을 하지 않나, 창석이두 도에 있을 때부터 자기집에 올라와야 한다구 편지마다 간곡한 부탁이니 여기루 조동돼와서는 아예 자동차까지 집앞에 들이대질 않았겠니. 이사짐을 실어가겠다구. 그런걸 요행 타일러 돌려보냈다.》

《나하구 약속했던건 어떻게 할테나요? 나하군 단단히 약속했잖아요.》

《약속두 있었구 후날 너하구 같이 있으리라 속으루 늘 별러두 왔겠지. 더구나 석찬이와 네가 한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그런 욕심이 더 부쩍 늘더구나. 사실말이지 지금두 평양구경이랑 하꿍은 마음은 간절하단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참 무슨 생각에 골똘하는가싶더니 슬며시 일어나 책상앞에 다가가서는 사진 한장을 꺼내들고 돌아와 장금이앞에 내밀었다.

《넌 경옥이가 보고싶다구 그랬지?》

장금이는 사진을 받아쥐고 눈여겨보았다. 스물이 채 되지 못했을 북성스럽게 생긴 인민군녀전사가 쌍꺼풀이 진 정기도는 동실한 두눈으로 장금이를 쳐다보고있었다. 뒤통을 번져보니 다음과 같은 글발이 적혀있었다.

그리운 할머니에게
손녀 경옥이로부터

《애가 필환동무의 딸인가요?》 장금이는 고개를 들며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환이네 그 무남독녀란다. 필환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단 하나밖에 없는 피줄이지.》

장금이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녀전사는 금시 미소를 지으며 그 자그마한 입술을 놀려 이런 말을 할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장금아주머니? 참 오래간만이야요.》

《정말 컸구만요. 어느새 인민군대에 다 들어가구. 아주 예쁜 처녀가 됐는걸요.》 사진속의 녀전사와 어머니를 번갈아보며 장금이는 섬겼다.

《예쁘구말구.》 어머니는 자랑겹게 대답하였다.

《난 이 집에서 그 애를 기다리구있단다.》

《그건 무슨 말씀이나요, 어머니?》

《그앤 아버지두 일찍 여의었다만 어머니 그보다 더 일찍 여의었다. 교원이다보니 학생아이들을 데리구 산에 원죽을 갔었는데 장난군들의 부주의로 산불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걸 끄다가 장렬하게 희생됐단다. 그런지 1년만에 이번엔 아버지마저 잃지 않았겠니. 그후 두달이 지나 경옥인 중학교를 졸업하구 인차 인민군대루 떠났단다. 대학에 가라는 권고들이 많았지만 우선 총을 잡구 조국보위초소에 서는것이 나라를 지켜싸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는 길이라면서 기어이 인민군때에 입대하더구나. 그래. 난 그애 부모를 대신해서 그애가 나서자란 이 고향땅에서 그 애를 기다려주기루 맘먹었다.》

《.....》

《아무렴, 우리 경옥이가 어버이수령님의 아들딸답게 생을 마친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는데 나두 할머니로서 그애한테 힘을 보태줘야 할게 아니겠니. 비록 부모는 세상을 떴지만 자기에게두 고향에 돌아가면 언제나 발길을 들여놓을수있는 할머니네 집이 있구 부모처럼 반겨맞아줄 할머니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만큼 군무생활에서 힘이 솟을게 아니겠니.》

《.....》

《그리구 부모를 여윈 슬픔두 잊을수 있을거구. 너희들의 아들딸들이 부모와 함께 구김살없이 지

내만큼 우리 경옥이두 부모를 대신해줄만한 할머니의 정을 받으면 될것 아니겠니. 나머지 평양으로 훌 떠나버리면 후날 배낭을 메구 돌아올 경옥이의 마음이 어떻겠니. 그래 난 이 집에서 그애를 기다려주기루 했다. 부모대신 시집까지두 다보내줄 생각이다. 내가 아니라해두 글썽 나라에서 각근하게 돌봐줄거구 시집두 다 가게 되겠지만 난 나대루 할머니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할게 아니겠니. 더구나 그 앤 부모를 여의구 군대에 입대하는 날까지 이 집에서 나하구 같이 있으면서 나한테 완전히 정을 붙였단다.》

《어머닌 그럼...》

장금이는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으나 목이 막혀 말을 할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번에 보니 넌 울음이 몹시 헤쳐졌더구나. 워낙 넌 성미가 이악해놔서 어릴적때두 조련해서야 울었느냐. 사내아이들이 머리채를 끄당겨두 울대신에 끝까지 해본 네가 아니냐. 그렇던 애가 글썽 찍하면 눈물을 보이니. 울지 말아라. 울면 얘기할 재미가 있니?》

《울지 않아요, 어머니.》

《꼭 어린애처럼 울면서... 필환이두 외아들이었는데 그 애자신 꼭 자식 하나를 남겨놓고 갔구나.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그 피줄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했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게 하려면 나두 할머니로서 공을 들여야 할것 같다. 그리구 여기서 나한테 다른 일거리들두 많단다. 오늘밤에두 학원출신들이 다녀갔다면 난 아직두 그 사람들이나 또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줄 일들이 적잖더구나.》

장금이는 뭐라고 웅기하고싶었으나 역시 목이 잠겨 말을 할수가 없었다.

《지금쯤 우리 경옥인 보초근무를 서고있을지도 모르지. 아이가 순하구 내성적인 반면에 제몹을 건사하는데는 관심이 덜한데 덧옷을 꺼입지 않아 감기라두 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말이였다.

끝내 장금이는 말을 받았다.

《일없을거야요, 어머니. 이렇게 눈이 푸실푸실내릴 땐 추위가 일지 않아요. 오히려 푸근한 법이야요.》

《하긴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쯤 보초를 켜으면 그 애는 이 눈을 맞으면서 모름지기 고향생각과 함께 이 할머니의 생각을 꼭 할거야. 가만. 이제

또 잘 시간이 된것 같구나. 더구나 넌 엿저녁에 자지 못했는데.》

불을 끈 방안에는 순식간에 고요가 드리워졌다. 벽시계만이 또다시 그 고요를 타고 큰소리로 짹 짹 거릴뿐. 그러며 긴긴 나날 어머니가 걸어온 그 숭엄하고도 보람찬, 때로 힘겹기는 했어도 행복으로 아로새겨진 발자취들에 대하여 알려주는듯 싶었다.

장금이는 어머니쪽으로 돌아누웠다. 눈때문인지 방안은 환하였다. 그래서 반듯하게 누워 가슴을 들먹이며 고르게 숨을 쉬는 어머니의 모습이 손에 잡힐것처럼 안겨왔다. 그 모습을 대하느라니 또 기억의 갈피속에서 오래전의 화폭이 조용히 솟아올랐다.

원썬들의 폭격으로 온 가족을 잃은 녀인, 젓꼭지의 입자였던 사랑하는 아들하고마저 영영 헤어졌으니... 하면서도 슬픔을 힘으로, 원썬놈들에 대한 증오로 번져놓고 아들에게 기울이던 그사랑모두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옮겨놓던 리숙경어머니가 아니었던가. 그것으로 하여 오늘은 나라로부터 크나큰 배려를 받으며 학원을 마친 사람들 아니, 못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어머니. 그런데 오늘도 의연히 그날의 그 마음으로 학원을 다니던 사람들과 그 자제들, 아니, 어찌 또 그뿐이라,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를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을 다하고있지 않는가. 그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속에서 영원한 삶을 찾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일진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또 외로울수도 없는것이다.

장금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일어나 조용히 어머니곁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아쥐었다. 순간 어머니는 얼른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왜 그러니? 어디 말째서 그러니?》

이러며 어머니는 장금이의 머리를 짚어보려고들었다.

《아니야요, 어머니.》 장금이는 바빠 섬겼다. 《그저 어머니곁에 와보고싶어서요.》

《너 오늘밤에두 또 잠들기가 힘들지 않겠니? 자지 못하면 무릎을 베우구 자장가를 불러주련다. 어렸을 때처럼.》

《아니, 이젠 자겠어요.》

장금이는 자리에 돌아와 누웠다. 더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작전의 시작점

김정민

땀과 먼지에 찌든 군복과 검실검실하게 탄 얼굴들을 기름칠한 포신처럼 번쩍이며 전투원들은 한시바빠 락동강을 보려고 걸음걸음 서둘렀다.

전투원들과 함께 오후 반나절을 행군하며 구수한 땅냄새로 폐장을 가져낸 사단장 박경수는 락동강을 백리가량 앞두고 《7》시에 옮겨온 사단 참모부로 왔다. 그는 곧 필요한 정황을 보고받으며 자기의 결심을 확정하기 시작했다.

참모장이 어제 부상을 입어 후송되고보니 작전과장 중좌 정진영이 참모장임무도 겸하여 모든 정황을 종합된대로 보고하고있었다.

사단장은 전쟁이 일어난 뒤에 처음으로 차례진 양가죽으로 된 안락의자를 밀어놓고 나무의자에 앉으며 작전과장을 나무랐다.

《이런 의자 왜 참모부에 끌어들었소? 이건 어느 <부르조아>가 앉았던거란말이요!》

사단참모부가 든 이 집은 세멘트로 지은 2층집으로서 마당에 나뭇구멍은 간판을 보아 남조선피뢰통치기관의 지방관청건물임이 분명하였다. 널찍한 방, 한귀에는 철게가 놓여있고 옷칠을 한 락수책상이 앞쪽에 가로놓여있는데 그 앞으로 긴 책상이 어마어마하게 누워있었다.

몸이 갱끗한 작전과장은 놀란듯 얼굴을 들었다가 그런 핀잔에는 귀가 없다는듯 지도를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정황보고를 계속했다

사단장도 대답을 바라지 않았던 모양 큰 체구를 탁상우의 지도에 실으며 피로한듯 왼손으로 턱을 고이고 말없이 지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선이 굵은 구리빛얼굴이며 턱을 고인 악마디진 꺼먼 주먹이며 좀 굵고 넓직한 등, 갑사맹기같이 굵고 빨간 줄이 돌썩이나 흘러내린 끈색승마복에 엄청나게 큰 별을 엮은 누런 건장으로 장식한 저고리를 몸에 맞게 차려입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텅텅하여 어느 공장 노동자의 기름냄새를 풍기는듯했다.

조성된 정황을 예리하게 분석할줄 아는 명민한 두뇌를 가진 젊은 작전과장은 적정을 다 설명하고 얼핏 사단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능청스런 웃음을 담고있는 사단장의 눈길에서 그것은 나도 다 알고있다고 하는것 같은 표정을 읽고는 주눅이 들었다. 그래서 작전과장은 사단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뛰어넘어 정황에 대처한 작전적대책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제기하였다.

《사단은 지금의 정황에서 여기...》

과장은 허리를 구부리고 사단의 진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15키로미터 가량되는 안도리구역에 하얀 손가락으로 성급히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을 이었다.

《안도리일대에서 적사단에비대를 포위소멸할수 있다고 봅니다. 사단의 공격속도와 적의 저항가능성을 보아 래일 즉 16일 저녁 18시경이면 사단은 이 계선에 진출할수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적의 퇴로를 차단할 력량이 나오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2제대로 장악하게 될 2련대에서 1개중대라도 빼내어 오늘 밤중 안도리계선으로 진출시키자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때까지 지도를 더듬고있던 사단장의 눈길이 과장의 얼굴에 옮겨갔다. 그 기름한 눈에는 능청스런 웃음이 더욱 짙게 깔리는것이였다.

《2련대는 지금 적을 포위소멸하고있는중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개 련대의 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2련대에선 안되겠소... 안돼, 재미없어!》

작전과장의 살결이 맑은 얼굴에 송구스런 빛이 떠올랐다. 하나 그는 고집스레 말했다.

《다른 력량은 없습니다. 1제대련대들은 다칠 형편이 못됩니다!》

사단장은 일어서서 땅거미가 기여드는 창가로 다가간다. 한시간전에 전투가 휩쓸고 지나간 거리로 사단포들이 먼지를 일구며 덮쳐들었다. 통신병들이 권선기를 지고 길가를 따라 걸다가 지나가는 포차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고는 무엇이라고 소리치며 웃어댔다. 사단참모부뒤쪽에서 노래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저 노래를 누가 부르고있소?》

《최고사령부의 예비련대에서 어제 온 보충병들입니다. 대렬과장동무가 저녁에 그들을 련대들에 보충하려고 하였는데 중대장이 현재대로 배속시켜달라고 완강하게 버티고있다가에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그래 일이 제대로 됐소? 설복되었소?》

《중대장이란 헛내기 군관은 자유주의분자입니다.》

《어째서?》

사단장은 흥미있다는듯 재촉했다.

《자기는 전선에 나와서 중대를 각을 떠서 뿌려 던지자고 전투에 준비시킨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는걸 놀러놓았습니다! 참모부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사재판에 넘긴다고 했지요!》

《그 친구 떨었던모양이군. 그럴바엔 애초에 입을 다물고있을게지…》

《아닙니다.》 과장은 중대장과 이야기할 때 받은 불쾌한 인상이 떠올라 미간을 찌프렸다.

《그 동문 명령으로 내리누르려 하지 말라면서 규률규정이 부여한 권리로 이 사실을 사단장동지에게 청원하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장동진 그런따위 청원을 듣고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고 래일아침에 중대를 해산시킨다고 선포했습니다!》

《응… 그 친구 피짜요! 가만, 우리 머리도 쉬울겸 산보나 좀 하지 않겠소?》

과장은 어리둥절해지며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사단장동지, 좀 쉬십시오. 전…》

《왜 나만 쉬겠소? 동무도 어제오늘 한잠도 못 잤지… 맑은 정신에서 좋은 전술이 떠오른다구들 하는데 좀 산보를 해서 손해질것은 없소!》

《전 우회대문제를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나하구 함께 가지요. 저 친구들이 노렐 잘 부르오. 시인들은 술술 부는 바람결이나 살랑대는 나무잎이라든가, 풀잎에서 반짝이는 이슬을 목격하면 그 어떤 이른바 시적환상이 찾아든다고들 하는데 우리 싸움군들이야 그런걸 바라지 않지만 산보를 좀 하는사이에 그 어떤 <작전적환상>이 떠오를지 알겠소?》

전사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서른여섯살의 젊은 사단장은 전투원들과 함께 있는것은 만시름을 잊어버리는 즐거운 휴식으로 여기는것이였다.

과장은 마지못해 따라나섰다.

둘은 정문보초를 지나 노래소리가 울려오는 산기슭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거리는 어둡속에서 설레이었다. 별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 낮추 드리워 숨가쁜 더위를 압박하고있었으나 자동차소리, 명랑한 웃음소리, 행군대오의 발걸음소리들은 어찌지 못하였다.

산기슭에는 적의 폭격으로 반나마 마사진 별장같은 양옥집이 자리잡고있었다.

《우리 저 동무들이 노래하는걸 방해하지 말지요…》 하고 사단장이 속삭이듯 말했다.

둘은 발소리를 죽이고 정원의 어둡속으로 스며들었다. 전투원들은 마당가에 쌓여있는 통나무며 무슨 껍질같은것들에 앉아 노래에 취해있고 벽체가 떨어져나간 본채 웃간창문가에는 한 전사가 초불아래에서 뻘뻘히 짙은 머리를 휘저으며 풍금을 타있었다.

《…………》

아, 장군님 명령 받들어

우리는 싸움으로 나아가리

내 나서자란 조국이여

전사의 앞길을 축복하여라

네 품에서 행복을 누린 우리들

총잡고 전선으로 떠나노라.》

노래라든가 서정이라든가 하는것 보다는 작전지도의 등고선이나 갖가지 색깔의 부호, 생활의 정리된 선이나 절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과장의 눈은 풍금우에 놓여있는 초불에 가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 중대가 후방에서 안온하게 생활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있다는 생각으로 이지러졌다.

과장은 충고를 한마디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한걸음 나섰다.

하나 벌써 사단장은 과장의 심중을 알아본듯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걸음을 멈추고 입속말로 말했다.

《노래가 아주 좋소! 처음 듣는 노래요.》

전투원들은 정서와 랑만을 담아 노래를 부르느라 자기들의 뒤로 다가오는 사단장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

아, 장군님 명령 받들어

우리는 싸움으로 나아가리

…………》

노래의 후렴이 자못 장중하게 울려가고 마지막 선율이 꼬리를 끌며 여운을 질게 남기는 그 순간 어디선가 《셋! 누구얏!》 하는 되알진 소리가 덮쳐들었다,

정원나무그늘밑에서 근무를 서던 보초병이 소리없이 새여든 《침범자》들을 예리하게 감시하다가 급기야 소리쳤던것이다.

작전과장이 미처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보는데 사단장이 대군을 거느린 장령답게 큰소리로 웃어댔다.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큰소리로 웃지 않는 사단장이고 보면 지금 그의 기분이 대단히 유쾌하다는것을 말해주었다.

《하하… 하하… 서둘어, 서둘어… 발견됐단 말이야… 자, 동무들! 인사를 합시다. 내가 동무네 사단장이요!》

사단장이 이렇게 소탈하게 말하며 다가가자 전사들이 헤덤비며 일어나 웃매무시를 바로잡는데 군인들속에서 보통키에 얼굴이 동실한 군관이 황황히 나와서서는 <중대 차렷!> 하고 소리쳤다.

《쉬엿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쉬엿! 중대장 김국학!》

사단장은 중대장의 손을 잡으며 그 잘 생긴, 그러면서도 어딘가에 담찬 성미가 엿보이는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꼬리가 약간 처진 눈에서는 만만치 않은 기상이 초불밑에 번뜩이였다. 사단장을 처음으로 만난 중대장에게 여러가지 물어볼 일이 있을수 있었으나 어찌선지 전투원들이 부른 노래에 대해 커다란 흥미를 나타내었다.

《이자 부른 노래가 참 좋소. 처음 듣는 노랜데 누가 지은 노래요?》

중대장이 뜻밖의 질문이여선지 쭈뼛거리자 곁에 있던 젊은 병사가 쟁쟁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사단장동지, 제가 말할수 있습니까? 중대장동지가 작사하고 신의주 밝은중학교 음악교원이었던 <작곡가> 전사 리형우동무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노래제목은 <우리는 싸움으로 나아가리>입니다. 이상!》

《훌륭하오 아주 훌륭해... 전부터 가사나 시를 썼었소?》

중대장은 몹시 거북해하며 변명처럼 대답했다.

《아닙니다. 특무장을 할 때 중대오락회를 지휘하던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다 지었소?》

《전선에 나올 중대동무들에게 신심과 랑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런 노릇을 좀 했습니다!》

사단장은 턱을 들며 지긋은 웃음이 담긴 엷비듬한 시선으로 중대장을 이윽히 들여다보기만 했다. 이젠 그가 중대장에게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더없는 만족을 느끼고있다는 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있던 과장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사단장은 마디가 불거지고 보병삽처럼 큰 손으로 중대장의 어깨를 짊 잡았다.

《노래를 부르는건 좋아! 더우기 제힘으로 지어 부르는건 더 좋아, 우리도 항일무장투쟁때 그렇게 했소. 그래서 인민들은 우리 부대를 보구 <대학생부대>라구까지 했다니까. 이제 전투에서 단련되면 호랑이중대로 될거요!》

과장은 한마디 툇겨주지 않을수 없었다.

《사단장동지, 이 중대는 래일아침 해체하여 련대들에 보충해줄 중대입니다!》

과장의 말에 덴겁한 중대장은 얼굴이 벌개져서 과장을 쏘아보고는 사단장에게 간절한 눈길을 돌렸다.

사단장은 과장의 말은 들은체도 않고 물었다.

《동무도 아직 전투에 참가해보지 못했었소?》

사단장의 말에는 물론 아무런 모욕적색채가 없었으나 중대장의 얼굴은 더욱 질게 붉어졌다. 그는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황급히 말했다.

《여기까지 행군해오는 과정에 전투를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중대장은 구원이라도 바라는데듯 과장에게 간절한 시선을 보냈다가 말을 이었다.

《두번은 대공전투이고 한번은 적패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사단장이 감심했다.

이때 그 어떤 신기한 보물이라도 감상하듯 황홀한 눈빛으로 사단장을 올려다보고있던 그 젊은 병사가 끼어들었다.

《사단장동지, 그때 중대장동지는 <적기 한대를 격상시키고 패잔병 열댓놈 잡은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전투준비를 하고나온 우리 중대가 그 어떤 전투도 감당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대는 중대장동지의 명령에 따라 그야말로 한사람같이 행동했습니다. 이상!》

과장은 전사의 말은 귀등으로 들으며 중대장의 물이 들어 중대전투원들이 존엄성이 없다고 나무라고있었다.

젊은 병사는 자기의 말을 끝내고 중대장을 쳐다보다가 흠칠 놀라며 뒤로 물리서더니 누군가의 등뒤에 숨어버렸다. 중대장이 눈을 부릅뜨고 전사를 보며 턱을 들었다놓았던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칭얼거리는 아이를 눈짓으로 나무라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흡사한것이였다.

중대장을 바라보는 사단장의 얼굴에는 그지없이 부드러운 자애와 흡족감이 넘쳐났다.

사단장은 천천히 걸음은 옮기며 전투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여겨보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동무들은 패잔병들하고 싸우는게 아니라 제 정신이 있는 진짜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데 있소!》

사단장은 말을 이으며 좀 어리숙해보이는 한 전사앞에 멈춰섰다.

《전사 최덕최!》

《한가지 물어볼까? 동무! 소제대가 없는데 약통실에서 탄피가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오? 전투마당에서말ियो!》

《대답하겠습니다. 그건 첫째로...첫째로 길다란 찌리나무를 꺾어서 총신감으로 내밀어서 뿔습니다 둘째로...》

전사는 곁에 서있는 전사를 흘끗 쳐다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이 친구 소제대를 달래가지구 뿔아도 됩니다!》

《틀렸소! 틀렸단말ियो! 누가 알겠으면 대답해보시오!》

모두 시무룩 웃으며 사단장을 올려다 보기만 할뿐 통 말이 없다.

《어디, 동무가 대답해보오!》

사단장은 최덕최의 《친구》를 지적했다.

그러자 최덕최의 《친구》는 어쭙은 기색으로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런건 우리 중대동무들이 다 아는건데 최덕최동무가 다시 대답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 말은 사단장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모양이다. 그의 길고 넓은 얼굴 한가득 사랑스러움과 대견스러움이 넘치였다. 그는 그 《친구》의 얼굴을 자기의 투박하고 큰 손으로 다독여주기까지 했다.

《동무는 참으로 훌륭한 대답을 했소!》
《사단장동지!》하고 최덕쇠가 의기양양해서 불렀다.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에 있는 동지의 소제대를 빌려 뵙으면 됩니다!》

《옳소! 바로 그거란말이요. 이 동무의 <친구>가 동무를 생각한것처럼 전투마당에서 언제나 자기결에 전우가 있다는걸 잊으면 안되오!》

《그렇습니다. 중대장동지도 귀에 멍이 들도록 말해주었는데 그만 까먹었었습니다…》하고 최덕쇠는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듯이 중대장에게로 눈길을 돌렸는데 이때 중대장은 먼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단장도 만족한 눈빛으로 중대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전투마당에선 그게 중요해… 바로 그게 중요한말이요! 불비속을 헤치며 돌격해나갈 때 전우들과 함께 나가고있다고 생각해야 하오. 그게 중요하지…》

사단장이 자기의 말을 채 마치지 못했는데 갑자기 포탄까지 두드리는 소리가 정원쪽에서 들려오고 뒤미처 《항공! 항공!》하는 소리가 다급하게 밀려왔다.

그러자 희미하게 비치던 초불은 흑-부는 소리와 함께 꺼지고 어둡고 누기찬 하늘이 짙 내려앉아 있었다.

적폭격기들이 거리변두리상공으로 풍덩이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자 중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단장동지, 우리 중대를 위해 노래를 하나 선물해주십시오. 이건 사단장동지가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였다고 해서 값을 받자는건 아닙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부르던 노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자 온 중대가 기다렸다는듯이 웨쳐댔다.

《사단장동지! 우리 중대의 모든 전투원들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한마디만 불러주십시오!》

작전과장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떨떨해질 지경이었다. 전투원들속에 끼우면 시간가는줄 모르는 사단장이 이 철딱서니 없는 전사들의 메질에 걸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작전문제를 잊지 않을까 우려되었던것이다. 과장은 엄한 소리로 중대장을 불렀다.

《중대장동무, 사단장동진 지금 시간이 없소! 그리고 내가 보기엔 중대엔 질서가 잘 서있는것 같지 않소. 존엄성도 없구…》

과장의 이 말은 중대란 커다란 몸집에 끼얹은 찬물처럼 전투원들의 흥분을 싹 가라앉혀버렸다.

끝없는 자책에 휩싸인 눈들이 용서를 빌듯 사단장의 얼굴에 쏘리었다.

《하하하…》

뜻밖에 폭발한 사단장의 웃음소리는 무엇인가 큰 실수를 한것 같아 찢찢매는 전선에 처음 나온 전투원들을 더욱 웅색한 처지에 몰아넣었다.

《동무들은 내가 노랫 부르지 않을가봐 걱정하는것 같은데 천만에… 전선에 나온 동무들에게 내가 선물할수 있는건 지금 노래밖에 없소. 잘 부를줄은 몰라도 한마디 부르지요!》

사단장이 이렇게 말하자 얼었던 시내물이 풀린듯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중대장이 그 호기스럽던 얼굴에 어쭙은 미소를 담으며 떠들떠들 말했다.

《사단장동지, 용서하십시오. 이젠 가시여 작전계획을 세우십시오. 노래를 들은것보다 더 기쁩니다. 저희들이 그만…》

《무슨 소릴 하오? 노래란건 부르고싶어 부르는거요. 저기 가서 앉아 듣기나 하오.》

류창하지는 못하나 소박한 저음이 전투원들의 가슴에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승엄하고도 뜨거운 서정을 불러일으키며 전쟁으로 하여 질은 화약냄새가 깔린 어둠으로 울려갔다. 해별에 타고 조갈로 하여 튼 입술사이로 나는 쇠소리가 섞인 거친 목소리였으나 오히려 그 소리속에 노래의 절절한 서정이 진하게 채색되는 상싶었다.

노래는 아직 전투원들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향가》였다.

노래는 끝났으나 이윽도록 모두 까딱않고 앉아 있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즐겨부르시던 노래요. 우린 이 노래 부르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고향을 그려보았고 기어이 조국을 찾으리라 다짐하곤했소! 우리는 조국을 찾았소. 그런데 오늘 원썩 미제놈들은 우리 조국에 피비린 마수를 뽐냈소.》

여기에서 문득 말을 멈춘 사단장은 고개를 돌려 중대장을 보며 물었다.

《중대장동무, 동무의 고향은 어디요?》

《송림입니다.》

《좋은곳이구만, 그래, 집엔 누가 계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중대장동지의 어머니는 폭격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공장을 보위하다가 그만…》

《알겠소.》

한 전사의 말을 들으며 사단장은 머리를 들어 검푸른 밤하늘을 한참이나 묵묵히 바라보았다.

《철천지원썩 미제는 이렇게 우리의 인민들을 도란속에 몰아넣었고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불태우고 있소…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바로 우리의 이 두주먹으로 강도미제를 여지없이 짓부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을 철통같이 지켜냅시다.》

사단장의 두눈에선 화광이 번뜩이었고 쇠소리나는 그의 목소리는 어둠에 싸인 대지를 쨍쨍 울리면서 멀리 퍼져갔다.

《사단장동지, 우리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보내 주십시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수의 탄알을 원썩 미제의 가슴팍에 퍼붓게 해주십시오!》

중대장의 폐부에서 울려나오는듯한 청원에 한결같이 합류되어 울리는 전사들의 불같은 웨침은 대해의 파도마냥 사단장의 가슴에 거세찬 파문을 일으켰다.

《중소, 싸워봅시다.》

《옳!》

바야흐로 폭풍우를 맞받아나가는 해연인양 전사들은 격정으로 들끓었다.

청춘의 기백이 넘쳐흐르는 중대장과 전사들을 귀여운 자식을 바라보듯 애정에 넘쳐나는 그윽한 눈매로 지켜보던 사단장의 뇌리에는 20년전 장군님의 품에 안겨 전투의 첫 세례를 받던 그날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잠시후 사단장은 깊은 감회에서 깨어난듯 단호한 결심이 비낀 어조로 말하였다.

《중대를 좀 채우고 동무만 사단참모부로 오시오.》

사단참모부로 돌아온 사단장은 아까 자신이 부르조아놈들이 앓던것을 사단참모부에 끌어들었다고 나무라던 의자에 털썩 엉덩이를 내리쥘으며 기분이 좋아 등받이에 기댔다.

《됐소. 이제 다 풀렸소. 그렇지 않소? 우리 사단에는 <예비대>가 많소! 김국학동무의 중대를 우회대로 적후에 들여보내지요!》

과장은 가슴속에 경련과 같은 그 무엇이 지나가는것을 느꼈다. 그의 놀라움을 컸다. 언제나 빈틈없는 결심으로 참모부일군들을 놀래우곤하던 사단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대답하고도 결단성이 있고 주도세밀한 사단장의 그 지휘관적 품성에도 이런 빈구석이 있었던말인가? 사단장의 의도대로 김국학중대를 적후에 들여보냈다가는 사단작전의 운명도 중대자체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아무런 기약도 할수 없는것이다.

《사단장동지!》 하고 과장은 자기의 의견을 제기하려고 자못 심중하게 불렀으나 다음말이 인차 나오지 않았다.

사단장은 눈두덩이 붓고하고 기름한 눈에 흐뭇한 빛을 담은채 작전과장을 쳐다보았다.

《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아직 전투에도 참가해보지 못한 보충중대에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대란 한달전에 모아놓고 훈련시켜 내보낸 신병들의 집단입니다. 전투경험이 없는것은 물론이고…》

과장은 자기의 심중한 제의에 심사숙고할 대신에 씨물씨물 웃기만 하는 사단장의 태도에 어느정도 모욕감을 느끼며 말을 뚝 끊었다.

《듣고있소. 계속하오.》 사단장이 표정을 바꾸지 않으면서 재촉했다.

《이것은 공격전선의 어느 째에 끼워넣는것이 아니라 적후중심깊이 들여보내는것입니다. 중대는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심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작전과장 정진영은 중대에 대한 평가를 요약된 표현으로 결론내리고 사단장의 말을 기다렸다.

《난 또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했는데 그때문이었소? 가만 담배가 있소?》

사단장은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이렇게 물으며 일어나더니 자기가 앓아있던 의자를 어보았다.

《<부르조아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이놈의 안락의자에서 났군…》

사단장은 의자를 아예 뒤로 밀어제끼고 나무결상에 비껴 앉으며 과장이 책상우에 내놓은 담배갑을 집어들었다.

《과장동무, 나도 그 모든걸 생각해보았소. 동무의 그 걱정은 다 공연한거야… 난 그 중대가 아주 마음에 드오!》

과장은 어정쩡해서 사단장을 바라보다가 작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느끼며 성급히 입을 열었다.

《사단장동지, 그 중대는 아직 전쟁을 모릅니다. 전선으로 나오는길에 적폐잔병들과 전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거야 누구도 전투라고 불러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중대가 노래를 좀 부르는것 같은데 노래를 가지고야 싸울수 없지요!》

《허허, 신랄한 분석이요! 아주 그럴듯하오. 하지만 난 그 중대에서 불타는 전투정신을 보았소! 중대를 보면 중대장을 알수 있고 중대장을 보면 중대를 알수 있는거요!》

사단장이 말을 이으려고 하는 그때 과장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그 한 생각에 실패되리라느낀걸 알면서도 들이댔다.

《사단장동지, 바로 그 중대장이 문제입니다. 그가 불을 켜놓고 중대오락회를 했다가나 상관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거나 하는것은 다 무시할수 있으나… 그 동문 아직 이모저모로 보아 어린 지휘관이니깐요. 그렇지만 명령지시를 흥청하는것과 같은 무정부주의적경향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은 스쳐보낼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전투임무를 줄 때는말입니다.》

《하하하하… 이건 복잡한 문제요. 이것을 풀수 있는 공식은 없소. 싸우는 전사들은 기계가 아니라 정신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요!》

과장은 어리둥절했다. 그는 얼마전에 사단장이 명령을 어긴 한 구분대장을 강직처벌하면서 한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조국은 엄정하오. 동무의 자유주의는 실패의 원인이었소. 전쟁에서 자유주의는 무서운거요. 가서 랑정하게 자기를 검토해보고 고치시오.》

이런 사단장이 전투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참모부의 지시에 대하여 당치않은 구실을 붙이면서 그 집행을 거절하고있는 중대장에게 사단의 작전과 관련한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 하고있는 것이다.

《과장동무, 김국학중대가 탐탁치 못하오?》

《전, 아무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장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때 출입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바로 그 화재의 주인공이 들어섰다. 탁상우에 켜놓은 초불이 김국학이가 힘있게 다가서는바람에 곤두박질을 하다가 가까스로 몸을 취세우며 춤추듯이 흐느적이었다. 맵시있고 절도있는 국학의 보고에 과장은 눈을 찌프렸고 사단장은 흐뭇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됐소, 됐소. 국학동무, 내가 왜 동물 불렀는지 알겠소?》

중대장 김국학은 사뭇 정색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고있습니다. 우리 중대에 전투임무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소. 동문 알아맞혔소!》 하고 사단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중대장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의 한쪽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전선에 처음 나온 중대에... 안됐지만 어려운 임무를 주자고 하오. 어려운 임무요! 일없겠소?》

다소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중대장은 사단장의 거만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전, 전 한번도 전쟁이 쉬운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시다. 명령을 주십시오!》

《그럼, 이리로 나오오!》

사단장은 흐뭇한 얼굴이 되어 과장을 일별하고는 지도앞으로 갔다.

작전과장 정진영은 사단장을 도우려고 제기한 자기의 의견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한것이 섭섭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런 자기의 기분을 애써 누르고 지도앞에서 전투임무를 주는 사단장과 중대장을 처음보는 사람들처럼 번갈아 쳐다보고있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중대장의 목소리를 귀결에 듣는 과장의 머리에는 얼핏 저 친구를 래일저녁 다시 만나볼수 있게 될가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국학동무,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오!》

사단장은 임무를 다 주고는 허리를 펴며 중대장의 얼굴을 뵈히 들여다보았다.

《지도를 좀 볼수 있습니까?》

《보오!》

중대장은 초불빛에 가까스로 드러난 등고선을 비롯한 다양한 선이며 점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특징적인 지물들과 중대가 행동하게 될 경로를 눈에 익히려는듯 얼굴을 돌고 한참이나 시

선을 어둠이 막아서고있는 창문쪽에 보낸채 말없이 서있었다.

《이젠 됐습시다. 그런데...》

김국학의 얼굴에 어렸던 긴장한 빛이 느슨히 풀리며 정다운 기색이 피어올랐다.

《뭐요? 이야기하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떠나도 좋습니까?》

《말하라는데두...》

《전투가 끝난 다음에 말하게 해주십시오!》

《중소! 그렇게 하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단장은 생각에 잠겨 한손을 등에 댄채 창문가로 다가섰다. 저멀리 전선에 울려오는 포성에 창문유리가 부르르 떨군했다.

작전과장의 가슴에 련민의 정과 같은 그 무엇이 짜릿하게 젖어들었다. 저 보충중대장은 자기네 중대에 것처럼 어려운 임무를 주는것을 삼가해달라고 말하려다가 단념해버린것이나 아닐가? 젠장,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진작 말할것이지... 이윽고 사단장은 돌아섰다.

《동무는 적후에 들어가서 스스로 모든것을 결심하고 지휘해야 할거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내가 동무에게 더 줄것이란 탄약밖에 없소. 1.5천 투정량을 가지고 떠나오!》

《알았습니다!》

중대는 그날밤 2시반에 안도리로 향해 떠났다.

×

사단지휘소는 새벽 3시경이 되어서야 조용해졌다. 직일군관들을 내놓고 나머지성원들은 전화기와 문건들을 안고 씨름하기에 지쳐버려선지 모두 이구석 저구석에서 활개를 뻗고 잠들어버렸다. 그러나 작전과장은 잠이 오지 않았다. 참모부의 한쪽 창문가에 기대놓은 그 양가죽의자에 길게 앉아 새날의 전투를 위해 눈을 좀 붙이려고 애써보지만 적후로 들어간 김국학중대에 대한 생각이 잠을 쫓아버리곤했다. 전쟁이 일어나기전 3년동안에 쌓아올린 군사지식과 두달동안 전투마당에서 보낸 어려운 나날들의 체험에 의하여 마음속에 굳어진 신념은 김국학중대를 적후로 보낸 사단장의 결심앞에서 크게 뒤흔들리었다. 지금까지 자기의 신념과 판단은 싸움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단의 작전에서 빛을 내었다. 사단장은 참모장이 있어도 작전과장의 존재를 잊지 않고 심중한 작전문제가 토의될 때면 자기의 의견을 들었고 그것은 사단장의 결심에 보탬이 되어왔다. 김국학중대에 대한 문제에서와 같이 것처럼 상반되는 견해에 부딪쳐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누가 옳고 그름을 시비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사실상은 이미 결심을 채택했고 그에 따

라 구분대는 행동하고있었으며 전투는 승리로 계속되어야 하는것이다.

김국학중대는 아무런 통신수단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과장은 중대가 진출하는 방향에서 행동하는 중심정찰조에 그 어떤 정황이든 놓치지말고 보고하도록 하라고 정찰과에 지시를 주었다. 아닌게 아니라 4시 5분에 중심정찰조는 안도리로 진출하는 경로상에서 인민군대로 판단되는 한 구분대가 적과 조우하여 10분동안 화력전투를 벌렸는데 그 결과는 알수 없다는 보고를 보내어왔다. 이 정찰자료는 과장의 마음속에 짙은 불안의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과장은 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벌떡 일어났다가 도로 앉았다.

책상 한귀에서 조을던 초불이 흠칠하며 팔락거리다가 유유히 꼬리를 휘저어대는것이 누구를 놀리기라도 하는것 같았다.

과장은 사단장이 아직 자지 않을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다시 일어섰다. 작전이 작전이니 만큼 초연내가 단지, 쓴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를 적중심깊이 들여보내고 마음편히 잠자리에 들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던것이다.

사단장이 든 방문앞에 이르러 과장은 드르릉드르릉 우뢰소리わ도 같이 울리는 코고는 소리에 놀라며 주춤 섰다. 돌이켜보면 이 며칠동안 사단장은 하루에 한두시간도 자지 못하고 전선으로 중심으로 돌며 전투를 지휘했으니 좀 피곤했으랴!

사단참모부군관들이 항용 《평화로운 기관총소리》라고 이르는 사단장의 코고는 소리앞에서 방금전까지 가슴속에 드리웠던 불안의 그림자가 간데없이 사라져버리는상 싶었다.

사단장의 코고는 소리야말로 사단참모부군관들에게 친근감과 안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장가와도 같은것이였다. 사단장에게 있어서는 자는것과 자지 않는것과의 경계가 뚜렷했고 졸음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는것이였다. 자겠다고 맘먹으면 머리를 돌에든, 나무에든 가져다 대기만 해도 잠들어버리고 잠들면 코를 고는데 이때야말로 사단의 작전이 아주 순조롭게 잘되어가는 때였다. 그래서 참모부군관들이 불면증에 걸려 시달리다가도 사단장의 코고는 소리만 들으면 곧 꿈나라에 빠져들어가는것이였다.

작전과장 정진영은 불시에 물려드는 졸음때문에 술에 취한것처럼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며 돌아섰다.

사단장은 어둑새벽에 자기의 감시소로 나가 거기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아예 작전조성원들을 데리고 주타격방향인 련대쪽으로 나갔다.

작전과장은 사단의 전투가 계획에 예견한대로 발전하는데서 오는 기쁨과 흥분속에서도 검질기

게 따라다니는 한가닥 걱정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때가 많았다. 이것은 결코 하나의 로파심이 아니였다. 사단의 성과적인 공격이 적집단을 포위소멸하는것으로 마무리되지 못하면 큰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할것이였다. 그런데 포위작전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고리라고도 할수 있는 김국학중대의 소식은 묘연하다. 그래서 그는 좀전에 적중심정찰조에 안도리남쪽에 있는 산운령 북쪽고개길 (여기서 김국학중대가 적의 퇴로를 차단하게 되어있었다.)로 나가서 아군 유희대의 진출정형을 알아내어 시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던것이다.

정진영은 지금 주타격방향인 1련대에 나가있는 사단장에게 정황을 보고하고 몇가지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사단장은 김국학중대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길라도 한듯 말그대로 일언반구도 내비치지 않았다. 했건만 과장은 사단장이 주는 지시들이 어느것이냐 다 김국학중대가 어김없이 안도리남쪽 산운령에 진출해있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는 사실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정찰조에 김국학중대의 진출정형을 확인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는것을 신중하게 보고하는것으로 자기의 의향을 표명했다. 말하자면 김국학중대가 목적지까지 진출하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했던것이다.

《잉》하는 전류를 타고오는 사단장의 목소리는 그가 지금 빙그레 웃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잘했소. 그러나 그 중대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오! 김국학동무가 해낼거요! 그를 믿기요. 믿음이 없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 큰 작전을 지휘할수가 있겠소? 그렇지 않소?》

《하지만 걱정이 됩시다! 》.

《허허, 두고보오. 김국학동무가 이제 자기네 중대를 허술하게 본 동무의 뺨을 후려갈길거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

《그럼 단단히 준비하고있소. 난 이걸 꼭 김국학동무에게 전달하겠소! 》 《알았습니다! 》

사단장의 신념은 바위처럼 끄떡 않았다. 하긴 한번 그가 결심을 채택한 다음에는 지구를 움직일수 있는 지레대를 갖다대어도 그 결심은 움직일수없는것이였다. 무엇이 것처럼 그의 결심을 확고하게 받쳐주는 주춧돌로 되고있는지 과장로서는 리해가 가지 않는것이였다.

저녁 17시 30분경에 제1제대련대들은 포위환을 형성하면서 타격의 화살을 산운령방향으로 쏘아치기 시작하였다. 새로 옮겨나온, 전선으로부터 박격포탄까지 날아와 터지는 야전지휘소에서 과장은 조립식탁상에 퍼놓은 작전지도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통신선을 끌고와 전화기를 연결하는 통신병들을 불같이 독촉했다.

뿌연 하늘밑에 시원한 공기가 깃들일 틈새기 하나 남기지 않고 무더위가 짙 차있었다. 은폐부

두리의 나무들도, 팔짜기를 홀러내리는 시내물도, 지어는 개버들아지밀 물속에서 꼬리만 살살 저으며 동동 떠있는 행베리며 버들치마저도 더위에 헐떡이는상싶었다. 하나 지금 더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과장 정진영은 워낙 더위를 그리 타지 않는 사람이지만 땀어깨죽지는 질편하게 젖어있었고 군모 땀받이를 적시고 남은 땀방울이 눈곱으로 흘러들고있었으나 싸우는 전선이 더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것처럼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전화로 정찰과를 찾아 중심정찰소에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는가를 알아보고나서 빨리 그와 무선통신을 결속하고 우회대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에 보고하라고 단단히 일러놓았다.

1련대와 3련대에서 적에 대한 포위를 형성하면서 적을 압축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에 이어 적들이 도망치기 시작한다는 걱정이 들어왔다. 포위에 걸려들기 시작한 적은 적어도 5.5개 대대 즉 2개 련대에 가까운 령량이었다. 이걸 놓친다는것은 사발의 고기를 놓친다는것을 말했다. 사발의 고기가 튀어나지 못하게 사발뚜껑을 째 덮어놓기 위해서는 김국학중대가 빨리 산운령에 나타나 고개길에 틀고앉아야 했다.

사단장동지가 말하는것처럼 믿자! 믿는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사단장동지가 것처럼 확신성있게 김국학중대가 해낼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 못미더워 불안한 안고 모대기는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불려보니 답답하던 가슴이 좀 내려가는것 같았다.

정진영이 작업지도에 부대들의 진출정형을 익숙된 숨씨로 쭉쭉 굶는데 전화를 받고있던 참모가 황급히 다가왔다.

《과장동지, 보고가 왔습니다. 중심정찰소에서 말입니다. 산운령에서는 인민군대의 구분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각하는 적들은 지금 트럭들을 타고 내빼기 시작했답니다. 선두는 산운령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영은 참모의 말을 푹푹히 들었다. 그 보고는 물론 과장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자기의 불안과 위구를 안겨주던 그것이 현실로 된것이 역겨우리만큼 불쾌했다. 보충중대가 적후에서 적의 첫타격에 산산이 흩어져버리는 어지러운 광경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안도리로 진출하는 경로상에서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가 적과 조우하였다는 그 정찰보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과가 어떤것인지 의심할나위가 없게 된것이다.

그러나 정진영은 놀라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침착해지고 리성이 칼끝처럼 예리해지는것이 군사일꾼으로서의 정진영의 장점이었다.

정진영은 공격속도가 빠른 1련대에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타격의 화살끝을 산운령고개로 뻗쳐

고개길을 막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1련대장이 전화를 받았다. 사단장을 바꾸어달라고 하니 함께 평양학원을 나온 그 친구는 제기된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여, 지금 통질할 사이가 없대. 어서 좀 바꾸어주게…》 하고 과장은 애원에 가까운 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동진 우리 3중대로 나가시였어!》

《아니, 3중대로? 언제 돌아오시겠다고 해? 말이 안들려? <감나무>, <감나무!>》

바쁘다는데 전화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때 누군가 천막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나 과장은 1련대에 필요한 지시를 주어야 하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미처 그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들어온 군관은 천막안을 휘 둘러보고는 말없이 구석쪽 천막자락결에 놓여있는 의자에 육중한 몸집을 실었다.

과장은 신경질적으로 발진자돌리개를 한손으로 돌리며 1련대를 찾았다.

《<감나무>!, <감나무>! … <감나무>야? 말이 끊어졌었어, 내 말이 잘 들리오?》

《어서 말하오, 또 끊어지겠소!》

1련대장의 목소리는 까마득한 나락에서 울려오는듯 가까스로 돌리었다.

《내 말을 푹푹히 듣소, 동무네 련대 선두구분대인 1대대를 빨리 산운령으로 진출시켜야 하겠어! 내 말을 알아들었나?》

《그때문이었나? 사단장동지의 지시로 지금 우리 1대대는 번개처럼 달리오!》

《사단장동지가?? … 산운령에 언제면 가닿을수 있겠소?》

《40분이면 충분해. 적들이 악을 쓰네, 포위소멸될 제놈들의 가련한 처지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있겠나.》

《40분이면 늦어! 그 사이 적들은 더 도망칠걸세…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오. 그래도 늦긴 하지만 지금 형편에선 그렇게 할수밖에 없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산운령에는 우회대가 틀고앉아있다는데 …》

《그건 믿지 말게, 우회대는 이미 없어졌네! 동무네 1대대가 우회대노릇도 해야 하오!》

천막자락결에 앉아 과장이 통화하는걸 듣고 있던 그 몸집이 큰 군인의 고동빛 얼굴에는 능청스런 미소가 서리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머리를 뒤로 젖혀 천막기둥에 어깨를 기대었다. 그러자 《평화로운 기관총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전선에서 울려오는 기관총소리들과 가락맞게 어울리었다.

작전과장 정진영은 여러가지 리유로 어성을 더욱 높이었다.

《이제부터 동무네 1대대가 우회대노릇을 해야 한단말이요!》

《과장동무, 거 후방에 떡 엮어서 포탄소리를 못들으니까 귀가 멀지 않았소?》

《걱정말게, 포탄소리, 보충소리 다 듣고있으니… 무조건 18분내로 1대대를 진출시키게! 그래야 절반이라도 잡을수 있다는걸 명심해두게… 꾸물거리면 다 놓쳐버리오!》

《어쨌든 그 시간엔 안되오!》

《이건 내 요구가 아니라 우리 작전의 요구라는걸 명심하오!》

불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상대방을 눌러놓은 정진영은 송수화기를 놓고 털썩 주저앉았다. 갖가지 생각에 빠져드는 과장에게는 전쟁의 소음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 소음 속에는 《평화로운 기관총소리》라고 일컫는 코고는 소리도 유난히 크게 울리고있었으나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였다. 어제저녁 사단장이 옳은 결심을 채택하도록 보다 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언을 주지 못한게 잘못이지… 과장은 두손으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다.

《드르릉… 드르릉…》

귀에 익은 정다운 코소리에 놀라며 과장은 벌떡 일어섰다. 천막구석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천막기둥에 기대어 존다기보다 깊이 잠든 사단장을 바라보는 과장의 가슴에 야릇한 흥분이 일어났다. 사단의 작전이 순조롭게 발전하고있단말인가? 아니야, 오늘의 저 코소리아말로 때아니게 울리는 기관총소리, 사수가 사격순간을 잘못 판단하고 방아쇠를 당겼기때문에 내뿜는 오발사격소리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하지만 사단장의 그 검붉은 얼굴에는 얼마나 안온한 그러면서도 능청스런 웃음이 고요히 깃들어있는가?

사단장의 그 《평화로운 기관총소리》는 사수가 당겼던 방아쇠를 놓은것처럼 갑자기 툭 끊어졌다. 그는 눈을 뜨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일어나 작전대로 다가와 앉았다.

《정황을 보고하시오!》

정진영은 언제나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황들을 보고하면서 부대들의 진출계선들을 지적했다. 사단장은 붉은색연필을 휘둘러 톡하기는 하나 고르로운 선으로 한쪽이 열린 원을 그려놓고는 그 열린곳 (김국학중대가 차지하게 된 산운령이었다.)에 방어진지의 부호를 찍 그였다. 그가 어찌나 연필에 힘을 주었던지 속대가 툭 부러져나갔다.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할거요…》

정진영은 사단장이 그린 힘찬 부호들을 흘린듯 들여다보고있다가 다급히 말했다.

《사단장동지, 적후정찰조는 산운령고개에 김국학중대가 진출하지 못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동문 그 보고를 믿소?》

과장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믿을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단장은 아랑있는 눈길로 과장을 뻔히 쳐다보다가 담배를 한대 붙여물었다.

《웁소, 믿어야지. 그러나 난 지금은 그 보고를 믿지 못하겠소. 그렇소! 김국학중대는 산운령에, 땅에서 솟아나듯 나타날거요!》

《혹시, 그 어떤 원인에 의하여 중대가 가당지 못할수 있다는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하, 하하… 그건 좀 다른 문제요. 과장동무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1련대장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소? 그래 난 과장동무를 믿는거요!》

《사단장동지, 사단장동지는 저보다 먼저 1련대장에게 빨리 산운령방향으로 1대대를 진출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보충중대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이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발음을 길게 뽑아 두번씩이나 부정하면서 사단장은 답답한듯이 목단추를 끌러놓았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적이 없소. 김국학동무는 해낼거요. 그런 중대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투를 조직하고 명령을 내리겠소?》

동문, 그에게서 당파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열정을 보지 못했소? 그의 중대는 전투에 잘 준비되어있었소. 그 중대에서 나는 중대장을 보았지… 안 그렇소? 중대전투원들이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중대장을 대하더라말이요! 동무가 중대장이 자기 중대를 해체하지 못한다고 완강히 버티고있다고 보고했을 때부터 별로 내 마음을 끌어당기지 않겠소? 그래서 우린 함께 중대에 나가보았소. 동무도 본것처럼 중대가 굉장하더라말이요! 그렇지 않았소?》

《??》

사단장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인차 떠오르지 않아 과장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하나 사단장의 드물지 않는 신념앞에서 다소 마음이 가벼워지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여보, 과장동무, 그 친구들이 수고를 하겠는데 경리과장에게 단단히 지시하오. 저녁식사를 푸짐히 준비해놓으라구… 거, 참외와 수박을 좀 구해놓으라고 하오! 내 아무래도 3련대에 좀 나가보아야 하겠소. 나가서 김을 좀 붙여넣어야지…》

버쩍 정신이 들게 엉덩이에 회초리를 안겨주어야 하겠소.》

사단장은 필요한 몇가지 지시를 주고는 군모를 꼭 눌러쓰고 공격속도를 보장하지 못하고있는 3련대방향으로 떠났다.

사단장의 승용차소리가 멀리 사라졌을 때에야 과장은 김국학의 보충중대가 산운령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상기하였다.

초연이 질게 서린 대기속으로 황혼이 소리없이 잦아들었다.

행방불명이 된 보충중대의 운명은 과장을 피로 움속으로 몰아갔다.

그는 입술을 꼭 물고 무선으로 올라온 짹막막한 보고들을 종합하고있었다.

적에 대한 포위를 완성한 관하부대, 구분대들은 적을 압축하면서 섬멸전을 벌리고있었다. 적을 죽쳐내는데만 움해서인지 어느 한 보고도 포위된 적의 역량에 대해서와 놈들이 산운령으로 빠지고있는데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답답한 친구들, 포위소멸이라니까 현훈증에 걸려 눈들이 먼 모양이지?》

과장은 허탈상태에 빠진듯 온몸이 나른해지고 팔이 쭈시였다. 참모일군다운 세밀한 과학적추리에 의하여 20분동안에 3개대대는 포위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허거른 소리를 질렀다.

《애초에 쩌진 그물을 쳤지...》

과장은 하루동안에 있는 사단장의 모든 언행을 상기해보면서 하나의 뚜렷한 결론을 지으며 안타깝게 머리를 내저었다. 사단장은 거듭되는 승리로 현훈증에 걸렸다.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되었다! 언제 한번 조용한 틈을 타서 충고를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보고전문들에서 전파를 표시하는 수자들을 찾아해매었다.

밤이 퍼그나 짙어 작전과장은 참모부성원들을 데리고 안도리의 새로운 지휘소로 나갔다. 승용차의 앞자리에서 몸을 흔드는 그는 사단장에게 줄 의견을 안고 피로와했다.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뢰와 불길에 휩쓸며 지나간 산야의 여기저기에서는 마사진 적 땅크며 대포들, 자동차들이 텅굴며 뱀의 허바닥같은 불길을 날리고있었다. 군단포, 사단포들이 줄지어나가고 길가덕을 따라 보병들이 행군해나가며 웃고 떠들고 했다.

과장에게는 문득 자기의 지혜와 사색도 깃들여있는 작전지도의 화살표들을 따라 움직이는 이 거창한, 죽음도 삶도 헤아리지 않으며 내달는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그저 크기와 종류와 수자로 타산하면서 작전지도에 표시한 부호들의 기묘한 미술적, 음악적조화에서는 물론, 그것이 화력과 타격과 기동으로 현실화되어 승리를 이룩한 희열속에서 그 힘에 대하여 이밤따라 새삼스레 생각해보게 되는것이였다.

새로운 지휘소에서 과장은 전투결과를 종합하여 가지고 사단장실로 들어갔다.

사단장은 작전지도앞에 앉아 색연필등으로 이마를 긁적거리고있었다. 그래서 군모는 뒤통수에

가불고 땀이 번지르르한 《M》자형의 사색이 짙은 이마가 초불에 반사되어 번들거리고있었다. 그가 이렇게 새로운 작전을 안고 씨름질을 할 때면 곁에서 폭탄이 터져도 끄떡 안하는것이였다. 과장이 큰소리로 보고를 해서야 사단장은 머리를 들었다.

종합된 전투결과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난 사단장은 만족한듯 입귀를 실룩이였다.

《군단에 널 보고를 만드오! 자랑은 말고...》

《알았습니다! 》

김국학중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데 대하여 말을 꺼낼가 하다가 과장은 그대로 돌아서고말았다. 새로운 작전에 대한 사색에 골몰하고있는 사단장의 머리를 형클어놓을수 없다고 생각되었던것이다.

과장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 김국학중대의 운명에 대한 걱정이 끈덕지게 머리속으로 갈마들기때문에 그 어디에도 사색을 집중할수가 없었다.

자정이 지나자 그는 참지 못하고 사단장을 찾아갔다.

《사단장동지, 김국학중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사단장은 색연필을 지도우에 놓고는 천천히 일어났다.

《돌아올거요. 그들이 어디 갈데가 있겠소!》

이러며 사단장은 어둠이 가끔 자동차들의 전조등불빛에 부서지는 창문가로 다가갔다.

과장은 사단장의 역센 어깨를 바라보며 자신없이 말했다.

《전투가 끝난지도 이제 5시간이나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것이 틀림없습니다! 》

사단장은 어둠속 어딘가를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다가 미소어린 얼굴을 돌렸다.

《시인들은 서정시에서 자기의 사상감정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휘관들은 작전에서 싸우는 전투원들의 사상정신을 노래한다고 할가...어쨌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의 작전의 시작점이요. 바로 그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있지 않소?》

과장은 사단장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전에 어제 오늘 느껴온 자기생각을 쏟아놓고야 말았다.

《사단장동지. 앞으로의 작전을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에 대한 과소평가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작전에서 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섭섭하지만 사단장동지에게서는 승리에 대한 도취에서 오는 자만자족이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에 떠돌군하는 그 익살긋은 웃음은 천천히 사라지고 신중한 기색이 안개처럼 서리였다. 이윽고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렇단말이지, 그래선 안되지... 안돼! 제때에 충고를 주어 고맙소! 》

방안에는 잠시 정적이 깃들었다.
밖에서 누군가 보조와 몇마디 주고받았다. 이
어 발자국소리가 들리었다.

《들어갈수 있습니까?》

사단장의 얼굴에 웃음이 피곳 떠올랐다.

《들어오시오!》

김국학중대장이 문칸에 나타났다.

사단장이 소리치르며 마주 달려나갔다.

《우리 영웅이 왔구만 왔어. 다친데는 없소? 가
만 여기 좀 앉아 이야기하오!》

출입문결에는 사단경리과장이 기어이 끌고온
그 양가죽으로 만든 팔걸이의자가 놓여 있었다.

《난 이런데 안 앉지만 동무야말로 오늘밤은 이
의자의 주인이요!》

사단장은 중대장이 한마디도 말할 겨를을 주지
않으며 그의 양어깨를 꼭 그러안고 의자에 활력
으로 눌러앉히었다.

김국학은 사단장의 그 억센 팔힘에 눌러 의자
에 앉아서는 얼떨떨해서 사단장과 과장을 번갈아
보았다.

정진영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중대
장을 바라보고있었다. 하루가 지나 다시 만난 김
국학의 군복은 어제 본 새맛이 다 사라지고 지어
군데군데 찢기여 살을 내보이고있었다. 하나 그
의 커다란 눈은 자신있게 과장을 올려다보는것이
였다.

《자, 그럼 보고하오! 앉아서...》

사단장은 일어나려고 하는 중대장의 어깨를 꼭
누르고있었다. 중대장은 눈을 슬쩍거리며 애원
하듯 말했다.

《사단장동지, 앉은대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
다!》

《앉은대로도 말이 나와야 해!》

사단장은 과장과 함께 중대장의 보고를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장은 자기의 신념이 뒤집히
는것을 느꼈다.

대견해하는 사단장은 자꾸만 재촉했다.

《그래? 계속하오! 위장을 어떻게 했다구?》

《전 호우에 나무아지들을 건너대고 떼장을 떠다
덮었습니다. 사실 전 좀 두려운감도 느꼈습니다.
사전에 적에게 폭로되면 만사가 수포로 된다...
그래서 전 전사들에게 후방의 훈련에서 배워준대
로 코앞에서도 알수 없게 위장을 하라고 요구하
습니다. 그렇게 댔습니다. 적병들이 고개길로 개
싸다니듯 했지만 우리를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단정찰조도 동무들을 찾아내
지못했군...그래, 그건 좀 너무 하지 않았소? 자
기네 정찰병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다니... 하긴
정찰병들이야 적을 정찰하는게 본신임무니까...
아주 잘 싸웠소! 잘 싸웠소!》

중대장은 거북스러워하며 눈길을 어디다 두어
야 할지 몰라했다.

《자, 그럼 가서 중대를 휴식시키오. 저녁식사를
아직 못했지? ...어서 가보오. 식사를 준비시켰
소...가만, 그런데 동문 어제 무슨 말을 하자고
했소? 나한테서 임무를 받고...무엇인가 제기하려
고하는것 같았는데...》

김국학은 무척 난감해하며 뒤돌아보고서는 군
모를 쳤다 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럼 말하겠습니다. 간단치 않은 임무를 받고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장동지는
금시 전선에 나온, 편대들에 뜰어나누어 주겠다
던 신병중대를 어떻게 믿고 그런 중대한 임무를
줄수있을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갑자기 그 대답이 듣고싶었던것입니다.
량해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생각이였습니다.》

사단장의 그 길쭉한 구리빛얼굴에는 신중한 기
색이 떠올랐다.

《이제라도 말해주지... 항일무장투쟁시기 경애
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
며 뼈가 굳었고 일제놈들에게 부모를 여윈 우리
들을 한품에 안아 친위전사로 키워주셨으며 조국
광복의 성스러운 길에 내세워 주셨소. 장군님께
서는 늘 원썩놈들에게 짓밟히던 가난한 동포형제
들을 믿지 않고 우리가 누굴 믿고 혁명하며 나라
를 찾겠는가고 하시었소... 그러니 위대한 장군님
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로운 군사지휘관인 동무와
동무의 전사들을 내가 어찌 믿지 않을수 있나말
이요. 그래 동무들과 함께 싸우는 나는 얼마나
행복하오!》

기쁨과 피로움, 부끄러움이 뒤엉킨, 그러면서도
용솟음치는 기쁨이 모든 감정을 눌러내리는 그
런 심정을 체험하는 정진영의 해별을 많이 보지
못해 하얗고 살이 빠진 불은 빨강게 물들었다.
그는 존경과 사랑이 어린 눈길을 들어 사단장을
우러러보았다.

사단장은 말을 이었다.

《동무는 자기가 전투에 준비시킨 중대를 그대
로 이끌고나가 싸워보고싶어하지 않았소?》

《그랬습니다.》

《중소, 이제 가서 쉬오. 래일 또 어려운 임무를
주겠소!》

《알았습니다!》

출입문을 나서는 중대장의 등어리를 대견스레
바라보다가 사단장은 고개를 기웃하며 과장에게
눈을 끔벅해보이였다.

마음이 가벼워진 과장은 사단장을 마주보며 따
라 웃었다. 전투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이밤
따라 류다르게 정서를 자아내며 가슴에 육박해오
는것이였다.

《아, 장군님 명령 받들어

우리는 싸움으로 나아가리라.》

조선아!

김 철

푸른 산밭은 산밭들을 거느리고
누른 등판은 등판들을 불러
《아-! 》 소리를 치면
삼천리강산이 한달음에 안겨오는
여기는 백두산 조선의 상상봉

두팔을 잠시 들기만 해도
온몸에 날개가 돋칠듯
들이켜 내뿜는 숨결이 그대
회오리치는 열풍이 되어
푸른 하늘 만리에 번개를 일으킬듯

조선아! 너 이렇게도 큰 나라였던가!
네 아름다움과 슬기를 두고
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두고
내 지금껏 노래부른 가락들은
한낱 입속말이 아니었던가...

바람이 인다
췌- 천지를 떠난 백두의 바람이
연연 뻗어내린
일천 산줄기들을 쓰다듬어내리며

기다렸노라
-사연도 많았노라
만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는 속에
눈부시게 하얀 두갈래 봇나무
삼지연 못가에 뜻깊이 설레이고

췌-또 한번 맑은 바람이 일어
가없는 대지에
진초록 물결을 번겨놓으면

저기
무포의 뉘시터에 숭엄히 머물렀던
심원한 사색과 거창한 열정이

장엄한 기폭을 펼쳐든다
삼천리에...
온 누리에 ...

아, 조선아
민족의 태양 눈부신 창공에
찬란한 향도성을 받들어 올려
주체의 혈통 만대에 이어놓은
조선아! 조선아!

세상에 너보다 큰 땅은 있어도
그 신념 너처럼 크고
그 전도 너처럼 양양한
영원한 아침의 나라 어디 또 있으랴

이 기쁨이여라
이 행복이여라
이국의 눈서리에 머리 센 사람들
고국산천 향해 터치는 기쁨은...
백두의 해돋이 저 붉은 한끝을
목에 엄숙히 두르며 나설 때
이 땅의 어린 혁명가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 더없는 행복도...

우리는 왔다
그 기쁨 그 행복을 가슴마다 지니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한 강토를
인간자주의 대행진으로 도도히 구르며

높이도 올라섰다
여기 해와 별을 받든 백두의 결정
그 아득한 높이으로
세기의 대기념비들을 수풀처럼 키우며...

하거든
우리의 노래 어찌

크지 않으랴
높지 않으랴
터치라 노래여

백두의 명동소리처럼
저 광막한 공간에 가득히 차서
위대한 주체의 나라
위대한 향도성의 시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자

오 해와 별!
해와 별!
그 빛발 넘치는 하늘
그 빛발 태어난 뿌리깊은 이 산정
그 빛발 앞길 밝히는 무궁한 미래 없이
조선아, 네 어찌 우리의 조국이라
그 빛발 안고
끝까지 혁명할 결심 없이야

내 어찌 어엿한 너의 아들이라

《아-!》다시 한번 소리를 치면
하늘 땅이 맞붙은 지평선을 터치고
우리가 환하게 열려 지는 상상봉

여기서 나는
위대한 향도의 빛발아래
무궁토록 번영할
통일강국의 래일을 본다

여기서 나는
빛나는 해와 별을
가장 가까이 머리우에 이고 선
무상의 행복에 한껏 취하여
너를 부른다
조선아! 조선아!

봄을 부르는 새땅우에서

로승모

눈이 내린다.
찾아낸 새땅이 너무나도 귀중해
손에손에 흙을 친채 생각에 잠긴 이들
젊은 개척자들을 축복하는듯
꽃보라마냥 함박눈이 송이송이 내린다.

내리다 말고 녹아
새땅을 포근히 적셔준
세차게 타오르는 우등불때문이나!
돌격대원들의 불같이 뜨거운 열정때문이나!

첫풍년 것들 새땅을
금빛물결 파도쳐울 이 새땅을
벌써 적셔주고 싶어서
봄비처럼 녹아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사람들 마음에만 봄기운이 어리랴
무심한 하늘도 흰눈을 녹이며
새 계절을 부르거니

외진 산기슭
천년 바위와 잡초에 묻혀있던 땅이
난생처음 뜨거운 가슴을 풀어헤치며
세차게 세차게 들먹이누나!

오, 눈에 젖고 비에 젖어
벌써 봄꿈을 안은 저 새땅은
얼마나 많은것을 안을것이나!

새땅우엔 더 빨리 새움이 트고
새땅우엔 더 많은 꽃이 피리
새땅우에선 더 뜨거운 노래 울리고
새땅우에선 더 살뜰한 정이 맺어지리

모든것 갖추어서 마련한
귀중한 새땅이여!
너를 위해 때아닌 봄비처럼
함박눈이 속삭이며 녹아내린다
첫풍년을 부르며 부르며...

포전길을 걸으며

김병두

하늘에 뜬 종다리노래에
논고마다 흘러드는 봄물소리에
즐거운 가슴 뛰며
농장원들과 함께 나는 걷는다
포전의 아침길

바람막이바자너머
줄대같이 자라는 모판의 풍년모도
봄벌에 달리는 트랙토르도
귀염둥이처럼
내 가슴에 안겨지는 이 길

낮익은 경비원처녀와 눈인사 나누며
아침마다 철문으로 들어서던
그 공장길은 아니어도
물안개 피어오르는 저 들판에
로동계급의 숨결로 만풍년을 가꿔갈
나의 꿈이 있어
나의 노래가 있어

3대혁명의 전위로 오던 첫날부터
걸음걸음 정이 들고
새벽이슬 차며 걸어도
저녁노을 바래우며 걸어도
언제나 기쁨에 차넘치는 이 길

혁명이 바랄 때마다
우리 로동계급을 것처럼 믿으시여
농촌에 보내주신 수령님 사랑으로
내 가슴도 봄벌처럼 부풀어지고
이름모를 들꽃 한송이도
무심히 볼수 없는 이 마음

모판의 어린모 하나 상할세라

밭이랑에 포기 빈 자리 있을세라
모판에서 모판으로
포전에서 포전으로
내 짝어간 발자국 별처럼 빛을 뿌리지 않아도
주체농법 받들어가는
얼마나 크나큰 보람이 이 길에 새겨졌던가

진정 모든것이 내 할일만 같아
농장의 하루휴식도 벌에서 보내며
굽은길도 곧추 펴준 그 논두렁길은 어디!
뛰여 건느던 보도랑에
정성껏 놓아준 그 다리는 어디

해마다 세상을 놀래울
알곡수확고와 함께
땅처럼 소박하고
땅처럼 들바람에 그슬린 농장원들도
로동계급의 모습으로
수령님 앞에 세워주고싶어
내 진정을 쏟아부으며
걷고 걷는 길이어!

주인된 눈으로
아득한 들판 한끝까지 바라보며
나는 농장의 아침길을 걷는다
이 벌에 푸른꿈을 꽃피우며
내 한생을 살듯
그 모든것이 정겨워진 길

이길에서
수령님과 당중앙이 바라시는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무르익히며
우리는 땅의 새 노래 지어가리라
더욱 찬란한 래일을 마중하리라

원앙유정

박종상

1

철커덕, 끼익-

전차의 날카로운 쇠바퀴소리가 고막을 찢른다. 차량이 앞뒤로 서로 부딪치며 차칸이 마구 흔들린다. 자동문이 덜컥 열리고 바깥의 찬공기가 차안으로 확 물려든다.

《조선신문》지국장인 정택호는 아리송하게 잠이 들려다가 깨어버렸다. 바깥에서 물려든 랭기가 몹시 차다. 그는 외투깃속에 목을 자라모가지처럼 움츠려넣었다.

그렇게도 봄비던 전차칸이 어딘지 켜이지 않고 성긴 느낌을 준다. 손잡이를 쥐고 서있는 사람도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사람도 모두 지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았다.

택호는 잠이 어린 눈으로 그들을 물끄러미 둘러보다가 고개를 돌려 차창너머로 정류소 이름을 확인하였다. 아직도 그가 내릴 정류소까지는 멀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문자판의 글자며 바늘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선잠에서 깨어났기때문만도 아니라는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요즘 가끔 이럴 때가 있다. 그는 왼팔을 쭉 뻗쳐 손목을 저만치 앞으로 내밀어놓고는 고개를 뒤로 제끼면서 시계를 보았다. 어렵듯이 시간을 짐작할수 있었다. 밤 열두시전이다.

《안경을 써야겠나.》

그는 하품을 씹어삼키며 나직이 중얼거리고나서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꼴꼴 혀를 찼다.

옛그저께도 현본부에서 통신문고를 쓰면서 사건을 쫓는데 잔잔한 글씨가 통 보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바깥에 사업하러 나갔다가 수첩에 인쇄된 기관 사무소들의 전화번호수자가 잘 보이지 않아 찢쩍 땀 때도 있었다.

(이젠 나도 늙은축에 드나베.)

그는 권여섯이라는 자기의 나이를 새삼스럽게 생각하였으나 뒤따라 일어난 다른 생각이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 아직은 멀었어.)

택호는 키가 보통이 좀 넘는 편이었지만 몸이 후리후리하여 더 크게 보였다. 머리는 수년전부터 흰카락이 좀 섞이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술이

많았다. 넓은 이마, 우뚝 선코, 두드러진 광대뼈... 억센 맛이 풍기는 얼굴에는 입가에 굵은 주름이 한줄씩 잡혔을뿐이었다.

택호자신도 여태껏 나이를 잊다싶이 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억센 느낌을 주는 그의 얼굴에 특히 타는듯이 빛나는 어글어글한 눈에 부드러운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부드러운 온기는 얼굴 전체를 조용하게 조화시키고 인생의 온갖 시련을 겪어온 사람에게 고유한 풍격을 보태주고있었다.

그는 한 달포가량 여간만 분주하지 않았다.

새학년도를 앞두고 조선학교에 학생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주 급한 문제인데다가 새해에 들어서면서부터 한층 심각해진 불경기바람에 동포들의 기업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있었다.

남조선정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주위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일은 분주해졌다.

택호는 하숙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맡은 성북지구 관하에서 숙식을 하며 본부엘 다녔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해설, 새학년도 신입생대상가정의 호별방문, 강연회, 간담회, 때로는 영화도 돌리고 본부에서 가무단도 불러 예술선동도 조직하느라고 그는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는 담당지부에서의 사업을 어저께로 일단락 짓고 오래간만에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간해서는 지칠줄 모르는 그였건만 오늘은 어깨가 빠근하고 몸이 고달팠다.

그렇듯 오래동안 타고다니던 전차인데도 어딘지 서먹서먹하고 낯선 느낌이다. 그러고보니 한 달만이였다. 하지만 반겨줄 제고장도 아니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젠장, 역시 안경이 있어야겠군.)

그는 외투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다가 말고 다시 잠을 청하듯 눈을 감았다.

《이 사람아 고집도 어지간히 하고 남의 말도 좀 들어야지... 정말 홀로 사는 자네의 정상을 못보겠네, 못보겠어.》

어제 총무부장이 하던 말이 귀전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이마의 머리카락과 귀밑머리까지 되살아

났다. 숙자와 정자, 정남이의 얼굴이 해연이의 얼굴에 겹쳐졌다.

택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는것을 느꼈다.

(망측해라. 내가 무슨 망녕...)

그는 별안간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 잡념을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입에서는 가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왜 이리노. 누굴 망신시키려고.》

자기가 총무부장에게 한 대답이 생각나서 그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본심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 잠시나마 동요한 자기 심정을 막역한 사이인 총무부장에게조차 솔직하게 터놓지 못한 웅졸한 자기의 심사가 스스로 교약하게 생각되었다.

택호는 잡념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러나 잡념은 누르려고 들면 들수록 더욱 집요하게 갈마들었다. 택호는 드디어 구름같이 일어나는 상념속에 폭 잠겨들고말았다.

2

택호가 해연이를 알게 된것은 2년전의 일이었다.

총무부장이 자기가 맡고있던 성북지부에 대한 방조사업을 택호에게 물려주면서 며칠동안 택호를 소개할겸 지부일군들과 함께 지부내 각 분회 일군들의 집을 안내해준 일이 있었다. 그때 자기의 먼 친척벌이 되는 사람이라면서 자그마한 조선부식물전을 벌려놓고있는 해연이를 택호에게 소개했다. 알고보니 그 《친척》이란것도 다만 고향이 가깝고 같은 성씨를 가졌다는것뿐이었다.

《사돈의 팔촌도 인척이라면 인척인데 성 같겠나 고향 같겠나 혈육이 그리운 일본서야 친척이라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지.》

해연이와의 관계를 따져묻는 택호에게 총무부장은 반죽중계 때여맞추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총무부장이 바쁜 자기사업을 일부러 조절하여 며칠동안 사업인계를 한답시고 택호를 데리고 다닌데는 해연이를 자기와 만나게 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것 같았다.

해연의 남편되는 사람은 장거리화물자동차를 모는 운전사였는데 열한살짜리 딸애를 만이로 세남매를 해연이에게 남겨놓고 5년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

남편을 여윈 해연이가 철없는 세 아이를 데리고 모진 고생을 하고 있을무렵 때마침 이 지부를 담당하여 동포 《전호방문운동》을 벌리면서 이 집을 알게 된 총무부장이 지부일군들과 함께 그

를 도와나섰다. 그들의 도움에 의하여 해연이는 자그마한 조선부식물전을 차려놓고 네식구가 거기에 의지하여 빠듯이 생활해나갈수 있게 까지 된것이였다.

짧은 회색양복치마에 흰 샤쓰를 입고 기름기없는 머리카락이 이마에 드리워지는것을 손가락으로 걷어올리면서 해연은 인사를 하였다.

택호는 해연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흠칫 놀라면서 시선을 돌렸다. 분별없이 가슴이 후두둑 방망이질을 하였다. 고향에 둔 자기의 안해가 생각된것이였다.

그는 다시금 해연이를 눈여겨보았다.

푸석푸석 부은듯한 기름기없는 둥그스름한 얼굴륵곽도, 너자로서는 좀 오탁한 코날도 안해와는 꼭 달랐다. 그런데 내리감았던 눈을 들어 이쪽을 볼 때의 시선이라든지 얼굴과 몸매에서 풍기는 인상이 안해의 그것과 비슷했고 그것이 그의 가슴을 그렇게도 설레이게 한것이였다.

차츰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서글서글하고 친근한 감을 느끼게 하는 녀자였다.

《이사람 어떤가?》

해연이의 부식물전을 나서면서 총무부장은 빙그레 미소를 짓고 물었다.

《어떻기는.》

택호는 그저 덤덤히 대답아닌 대답을 중얼거렸을뿐이다.

《아이가 넷이나 달린게 좀 탈이기는 하지만... 억지로 권할 생각은 없네. 그러나 꼭 이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재혼을 해야 하네. 이제는 앞일도 생각해야지. 예순고개를 지척에 바라보는 나이에 스스로 조석걱정을 해야 하니 어디 사람이 할 노릇인가. 동자해줄만하고 사람만 착실하면 됐지. 안그래?》

총무부장은 동의를 얻으려는듯 택호를 쳐다보았다.

《음.》

택호는 그저 불명확한 반응을 보였뿐이다.

《이 사람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인제 재가해울 사람도 없을거네... 초상치려고 시집오는거나 다름없겠으니 말일세. 재산이나 많으면 재산 보고 울수도 있다 하려니와 허허허...》

총무부장이 웃는바람에 택호도 멧적게 허허 따라 웃었으나 스스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에익 별소리라 다 하네. 그만두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괜히 누굴 봉변당하게 하려고.》

택호는 좀 성난듯한 얼굴로 총무부장의 말을 막았다.

《미리 말하지 않은건 내 잘못이네. 미리 알려 주면 자네가 또 뽕소니칠가봐 그랬네. 차일피일 하다가 세월만 가고... 나도 일이 있는놈이니 생각난김에 제격 해제끼자고 그랬구만. 리해하게. 그건 그렇고 저 사람 집은 지부사무소와 비교적 가까우니 밥은 사무소에서 끓이되 찬거리같은것은 좀 돌봐달라고 부탁해두었으니 어려워 말고 신세지게, 큰딸애도 있고 하니.》

《.....》

택호는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으나 총무부장의 마음씀이 고마와서 가슴이 뜨거웠다.

택호의 결혼문제는 벌써 여러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본부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 그가 아직 이 본부관하의 조선초급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고있던 그때부터 친구들과 나이많은 동포들사이에서 이야기되고있었다. 나이 마흔이 넘은 교장선생이 혼자 하숙방에서 밥을 끓여먹고있는것이 보기에 민망스럽고 명색이 교장선생인데 가정을 가지지 않고있는것이 좀 가볍게 보이기도 하였다. 동포들이 보다못해 총련지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부일군들이 적당한 대상을 찾아 일을 추진하였으나 당자인 택호가 한사코 마다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

그후에도 또 몇번 이야기가 났으나 택호는 애당초 상대를 만나보지도 않으려 하였다.

택호는 동포들이 결혼이야기를 꺼낼 때면 판에 박은듯이 같은 말을 하였다.

《나는 결혼을 한 사람이고 고향에 처가 있소. 조국이 통일만 되며는 나도 고향에 가서 가정을 가질겁니다.》

그 말이 혼사를 거절하려고 일부러 꾸며서 하는 말갈지는 않았으나 개중에는

《아무리 교육자라 하더라도 해방후 오늘까지 그전에 고향에 둔 안해를 생각해서 재혼을 안한다고하기는 좀 어려울텐데...》

하면서 은연중 택호가 신체상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렇거나, 어데 이미 정해둔 사람이 있는것이 아닐가 하고 남의 배를 앓은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후 오사까에서 《만국박람회》라는것이 열렸을 때 남조선에서 술한 사람들이 구경을 왔었다.

택호는 그때 《거류민단》 산하에 속하여있는 자기의 옛고향친구에게 부탁하여 고향에 있는 조카딸을 불러서 만났다. 고향을 떠나 판고장에 출가하여 살고있던 조카딸은 숙모(택호의 처)와 조부모(택호의 랑친)의 분부라면서 택호더러 옛일(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은 없었던것으로 잊어버리고

부디 일본서 재혼하여 살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지부일군들에게도 삼촌이 재혼해서 살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나이 마흔이 넘도록 홀로 산다는 말을 소문으로 듣고 고향서는 무척 걱정을 하고있답니다. 삼촌과 숙모는 인연이 박해서 부부라고는 하지만 고작 석달을 함께 살았을뿐인데... 삼촌은 고지식한데가 있어서 나라가 통일이 안되니 내외간도 같이 살 신세가 안된다고 하시지만 왜 남들은 내외간이 함께 사는데 하필 우리 삼촌만 이렇게 갈라져서 홀로 살아야 할가요... 그렇다고 이제와서 누굴 원망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바에야 한쪽에서라도 살림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수십년간의 객지생활에 지친 몸이 젊을 때야 그럴수도 있겠지만 마흔이 넘어서 손수 조식걱정을 하신다니 안심이 안됩니다.》

택호의 조카딸은 지부위원장한테 장시간 눈물로 하소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후 지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택호의 결혼문제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알맞춤한 후보자를 찾아내어 교육회로인들이 밤낮으로 북아대었으나 택호는 들은척도 안했다. 나중에는 짜증까지 났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식어갔고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졌다. 그러던것이 택호가 본부의 《조선신문》 지국장으로 전임되고 재작년 여름 급성대장염을 앓아 입원을 하게 되면서부터 다시 그의 결혼문제에 불이 붙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병원생활은 의외로 오래 끌었고 퇴원후에도 회복상태가 시원치 않아 근 반년이나 신고하였다. 그러다보니 집에서 동자해줄 사람이 필요하였다.

본부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부쩍 서둘렀다.

그러나 매번 택호는 거북한듯 텃적은 웃음을 지으며 거절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그의 오랜 친구인 총무부장에게 일임되다싶이 되었다.

택호가 자신의 결혼문제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도 나이 선이 넘어서 밥짓고 빨래하고 쓸쓸히 홀로 지내는것이 좋아서 그러는것은 결코 아니었다. 더우기 큰 병을 앓고난 뒤로는 그런 자질구레한 동자일이 거치장스럽고 찬물에 손을 넣을 때마다 뼈가 아리어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재혼이야기가 나기만 하면 그의 가슴에 고향에 있는 안해의 모습이 살아오르곤했다.

총무부장이 이번에 해연이를 그에게 소개한것도 일이 잘되려니 해서 한것이라기보다 택호의

형편을 보아 무슨 수라도 써야겠는데 묘술은 없고 그저 이런 사람도 있다고 소개라도 해보자고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반은 자기위안이었다. 후보자로서의 조건은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중에서 가장 좋지 않았다.

해연이에게는 일본고등학교에 다니는 숙자와 일본소학교에 다니는 정자와 정남이가 달려있었다. 게다가 숙자는 중학교때부터 불량한 아이들과 휩쓸려 다니다니 공부를 통 하지 않아 학교에서 말썽꾸러기가 되어 해연이의 얼굴에 주름을 덧새겨주고있었다.

택호는 어쩐지 그런 해연이일가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해연이에게서 안해와 비슷한 인상을 느낀것도 이상하다면 이상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그 일가의 처지에서 오늘의 재일동포들의 운명같은것을 보는듯하였다. 일본에서 나서자라 조선민족으로서의 그 어떤 교양도 받지 못하고 민족적 자각도 없이 같은 처지에 있던 남자와 결혼하여 일본이란 남의 나라 한구석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조그맣게 조그맣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남편이라는 기둥을 잃고 살아갈 기력마저 잃어버릴번한 해연이었다.

(만약 총련에서 그들을 찾아내어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되었을까?)

택호의 눈에 비친 해연이일가의 모습은 거치른 세파에 희롱당하는 부평초보다 더 가냘팠다.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도, 밝은 희망도 없이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친구령에서 굶틀거리는 버려지같은 생활이 있을뿐이었다. 그는 총련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동화정책의 희생물로 되어있는 수많은 동포들의 생활을 생각하였다. 일제가 조선침략에서 남겨놓은 흠자옥의 깊이를 그는 새삼스럽게 보는듯했다.

택호는 해연이네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봐주었다.

해연이의 아이들은 이상스러우리만치 택호를 잘 따랐다. 안부모의 손 하나로 자란 그들이라 바깥어른의 사랑에 게걸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일견 엄하게 보이는 택호를 그들은 마치 친아저씨이거나 하듯이 대하였다. 처음에는 정남이가 반찬을 담은 보시기를 가지고 오더니 그다음에는 정자가 오고 숙자가 와서 어느사이엔가 택호는 그들남매의 《아저씨》가 되었다. .

숙자는 택호한테 드나들게 되면서부터 언행이 급격히 달라졌다. 본래 감수성이 예민하여 불량화되는것도 빨랐지만 바로 돌아서는것도 빨랐다. 머리를 지지거나 몰래 화장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고 머를 부리노라고 길게 끌고다니던 치마를 학생치마답게 깔끔하게 고쳐입게 되었다. 그전과 같이 동생들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 없어지고 점잖아졌다.

택호는 정남이와 정자를 조선공부를 하도록 이끌었다.

아이들은 택호한테서 얻어온 조선학교책을 곧잘 읽고 쓰고 했다. 고뿔만 들어도 학교에 안가겠다고 생떼를 쓰던 정남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공부만은 쉬지 않았다.

작년 4월에 정자와 정남이는 자연스럽게 조선학교로 가게 되었고 숙자는 청년학교에서 배우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조선동무가 한꺼번에 많이 생겼다.

해연이도 달라지는 자기의 아이들을 보고 힘을 얻는것 같았다. 그는 총련지부와 택호에 대하여 고맙게 여기고있는것 같았다.

아이들이 조선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며칠 안가서 택호는 분회장과 함께 천연색으로 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초상화를 해연이네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이들의 방에 모시었다.

《인제 이 집도 진짜 조선집이 되었구만, 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분회장은 만족해서 말했다.

택호의 눈에는 그때 환하게 빛나던 해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듣자하니 자네 그 집 애들 교양을 아주 잘한 것같애. 그 말썽꾸러기 큰딸이 래년에 일본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기관에서 일하겠다고 그런 다면서? 인제 그만하면 됐지... 자네 그지 못이긴 체하고 가만 있게. 일은 우리들이 해치울테니 맡겨두게.》

오늘 본부에 들렀을 때 총무부장이 한 말이였다.

《에익 이사람, 그만하게, 그런게 아니라니까.》

택호는 그답지 않은 큰소리로 총무부장의 말을 물리쳤다. 그것은 어쩌면 택호자신의 동요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꾸짖은것인지도 몰랐다.

해연이가 나타난후 그집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주위의 압력에 흔들리는 자기 내심을 택호는 엄하게 경계하였다.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처가 있단말이야. 처에 대한 의리로서도 그럴수 없지.)

그는 동요하는 자기 마음을 납득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지금 속이 텅 빈것 같은 이 허전한 느낌은, 가슴속에 구멍이 뚫린것 같은 이 쓸쓸한 느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택호의 머리속에서는 해연이의 모습이, 정자와 정남이의 모습이, 숙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며 속을 애잡짤하게 해주었다. 그는 그것을 뿌리치려는듯 두세번 고개를 젓고나서 크게 눈을 떴다.

3

택호가 자기의 하숙집에 돌아온것은 밤도 자정이 넘어서였다.

입구의 덧문을 열고 부엌간 트락에 들어서니 그동안에 온 편지며 우편물들이 덧문안쪽에 달려있는 우편함에서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어둠속에서 그것들을 주섬주섬 주어서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얼음글같은 무거운 랭기가 그의 몸을 에워쌌다.

그는 얼른 전등을 켜고 석유난로를 피웠다.

헹헹그렁한 방, 코를 쑤시는 곰팡내, 홀아비생활에 그늘은 거무칙칙한 천정과 벽, 천정구석에 늘어 진 거미줄...

사람의 온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다.

바깥에서는 못사람들사이에 끼여서 자기를 돌볼새없이 일하다가도 하숙방에 돌아와서는 말할수없는 공허감을 느끼군하는 택호였다.

이런 생활을 그는 37년이나 거듭해왔다.

(올해면 그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조국통일을 위한 정세의 움직임에 고슴도치같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국의 쓸쓸한 홀아비생활속에 인생의 한창시절을 보내고 바야흐로 초로의 경지에 들어선 택호였다.

《허-》

그의 입에서는 뱉빠진 한숨이 새어나갔다. 그는 우편물몽치를 방한구석에 집어던지고 벽장안에서 이불을 꺼내 폈다. 그리고는 옷을 입은채 그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불현듯 해연이 생각이 났다. 아이들과 밥상을 마주하고 둘러앉은 단란한 생활모습이 그의 머리를 사로잡았다. 그는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머리속에 뚜렷한 표상으로 도드라졌다.

《그저 못이긴체하고 말겨두게.》

총무부장의 말이 다시 들렸다.

그는 두손을 모아 뒤통수에 대고 이불우에 드러누우며 눈을 감았다.

(내가 재혼했다고 랑심을 어기는것이 될가?... 그럴리 없다.)

그는 자기의 생활이 부질없는 고집인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순간에도 가슴속 깊은곳에서는 가시가 걸린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택호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다. 그것은 어슴푸레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이었다. 추위가 심하였다. 방안의 이구석 저구석으로 외풍이 사정없이 스며들고있었다.

그는 이불안에 엎드린채 석유난로에 불을 지켰다. 수면부족으로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아팠다. 무거운 머리속에 지난밤에 생각하던 일들이 꿈같이 되살아났다.

그는 머리말에 두었던 우편물 봉테기를 끌어당기었다. 우편물을 한장한장 들어서 발신인들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그는 한장의 엽서에 시선을 멈추었다. 다음순간 그는 화닥닥 놀라며 이불을 차던지고 일어나 앉았다. 그 엽서에 굳어진 그의 시선은 좀체로 움직일줄을 몰랐다.

《리순이?!》

그것은 뜻밖에도 잊어버리고있던 안해의 이름이었다.

《오무라수용소?》

그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이 일본땅에 와있단말인가. 일본땅에 왔으나 붙잡혔기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하여 엽서로 용건을 알려준것이 아닌가.)

그는 급히 엽서의 뒤면을 보았다. 이십수년간 통 본일이 없는 안해의 글씨였다.

그는 그것을 무슨 신기한것을 보거나 하듯이 꿈꾸는 사람같은 얼굴로 보고 또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았다. 읍내의 학교에나 다녔지 앞뒤마음의 시가와 친정외에는 재하나 넘으면 갈수 있는 외가집에도 가본 일이 없는 녀자였다.

(그 사람이 바다를 건너 일본에까지 오다니?!)

택호는 좀체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엽서의 글자들을 새겨나갔다.

시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없는 몸에서 가살이도 덧없고 늙은 몸이 친정동생들한테 돌아가기도 어려워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여 망설이던중에 아직 홀로 있다는 남편생각이 나서 가산을 정리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여 밀선을 탔지만 운수가 각박하여 일본경찰에 잡혔다는 사연이었다.

《...이는 필연코 우리 내외의 연분이 이뿐이어서 그런것이려니 생각하여 몰래 돌아가려 하였지만 돌아갈 날이 가까와오에 따라 당신이 계시는 일본에 이 몸이 지금 와있다는것만이라도 알리고 싶은 심정 간절하와 이 엽서를 띄웁니다. 이제 우리 내외가 만날 가망성은 없으니 이 몸의 일은 잊으시고 옥체만강하시어 적당한 사람을 골라 여생이나마 즐거이 보내주시옵기 바랍니다.》

옛날 촌녀자다운 글씨로 엽시에 공간을 두기가 아까운듯 빼곡하게 적어놓았다. 글은 지면에 못 다 쓴 안해의 마음이 행간에 질게 배여 열밤을 낮 삼아 써놓은 원한의 노래인양 택호에게는 느껴졌다.

《그 사람이 일본에 오다니?!》

택호는 같은 말을 뇌이며 망연히 앉아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안해를 숫촌녀자인줄로만 알고 있었다. 남편을 찾아 제고장을 뜯 생각을 추호라도 할 녀자가 아니라고만 생각하고있었다.

석유난로의 불길이 빨강게 피어올라 난로의 천정을 그슬고있다. 불길을 조절할 생각도 잊고 택호는 그앞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기의 머리속에서 사고활동이 완전히 정지된듯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있는것을 느꼈다.

한참 우두커니 앉았던 택호의 머리가 겨우 정상으로 되었을 때 그의 가슴에 안해에 대한 가련한 생각이 불현듯 덮치었다.

(남편 없는 시집살이 37년, 얼마나 긴 세월이였던가, 얼마나 아픈 세월이였던가... 차라리 남편이 죽고 없다면 잊어버리거나 하겠거니와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 아무리 수록만리 먼 이국이라 할지언정 살아있는 부부가 장벽 아닌 장벽에 가로막혀 새파랗던 청춘이 백발이 되어서도 남남으로 갈라져 살아야 하다니...)

37년이라는 세월이 새삼스러운 무게를 가지고 택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강제송환되는 날이 박두했다고 했지...)

택호는 엽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아무래도 배떠나는 날자는 적혀있지 않았다.

한기가 덜미에서 등골로 스며들었다. 그는 내의바람으로 이를 덜덜 떨면서 석유난로의 심지를 조절하고 벽장안에서 고리짝을 내렸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었다. 추위때문만이 아니었다. 영문모를 불안감이 그의 온몸과 정신은 휩쓸었다.

고리짝안을 뒤져 누렇게 변색한 옛날 편지몽치를 꺼냈다. 그는 편지 하나하나의 결봉에 쓰인 글씨를 확인하여 안해의것을 찾았다.

원래 안해는 편지를 많이 쓰는 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러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찾아보니 두 통밖에 없었다. 하나는 해방전에 보내온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후에 보내온것이였다.

택호는 마치나 37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흘러간 그 무엇을 찾으려고나 하듯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안해에 대한 애처롭고 가련한 생각만이 더해가고 그 긴날 그가 안해에 대하여 가지고있었던 뜨거운 감정은 기억속에만 있을뿐 되살아나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애써도 이가 잘 맞물리기 않는 답답함과 초조한 기분을 삭이지 못한채 편지몽칭이를 도로 넣고 고리짝을 닫으려고 하였다. 순간 한 물건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남색과 흰색의 천을 기워단 자루같은것이였다. 흰부분은 불타다 남은것처럼 갈색으로 변색되고 얼룩이 졌다.

택호는 그 납작하게 꾸겨진 천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베개 거죽이였다. 수를 놓은 베개마구리는 낡고 닳아서 형색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택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에게는 베개모에 수놓아진 한쌍의 원앙이 선명히 보이고있었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단 한번의 꿈같이 짧은, 짧았기때문에 더욱 귀중한 청춘시절이였다.

택호는 베개거죽을 들고 덩덩히 굳어졌다. 낡고 못쓰게 된 베개거죽이 천만의 이야기를 그에게 하소하는것이였다. 무정한 자기를 원망하는것 같기도 하고 쓰라림을 호소하는것 같기도 했다. 그러자 이름할수 없는 슬픔이 그의 가슴을 메웠다.

× ×

택호가 공부하러 일본으로 건너온것은 그가 보통학교를 졸업한 1년후인 열다섯살때였다. 집에서 공부할 형편이 못되어 일본에 와서 사는 당숙을 의지할 작정이였다.

그것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시작하기 1년전의 일이였다.

그는 대판에서 《합바》를 경영하는 당숙댁 심부름을 해주면서 야학을 다니었다. 그러다가 열여덟살 나던 해 《징병》을 피할겸 고향에 다니러 가있었는데 그동안에 량친이 그의 혼사를 서둘렀다. 처음에는 학업도중이기때문에 싫다고 우기던 택호였건만 한번 선을 보고난 다음에는 태도를 달리 했다.

처녀는 첫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름한 얼굴에 순한 코날, 또렷한 입과 눈의 립락,

현살결, 길게 땅아늘인 새까만 머리채 끝에 단 쪽넓은 빨간 비단댕기... 처녀는 시골에서 자란 순박함과 한창 피어나는 빛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행례가 끝나고 고향에서의 꿈같은 신혼생활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석달동안이었다. 그에게 저주로운 《징용》령장이 면사무소를 통하여 날아들었다. 당숙집에 화가 미칠것을 생각하니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 애티가 가지지 않은 안해는 앵두같은 볼을 택호의 가슴에 비벼대며 며칠밤을 울었다. 택호의 품도, 베개잇도 안해의 눈물로 젖었다. 안해를 안고 그도 울었다.

집을 떠나던 날 아침 안해는 남편의 가방에 시집을 때 가지고온 베개모를 달아서 만든 베개거죽을 넣어주었다. 베개모에는 그의 손으로 새긴 살구꽃 무늬 바탕에 한쌍의 원앙이 수놓아져있었다.

택호는 일본에 와서 메밀깍지를 구해다가 그것을 베개에 넣고 기웠다. 그리고는 어디에 가든지 베개를 보짐에 넣어가지고 다니었다. 그것을 베고 자면서 남모르는 청춘의 뜨거운 눈물도 많이 삼켰다. 그 베개모를 보면 안해의 고운 눈매며 앵두같은 볼이며 동백기름을 발라 반질반질 윤이 나던 술이 많은 머리며 또렷한 가리마자옥이 눈에 안겨왔다. 머리를 엮고 비녀를 찌르는 일이 손에 설다고 택호의 도움을 청하던 일, 택호가 애써 비녀를 찢어준 머리가 손을 떼기 바쁘게 주르르 풀려내리던 일... 그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눈에 안겨와 가슴을 찢었다.

그 베개도 해를 묵어 수놓은 실의 색이 바래고 닳아 형색을 알수 없게 되고 거죽천도 삭아서 군데군데 구멍이 났다. 그리하여 언제부터인가 그는 그것을 베개로 쓰지 않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안해에 대한 뜨거운 정은 점차 택호의 가슴속 깊은곳으로 잠겨들었다.

4

날이 밝았다. 택호는 지부사무실로 달려가 전화를 빌리었다. ,

총련 나가사끼본부에 알아본즉 송환선은 3일 후에 떠난다는것이였다.

택호는 히메지까지 가서 하카다행 심간생 특급열차를 탔다. 하카다에서 다시 나가사끼본선열차를 갈아타고 이사하야에서 다시 오무라선을 갈아탔다.

그의 마음은 좀체로 진정되지 않았다.

오무라에 도착한것은 짧은 해가 이미 기울어진 때였다.

총련 나가사끼현본부에 전화를 걸어 부탁해놓은 면회신청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았다. 현본부에서 사업하고있는 옛친구는 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고 하였다.

《동무부인은 틀림없이 이번 배로 송환되는 모양이요. 면회시간은 5시까지이기때문에 빨리 가면 될상실소. 송환이 결정된 사람은 비교적 면회허가가 수월하게 되니 걱정 없을것 같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손쓸수도 있었는데 원통하오. ...이런 일이 어데 있소. 너자의 몸으로 남편을 찾아서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말이요. 응.》

친구는 자기 일같이 가슴아파하며 통탄했다.

택호는 고마왔다.

오무라 시내 고가지마에 있는 오무라수용소는 곧 알수 있었다.

《범무정 오무라입국자수용소》라고 쓰인 간판과 저쪽편에 높이 솟은 감시탑이며 철조망을 둘러친 높은 담장이 무슨 괴물같이 뻗은것을 보았을 때 택호는 등골이 섬적하여지는 긴장감을 느끼었다.

(이것이 오무라수용소인가.)

택호는 새삼스러운 감회를 가지고 그의 37년간의 활동경력에 투쟁대상으로 여러번 등장한 저주로운 이름을 지닌 건물과 그 주위를 둘레둘레 살펴보았다.

수용소 앞거리는 제법 넓다. 그러나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림자조차 없다. 불어치는 바람도 스산하다.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남반부에서 온 망명자들과 피난동포들이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의하여 여기에 갇히었던가, 아까운 청춘을 덧없이 장사지내고 인간이하의 서러운 령어생활을 강요당한 끝에 혈육의 정마저 찢기여 죽음의 땅으로 강제송환 당하였던가...

건물에서는 동포들의 원성이 그대로 울려나오는듯하였다.

나가사끼본부에서 교섭을 잘해준 덕분인지 면회신청서를 쓰고 저주로운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까다로운 수속을 마친 다음 인차 면회허가를 받을수 있었다.

그는 현관접수구앞에서 기다렸다. 안쪽으로 쪽뻗은 복도 저쪽에서 찬바람이 휩 몰려왔다. 택호는 그쪽에 안해가 갇혀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믿어 지지 않았다.

경관복차림의 경비관이 나타났다. 그의 뒤를 따라 꼬부라진 콘크리트복도를 걸어가노라니 마치 자기가 형무소에 갇혀있거나 한것 같은 착각을 느끼며 덜미가 으시시해졌다.

육중한 쇠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쇠문은 마치도 현실세계와 저승을 차단하거나 하는듯 어마어마하고 뒽혹하게 공간을 가로지르고 서서 인정과 양심을 위압했다.

쇠문앞에 있는 조그만 접수구갈은것이 달린 방이 면회실이었다.

땀땀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노라니 《철경!》하고 쇠문 여닫기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나락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양 아래배를 무겁게 울렸다.

택호는 저도 모르게 소리난 면회실 입구쪽을 보았다. 기대와 불안이 착잡하게 뒤엉켜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그는 갑자기 부아가 났다. 분위기에 위압당하고있는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37년이나 헤여졌던 부부가 만나는데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신체의 자유마저 구속된 형편에서 만나야 한단말인가.)

그는 자기가 당하는 처지가 너무도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생각되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일본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 조선사람들을 이처럼 구박할수 있단말인가. 지난날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내외간을 37년이나 생나무 쪼개듯 갈라놓더니 오늘은 내외가 상봉을 위해 수륙만리 험한 길을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만나게 되는가...)

택호는 우지직 이가 갈리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오직 저들의 리기심 하나만을 《정의》라 우기면서 더러운 배를 채우기 위해 이웃나라 사람들의 운명을 함부로 그르치고 오늘도 까닭없는 차별과 학대를 가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헌신짝같이 팔아넘기고있는 남조선 피뢰위정자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부글거렸다.

택호는 입구쪽을 쓰듯이 지켜보았다.

문이 열리고 검은 경비관복뒤에서 회색치마저고리를 입은 로파가 방안에 들어섰다. 그들이 들어서자 입구의 문이 닫히며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졌다.

그것은 분명 로파였다. 죄지은 사람처럼 몸을 웅송그리고 고개를 숙인 녀인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감아있어 비너를 지른 머리채는 기름이 아니라 머리칼 하나하나가 마른 풀잎같이 나뭇겨

렸다. 검은 구두는 치마저고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 》

택호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섰다.

경비관이 택호에게 말했다.

《정택호지? 리순이다! 틀림없지?》

그것은 일제시기 특고경찰들이 하던 말투 그대로였다.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혈육을 보고싶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온, 말하자면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 깔보아도 괜찮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보이었다.

택호는 속에서 다시금 울화가 치밀었다.

《난 죄인이 아니요. 말을 조심하요.》

택호는 엄한 표정을 지으며 일본말로 그자를 꾸짖었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경비관은 놀란 표정으로 택호를 바라보았다. 택호의 드센 시선에 그는 어색한 웃음을 띄웠다.

《별 나쁜 말을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회시간은 5분, 간단히 하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물품을 주고받지 않도록 할것.》

경비관은 실무적인 어조로 말하고 방구석에 있는 책상앞에 가앉아 기록장을 펼치었다.

입구밖에도 아까 택호를 안내해온 경비관이 서있는것이 접수구 창문을 통하여 보이였다.

엄격한 감시였다.

녀인은 긴장해서인지. 택호가 큰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진것으로 알아서인지 어깨를 떨며 서있었다.

걱정에 사로잡힌 택호는 녀인쪽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부르짖었다.

《... ... 》

그러나 부르짖음은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보 나요, 나요.》

택호의 목소리는 가슴속에서만 울렸다.

이윽고 녀인은 얼굴을 들었다.

흙빛으로 그슬린. 마른 가오리껍질같이 찢겨진 얼굴에 주근깨가 거뭇거뭇 박혔다. 이마와 목에는 굵은 주름자리가 흰줄을 그었다.

그전에 크고 검은자위가 질던 눈은 크기는 여전하건만 흰자위가 많아진것 같고 불안과 긴장에 질린듯 물기를 잃고 그저 희번득거리기만 하였다.

그런 눈으로 녀인은 자기 남편을 확인하려는듯 택호를 지켜보았다.

(으윽, 이게 그 사람, 이게 웬일이냐?!)

택호는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하였다. 너무나 가슴에 그려온 모습과 상반되는 안해의 몰골앞에서 택호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너인의 마른 두눈이 급하게 습벽이었다. 커다란 마른 눈에 갑자기 물기가 펴 어리었다.

너인은 손에 든 명주손수건을 눈에 갖다대었다. 눈물은 찻찻한 얼굴에 금을 그으며 타고 내려턱에 주렁주렁 매달렸다.

《았으오, 거기 았으오.》

택호는 구석에 있는 또 하나의 의자를 자기의 자 맞은편에 갖다놓고 안해에게 권하였다. 안해는 수건으로 얼굴을 싸고 한참 울었다. 여윈 자그마한 어깨가 끝없이 떨리었다.

택호는 마치 자기와 인연이 없는 남을 대하듯이 안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참만에야 안해는 좀 진정이 된듯 얼굴을 들었다.

두사람은 그제야 피차의 안부를 물으며 고향친척들의 근황을 물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여위고 검게 그슬린 얼굴에 지난날의 끊던 안해의 모습이 알릴락말락 비끼었다.

서먹하던 분위기는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웬일인지 택호의 가슴에 지난날 안해에 대하여 가지고있던 뜨거운 열정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택호는 잃어버린 그 무엇을 도로 찾으려고 모대졌다. ,

조직에서, 친구들이, 동포들이 권하던 그 모든 재혼이야기를 다 뿌리치고 거치장스럽고 귀찮은 자질구레한 동자질까지 해가며 이 나이가 되도록 기다린것, 그것은 오직 안해, 나에게는 안해가 있다, 비록 수룩만리 멀리 있고 백년의 세월이 흘러도 허물어지지 않는 부부의 굳은 정으로 맺어진 안해가 있다는 그것이 아니었던가! 그 안해가 지금 눈앞에 와있다. 그런데 이 서먹서먹하고 마치 남이구나 하듯이 정이 통하지 않는 기막힌 현실이 웬일인가. 그동안에 나의 정이 말라버렸기때문인가. 아니면 해연이가 나타나서 나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변해버렸기때문인가...

택호는 답답하였다. 자기가 바라는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었다.

오히려 안해가 더 침착한것 같았다.

그는 시부모의 림종이야기며 시숙(택호의 형), 시누이(택호의 손우 누이)의 살림형편 이야기를 떠들떠들 이어나갔다. 택호의 자형(누이의 남편) 되는 사람은 고등학교 교원이었다. 그는 도회지 학교에서 근무하고있었으나 총련사업을 하는 택

호때문에 구실을 잡혀 시골학교에 전근하였다가 이미 오래전에 교직에서 쫓겨났다. 그후 서울의 사숙같은데서 가르치다가 재작년에 세상을 버렸다고 하였다. 홀로 된 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어렵게 지낸다는것이다. 고향에서 농사짓는 형내외도 이제는 펴 늙어서 누이를 도와줄 형편이 못된다 하면서 안해는 시누이의 신세를 생각해서인지 다시 손수건을 눈으로 가져갔다.

《얼굴이 많이 축갔습니다. 객지풍상이 엄혹하니 부디 이녀의 몸을 조심하시이소예...》

헤어질 시간이 가까와졌을 때 안해가 말하였다.

《임자도...》

택호는 할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럴사한 사람을 찾아서 로후조석이라도 보살펴달라 하이시요예...》

안해는 말을 잇다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였다.

5분이라는 시간은 37년간의 공간을 메꾸기에는 너무도 짧았다.

5

집으로 가서 함께 자고가라는 친구의 권고를 사절하고 택호는 친구가 소개해준 러관에 들었다. 혼자서 지내고싶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리는 더 맑아졌다. 희멀건 안해의 눈이 머리에 떠올랐다. 찻찻한 얼굴, 뻘만 굵은 여윈 손, 치마저고리에 어울리지 않던 검은구두, 서리맞은 허연 머리칼이 망막에 떠오르며 가슴을 아프게 허버주었다.

기나긴 세월이 얼마나 엄혹했으면 그렇게도 끊던 애티어린 새색시를 그다지도 무섭게 변모시켜 놓았던말인가.

험한 남녘땅에서 남편없는 시집살이 37년!

시부모 시중이 얼마나 재미없고 가난한 농사일이 얼마나 고달팠겠는가, 낮인들 얼마나 길고 홀로 지새운 밤은 또 얼마나 길었으랴!

택호는 자신의 시련보다 몇푼질 수난을 겪은 자취를 안해의 모습에서 력력히 보았다.

그는 그제야 나라와 민족의 분렬이 안해의 모습에 새겨놓은 참혹한 흠집에 몸서리쳤다. 민족의 운명에 잇닿은 자기 부부의 운명을 뼈에 사무치도록 자각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처지보다 나를 걱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그 안해를 잇고 해연이의 재혼을 잠시라도 생각한 자신을 택호는 뼈저리게 뉘우쳤다.

(얼마나 나약하고 저주당할 몸놀 노릇인가.)

그는 자기 내심의 동요가 안해에 대한 배반일 뿐 아니라 원수들의 분렬책동에 대한 파렴치한 굴복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오늘 낮에 수용소에서 안해에 대하여 정이 넘치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너지 못한 자기의 심사를 패섬하게 여기었다. 뼈에 사무치는 회오와 자책감에 가슴을 치며 울고싶었다.

비로소 그는 여윈 어깨를 떨며 희멀건 눈을 습벽이며 서있던 안해의 모습이 그 짧은 시간에 본 그 모습이 가슴뜨겁게 꼭 안겨오는것을 느꼈다. 그러자 안해에 대한 가련한 생각이 애처로운 생각이 그리운 생각이 북받쳤다.

《여보! 이 나를 용서해주오. 용서해주오. 이 나를!》

그는 허공에 대고 간절히 안해를 불러 빌었다.

분렬된 나라와 분렬된 민족-분렬의 비운에 몸부림치는 나라와 민족을 두고 진정한 가정의 단란이 있겠는가! 있다면 그것은 가식일것이다.

그는 분렬의 아픔을 체험하고있었지만 지금의 이 순간처럼 통감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는 터져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삭일수 없었다.

《이노무 자식!》

택호는 으스스하게 틀어진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서복풍이 휘몰아쳤다. 추위는 한층 더 기승을 부렸다. 음침한 하늘은 금시라도 차거운 눈물을 쏟을것만 같았다.

택호는 러판을 나섰다. 회색포장을 쳐놓은듯이 무겁고 침침한 하늘을 쳐다보며 외투깃을 세우고 부두를 향하여 걸었다.

바람 거치른 시골의 거리는 죽음의 거리인양 인적이 없었다.

송환자들을 밤중에 배에다 태웠는지 아침부두에는 바람소리와 물결소리뿐이었다,

택호는 어제밤에 나가사끼시가로 나가 친구가 알려준 금수품이 아닌 물품들을 돈이 자라는대로 이것저것 사모아서 맞춤형 짐을 하나 꾸려가지고 안해에게 넣어준것이 그래도 좀 자기위안이 되었다.

그는 그 물품속에 쪽지글을 써넣었다.

잘 왔됐소. 고맙소.

운명에 지지 마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지. 당신과 나와. 우리는 부부요. 어디까지나 부부요. 부부가 부부로서 함께 살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하지 않소.

그날까지 제발 몸건강하기를 충심으로 비오.

.....

뚜-뚜-

배고동소리가 세찬 바람소리와 낮게 하늘을 째며 비명을 질렀다.

정각 10시, 송환선은 안벽을 서서히 물러섰다.

바다는 출렁이며 설레었다. 크고작은 섬들은 출렁이는 물결에 희롱당하여 이쪽저쪽으로 움직이는듯했다.

택호는 비말을 일으키며 떠나가는 송환선과 송환선이 떠나가는 현해탄에 잇닿은 어두운 오무라만의 설레이는 바다를 돌부처같이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쌍의 원앙새가 수놓인 베개모가 어리었다.

《...객지풍상이 엄혹하니 부디 몸조심하이소에...》

희멀건 눈을 습벽이며 안해가 하던 그 말이 귀에 쟁쟁히 들려왔다, 그것은 그가 옛날 젊은 시절 들던 새색시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쫄쫄하게 해별에 끄슬린 안해의 열풍, 마른 풀잎같이 너불거리던 머리카락이 정답게 눈에 안겨왔다.

(여보 제발 한번 더 오우.)

불현듯 안해에 대한 사랑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쳤다. 그것은 막을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온 혈관을 팔팔 소리치며 흘렀다.

가슴을 쥐어뜯고싶은 그리움에 그는 몸부림쳤다.

《여보 부디 몸성히... 부디...》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마침내 뜨거운것이 후드득 솟아올라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어느새 내리기 시작하였는지 세찬 바람에 섞인 비방울이 뺨을 아프게 갈기였다.

바람은 더한층 기세를 돋우고 파도는 흰갈기를 일으키며 안벽을 들부셨다. 그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마치 《원수를 부시라, 통일만이다, 통일만이다》 하고 노호하는듯이 택호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렇다. 통일! 통일만이 살길이다!...여보 그날은 꼭 오오. 군세계 사오. 군세계...)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바다도, 점점 멀어져가는 배도, 섬도 모두 물속의 그림자처럼 몽롱해지더니 곧 뒤범벅이 되고말았다.

비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택호는 못박힌듯 움직일줄 모르고 그 자리에 서있었다.

성냥 일곱가치

왕원건 (중국)

날이 밝게 되자 비가 멎는다.

초원의 기후는 변덕스럽기도 해서 달 밝고 별 드문 좋은 날씨로 되더니 갑자기 차거운 바람이 일고 또한 검은 구름은 땅바닥에서나 솟아올랐는지 샅시에 온 하늘을 뒤덮는다.

뒤이어 소나기가 모질게 내려붓고 거게다 밤알 만직한 우박이 섞여 떨어진다.

로진용은 나무숲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사방을 바라보았다.

초원은 온통 비발안개속에 파묻히어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번 소나기를 호되게 맞은 잡초는 빗으로 빗은듯이 진탕바닥을 깔고 누워 길도 보이지 않는다.

하늘은 여전히 음침하고 때때로 우박이 내려 검푸른 수면에 쪽방울을 마구 일군다.

그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뿜었다.

아래다리의 상처가 부어오르고 쑤서서 그만 대렬에서 떨어진것인데 이틀동안 밤낮을 걸어 오를 쯤엔 대대를 따라잡게 된다고 내심 믿던 판이 아닌가.

그런데 이 지점은 소나기로 해서 밤 한나절을 공연히 보내게 되었다.

벌어먹을놈의 날씨라고 그는 중얼거리면서 나무숲에서 나와 기지개를 켜다.

찬바람이 휘 휘몰아치자 그는 저도 모르게 오싹 몸을 떨었다.

그제서야 그는 의복이 온통 젖어든것을 알았다.

그는 의복을 쥐어짰다.

바지가랭이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보면서 그는 생각해보았다.

(화로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고!)

그로서도 이 생각은 한갓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 이 생각은 비단 오늘에 생긴 녀원이 아니다

그가 자기 대렬에서 떨어지기 그 전날만 해도 온 중대에서는 불씨가 없어 보리가루를 익히지 못하고 생대로 먹었던것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손에 껌적껌적하는것이 잡히우는 바람에 움지 하고 마음이 짙이는것이 있어 허리를 굽혀 주머니속을 뒤집어보았다.

아니나다를가 주머니밑바닥에는 쌀보리를 갈아 만든 가루가 한줌 비물에 젖어 깔려있는것이 아닌가.

조심히 꺼분꺼분한 가루를 굵어모으니 닭알만 하였다.

그에게 있어 이 조그만 가루덩이는 더없이 귀한 물건모양으로 길쭉하게 늘어보기도 하고 도로 둥글게 움켜잡아보기도 하였다. (어제아침에 이걸 알지 못한것이 다행이었구나!) 그는 속으로 기뻐해마지않았다.

벌써 옹근 한낮 한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다가 이제 이것을 발견한 그는 당장에 먹고만싶어 못견디었다.

한입에 삼키기는 너무나 아쉬워 둥근덩이를 다시 길게 늘어가지고 입가에 가져다대었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동무!》하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목소리는 너무나 힘없고 낮아서 마치 땅속에서라도 겨우 울려나오는것만 같았다.

그는 멍청하고 섰다가 찢룩찢룩 다리를 절면서 목소리나는데로 걸어갔다.

로진용은 비틀거리며 도랑을 두개 건너 조그마한 나무밑에 이르러서야 어떤 사람을 찾아낼수 있었다.

그 사람은 나무가지에 의지하고 몸을 한절반 높이고있었는데 아래도리는 흐린 구정물속에 잠

겨져있는것으로 보아 벌써 오래동안 움직일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의 얼굴을 보매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으니 새까만 머리칼은 비에 젖어 앞마를 내리려고 거기서 비물이 툭툭툭 뺨으로 흘러내리고있다.

우묵히 패인 눈은 꼭 감기고 목아래 거랭이뼈가 아래우로 오르내리고있는데다 말라터진 입술이 파들파들 움직이며 《동무, 동무-》 하고 들릴락 말락 소리내고있다. ,

로진용의 발자국소리에 그 동무는 간신히 눈을 뜨고 습관적으로 악을 써보는것이였다.

상반신을 일으켜 앉아보려는 모양이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을 본 로진용의 눈은 무엇에 찢리우기나 한듯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기 대오에서 떨어진후 이 이틀동안에 로진용은 이러한 전우를 벌써 세번이나 만났다.

(굶주려 늑게 뻘구나!) 하고 생각한 그는 앞으로 더 다가가 그 동무의 어깨를 껴안고 그 쌀보리가루덩이를 입가에 가져다 대주었다.

《동무, 빨리 좀 자시오!》

그 동무는 정기가 빠진 눈을 들어 멀거니 로진용을 한번 쳐다보더니 간신히 자기 손을 들어 로진용의 팔을 옆으로 제킨다.

그리고는 마른 입을 몇번이나 다시더니 겨우 한마디 실낱 같은 소리를 내었다.

《아니요. 소...소용없소.》

로진용은 손을 허공에 든채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는 찬바람과 모진 비발에 얼어 허영게 된 그 동무의 얼굴과 얼굴에 맺힌 비방울을 보자 가슴이 아팠다.

(화토불이라도 한웅큼 있거나 더운물이라도 한잔 있으면 이 동무를 살려낼수도 있겠는데!) 하고 생각해본 로진용은 안개가 자욱히 덮인 눈앞을 멀리 바라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그 동무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잡시다. 내가 부축해드릴테니! 》

그 동무는 눈을 감고 머리만 저울뿐 대답을 하지 않는다. 보아하니 몸에 기운을 돌구려는 모양이였다.

얼마쯤 있더니 그 동무는 눈을 번쩍 뜨고 바른손으로 자기의 왼편 겨드랑이를 가리키면서 다급히 말했다.

《여기... 여기말ियो! 》

로진용은 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젖어든 저고리속을 더듬었다.

찰나에 그는 그 동무의 가슴이 의복과 같이 차거워진것을 알았다.

그 동무의 겨드랑이에서 종이장으로 뽕뽕하게 포개여 찢겨져 꺼내어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 동무는 왼손으로 그나마 푸들거리는 손으로 종이를 풀었다.

그것은 당원증이였다.

당원증안에는 차례차례 늑혀놓은 성냥가치가 있다.

비 안맞게 품어 말리운 성냥이다.

붉은 성냥대가리가 소도록 주홍빛 인장에 안받침된 품이 흡사 막 빨간 불길을 피워올리는것만 같았다.

《동무, 이걸-》

그 동무는 손시늉으로 로진용을 더 다가오라 해놓고 맥이 다풀린 손가락을 퍼가지고 조심조심 한가지씩 성냥을 세였다.

입속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들릴락 말락하게 외우면서-

다 해서 일곱가치건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 세고나서는 로진용을 물끄러미 쳐다보는것이였다.

(잘 알았지요?) 하는 의미인것 같았다. ,

《네, 알았습니다!》로진용은 반색을 하면서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이젠 됐다!) 하고 기뻐하는 그의 눈앞에는 시뻘겋게 타오르는 화토불이 떠오르고 이 동무를 껴안아다 불에 쪼여줄 그 정경이 또한 나타난다...

이 순간, 그 동무의 얼굴에도 화기가 돌고 정기없던 눈망울에서도 희열의 빛이 솟아오르는것을 그는 정녕 발견할수 있었다.

그 동무는 당원증과 함께 성당가치를 랑손으로 물을 가득 담은 사발을 받쳐들듯해서 조심히 로진용의 손에다 갖다놓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드는 그의 손을 그대로 짹 움켜잡고 똑바로 그의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는것이였다.

《꼭 기억해요. 이젠 여러 동무들거요!》 하고 그는 손을 놓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도로 쪽 뻗어가지고 북쪽을 가리켰다.

《동, 동무... 그걸 가져다 그들한테...》 말은 여기서 끊어졌다.

로진용은 자기 팔에 무엇이 탁 실리우는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갑자기 흐려졌다.

먼데 선 나무, 가까운데 우거진 잡초. 비에 젖은 의복, 그 쪽 감아버린 눈...

모두가 다 안개속에 파묻힌 초원마냥 흐리멍텅하다.

그러나 오직 그 동무가 한손을 높이 들어 멀리 2만5천리장정부대가 전진하고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그 쪽 뻗은 손길만은 너무나 똑똑히 눈에 띄였다...

로진용의 걸음은 유별나게 빨라졌다.

이날 해질무렵, 그는 후위부대를 따라잡았다.

가없이 검은밤, 여기저기 화톳불이 피어오른다. 머칠을 두고 비바람에 시달리고 진탕바닥에 굴었던 전사들은 확확 피어오르는 불더미를 가운데 두고 한껏 즐거이 웃고떠들었다.

그리고 젖어든 의복들에서는 무력무력 김이 솟아올랐고 양재기그릇들에서는 <찌직찌직-> 하고 야채 끓이는 소리가 울렸고...

로진용은 가만히 후위중대의 지도원결으로 걸어갔다.

타오르는 불빛을 받아가면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당원증을 펼쳐들고 나머지 여섯가지성냥을 한가치씩 지도원한테 넘겨주었다.

이때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는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도 떨리는것이였다.

백년을 다시 백년을

조성관

백년을 다시 백년을

갑절로 살고싶어라

이땅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사는 기쁨의 노래를 내 알았으며

한생이 끝나면 다시 이어

누려보지 못한 갓난아이 시작으로부터

그 기쁨 빠짐없이 누려보고저

그 기쁨 놓침없이 다 노래부르고저

재간이 모자란들 어떠랴

한세상 끝이 있어도 끝이 없는

아버이 그 사랑, 그 은정

기쁨이 노래를 낳을것을

어머니 준 한목숨으로야

그 어찌 다 누릴수 있으랴

백년 먼 후날의 그 기쁨마저 누려보고저

미래의 그 기쁨마저 다 노래부르고저

백년을 다시 백년을

갑절로 살고싶어라

천년을 만년을 모셔야 할 우리 수령님

이내 몸도 함께 길이 길이 노래로 받들고저

쇠물로 새기리라

리금녀

쇠물남비 물고가는
머리우 기증기
한초가 새롭다고 종을 울리고
구내차 남기는 인사인듯
기적소리 높이는 새벽

당비서도 지배인도
나와 함께 쇠물앞에서
새날을 맞고
어느새 잠을 깬 어린것들
명절인양 복을 치며 찾아오누나

끓는 구내 끓는 일터
웁기는 걸음 모두 쇠물을 위해주고
주고받는 말 모두 쇠물을 담아
가슴속 온통 쇠물을 안기에

평생 보는 불물이건만
내 오늘도 여기서
해돋이 피어나는 노을을
먼저 보노라
쏟아내는 쇠물의 무게로
또 하루 이 땅에 찾아오는

새날을 헤아리노라
위대한 수령님 가리키신
10대전망 웅대한 고지도
이 쇠물에 뿌리를 두고
내 조국을 억년 받들 대들보
이 쇠물로 다듬어세워

쇠물은 진정
내 청춘 내 삶의
쇠물 익는 한초한초와 더불어
나의 심장 고통쳐

로와 함께 숨쉬며
로와 함께 앞당기는
가장 보람찬 시간을
시대는 《80년대속도》의 이름으로
력사에 새겨주거니

첫 쇠물 뽑던 날
밤하늘의 별무리
쇠물꽃인양 가슴에 다 안기던
잊지 못할 50년대
아, 체대병사 그 시절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낮과 밤이여

정녕 누구에게나 차례지지 않으리
쇠물을 다루는 큰담이 있어
쇠물처럼 뜨거운 신념이 있어
철의 기지 이 구내 이 로앞에서
나는 선참으로 이 땅의 래일을
받아안은 사람

쇠물을 꼭 익히고 익혀
변하고 변하는 강산과 더불어
날을 따라 젊어만지는
나는 이 세상 복받은 사람이기에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용해공의 한마음

당중앙에 바치는 심장의 맹세도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사랑의 노래도
내 이 땅에 흐르는 시간우에
쇠물로만 적으려라
오직 쇠물로만 새기리라

빛나게 살자 우리 당앞에

윤두만

나의 운명은 그대 준것이어라
나의 존엄도 그대 준것이어라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것은
오로지 이 한생각뿐

다는 몰라라
당을 생각할 때면
어찌하여 내 생각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가닿는지

언제나 피끓는 심장
높뛰는 숨결속에
영원한 삶의 해발로
가득차있는 그대

당이어 그대가 아니었던가
오늘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살 때
그 한생이 빛나고
걸음걸음 드림없이 걸을 때
한생의 그 길이 빛나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밝혀준것은

그때문이리
우리 첫 걸음마를 땀 때
반기며 손잡아주던 어머니의 그 손길
자신도 잊고 자식의 순간의 잘못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 잠못 이루던 그 마음
당에 비기는것은

우러르면
넘치는 그 자애로
생의 먼길을 하루와 같이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그 은혜로움

잊지 못하노라, 당이어
그대 빈터우에
복구의 첫삽을 박던 그 어려운 날에
내 백사장에가 덩굴던 바다가 야영소를
돌격대의 우등불가에서
임당청원서를 쓰던 그밤

그리도 아름다웠던 그밤의 그 별빛을

그때는 미처 몰랐어라
그것이 순간순간의 불같은 사람으로
나를 위해 낮과 밤을 기울인 그대
당의 사랑인줄

자라며 그 은정 사무치게 느낄수도
저도 모르게 가슴깊이 자리잡았어라
나의 한생의 신념
그것은 오로지 그대 위한것
그대 위해 바치고싶은 마음뿐

한걸음을 걸어도
그대 부름 법으로 받들고
한순간을 살아도
그대 위업 꽃피우고싶어라
어제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오늘도
당의 새 진군길을 걸으며
태양의 해발로
빛나는 그 모습들

오 그렇게 살리라 불타는 지향이어
짧아도 영생의 삶을 찾은 그들처럼
삶의 매일 매 시각
철의 신념으로 향도성을 받드는
80년대 청년전위로!

이는
우리의 삶의 노래
나의 전생애를 밝히는
의지이며 행복 그 모든 의미이기에
내 사는 영광의 이 시대
순간의 귀중함을
나 자신보다 더 아끼노라
한순간에 당의 빛발 세기를 비치고
그 빛발속에 태어나는 새인간들의 모습으로
주체의 새세계가 창조되기에

내 한걸음도

무심히 걸을수 없노라
그 자옥마다 당에 바쳐가는
우리의 한생의 총화가 새겨지나니

그 어느 길없는 산밭을 넘어도
보이지 않는 그 어느 막장밀에 가 있어도
묵묵히 당을 받드는 마음
생의 순간마다 보석처럼 빛내여가고싶은 마음이
여
당을 위함이라면
이 한몸
한 순간에 초석으로 굳어져
하나의 작은 고임돌이 되고싶어라

되고싶어라
우리 당이 펼쳐가는 주체의 화원
설레이는 그 푸른 숲 가꾸는

한줄기의 뿌리로, 맑은 샘물로

아, 가슴속에 기쁨안고
꿈결에도 부르며 안겨사는
어머니품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은 당이여
그대는 영생의 삶을 주는 크나큰 심장이어니
그대 따르는 한길에
설사 얼음산이 밀려온대도
이 마음 붉게 피리 영원히
어제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생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며
한생을 오직 정보로 걸으리라

시대앞에!
우리 당앞에!

이 꽃은, 이 열매는... 외1편

김송남

내려 내려쌓이는 은비로
깨끗한 눈송이런가
비날론 모비론 수지의 흐름
피어나는 칠색무지개인가

천갈래 만갈래
저 빛갈 저 음향을 타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아름찬 행복이
내 결으로 내 결으로 다가오는듯

말 못할 기쁨을 안고
전기료가 뚫고
발생로가 뚫고
나의 이 가슴도 함께 뚫는다.

이것이 쌀이라고
이것이 가난을 물리치고
미국놈을 치는 폭탄이라고
자옥자옥 이끌어주신 그 사랑에
한줌의 비료 한덩이 카바이트가
그처럼 소중한 무게로
내 마음속에 새롭게 안겨올 때

끝없이 넓어지던 우리 가슴처럼
날마다 날마다 넓어진 구내
신비로운 그 힘을 하늘땅에 펼치누나
색갈 고운 비날론 수지의 흐름

생활의 무지개를 강산에 드리우며...

오늘도 화학고지를 부르시여
새 진군길에 내세워주신 그 뜻은
인민의 웃음이 더 밝아지고
더 높은 하늘가에 창문들이 빛나라고
행복우에 행복을 엮어주시려는
아버이 그 마음

보아라,
그 마음이 꽃으로 핀다 열매로 익는다
바라면 옷감이 되고 꽃포단이 되고
이랑이랑 물결치는 금나락이 되라고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것이 되라고

아, 돌에 불을 맞세워 피워낸
이 꽃은 비날론꽃
그이의 사랑!
바람과 불과 번개를 어울려 익힌
이 열매는 비료와 농약
그이의 은정!

아버이수령님 그 품속에서
설레이고 설레이자, 나의 화학도시여
천가지 만가지 행복을 펼치며
억만재부를 이 땅에 쌓으며...

두 불빛

아득한 굴길
한줄기 배관을 따라
마주오던 두 불빛
그 자리에 멈춰선다

-저 누구요?
먼저 남자의 웅글은 목소리
(아이참, 그 동무 아닐까?!)
그러면서도 못들은척
똑똑이 배관을 두드려보는 그 소리에
총각의 마음속에도(그 처녀구나!)

어쩌면 생각이 그리도 같았을가
교대는 끝났어도 막장을 못떠나
새는 바람 잡으려 나선 이 굴길
착암기가 그렇게 일켰나보지
압축기가 똑같이 속삭인게지

보름만에 착암기 잡았다는
제대군인 저 총각
마음속 그렇게 미덥다가도
만나면 그저 꽃불이 타는 얼굴
처녀의 가슴은 높뛰기만 하더니

여기서 또 만날줄이야

갱구와 영예론 그 사진에서
낮을 익힌 압축기공 저 처녀
한교대로 굴길을 나들 때부터
난생처음 총각도 주눅이 들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날줄이야

어찌하라
만나자 또다시 시작된 침묵
터진 배관 새는 바람 찾지를 못했다면
-여기예요
처녀의 목소리 터지듯이 울리고
기다린듯 총각은 바람구멍 채우 막고...

-인차가 떠났을가?
-글쎄... 빨리 가보지요!
그 다음엔 또 침묵, 묵묵히 걸어가도
춤을 추듯 가슴우에 흔들리는 간데라
두 불빛이 마주보며 끝없이 타오르네
-인차야 떠났으면 뭐라나?!
-아무렴 굴길이사 멀면 뭐라나?!

가사

우리는 농촌 3대혁명의 영예론 첫 파견원

백수길

씨뿌리는 농장벌에 향도의 빛발안고
3대혁명 기치높이 우리는 왔다네
로동계급 우리를 혁명의 전위로
세워주신 그 사랑에 가슴뜨겁네

아 우리는 농촌3대혁명의
영예론 첫 파견원 3대혁명소조원
기술혁명 한길우에 힘든 일 덜어가며
농민들과 서로 도와 만풍년 가꿔가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사람도 산천도 붉게 꽃피우리

아 우리는 농촌3대혁명의
영예론 첫 파견원 3대혁명소조원
수령님 펼쳐주신 3대혁명 한길우에
불타는 심장을 다 바쳐가리라
온 나라 강산에 난알산 높이 쌓고
공산주의새봄을 앞당겨가리

아 우리는 농촌3대혁명의
영예론 첫 파견원 3대혁명소조원

들끓는 기계바다우에

한호

붉고 푸른 흐름선의 불빛
진주처럼 아름다워라
시대너머 안겨오는 가없는 하늘이
여느때없이 좋아라

설새없이 형타를 찍는
프레스의 경쾌한 동음소리
불이 일게 강피를 두드리는
함마소리

지축을 울리는 철의 음향은
우리 가슴속 맥박이 아닌가
우리 당 전원회의결정을 받들어
높뛰는 그 맥박...

그 맥박 가슴에 안으니
후더워지는 생각이여
빛나는 공업강국에
강력한 기계공업의 대부대를 무어주시려
수령님 얼마나 먼길을 오셨던가

한걸음 한걸음
우리 공업의 주춧돌을 놓으시며 오신 그 자욱
농민들의 땀흘리는 농사일 보신 날엔
그리도 가슴 아프시여
온 나라 인민들을 기계우에 태워주시려
오신 그 자욱

아, 수령님 걸어오신 그 길우에
숲처럼 무성해 들끓는 기계바다여!
이 땅 그 어디나
장엄히 울리는 철의 대교향악이여!

자동화의 불빛으로 흐르는
사랑의 바다, 기계바다우에 올라
우리 당이 휘황히 밝혀준
조국의 래일을 바라보나니

무엇이든 좋다
순간에 기계의 축을 만들고
순간에 땀시 있고 알뜰한 제품을
산같이 쌓아가는
프레스화, 형단조화!

어디든 좋다
함흥전원회의결정 받들어
기술혁명의 진군을 다그치는 땅이여
거창한 이 흐름에
조국은 얼마나 또 빛날것인가

나어린 처녀들이
하나의 단추로
온 나라 온 공장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람들 단잠에 드는 밤에도
기계가 저혼자
쇠물을 뽑고 언제를 쌓는
꿈같은 세상이 펼쳐지리

아, 오늘보다 백배 더 좋을
조국의 미래가
동무여, 우리의 앞길에 있구나

누르라, 프레스여!
오늘은 너의 시대, 기술혁명의 시대!
흥겨운 너의 가락에
만풍년의 금나락 춤을 추고
은금의 강산이 키솟군다

두드리라, 단조마치여!
오늘은 너의 시대 자동화의 시대!
경쾌한 너의 장단에
강철만이 다져지라
당의 결정 받들어갈
우리의 마음도 무쇠같이 다져지나니

우리는 이 길에서
3대혁명의 불길높이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 더하고
우리는 이 길에서
당과 운명을 함께 하리라

전진하자, 기계전사들이여!
당의 부름
당의 믿음 안고
힘차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에
자동화의 새노래 맑게 울린다
완연한 자주의 새봄이 꽃핀
조국이 마주온다

병사시절의 나날에

최준경

초소로 떠나며

다정한 어머니 치마폭 잡고
삶의 첫걸음마 익히던
내 고향의 정든 집 트락아
물오른 버들가지를 두드려
처음 배운 애국가를 조용히 불러보던
저 멀리 잔디푸른 뒤동산아
내 오늘 다 자란 몸에 군복을 펼쳐입고
너를 떠나 초소로 가노라

어제날 아버지가
박우물 떠마시고 전선길로 달려갈 땐
어머니등에 업혀
내 고사리같은 손을 저었던 동구길이어
오늘은 천만잎새 손벽치듯
키높은 가로수 휘휘 술렁이는 길이어
너는 또 얼마나 하많은 생각
이 가슴에 못건디게 못건디게 불러내는가

그날 검은 머리 빗어엮고
이 길에서 어린 나와 함께
아버지를 바랬던 젊은 어머니
오늘은 반백의 귀밑머리 흰수건속에 감추고
군화자욱 덧놓는 이 아들을
그날처럼 오래도록 손저어 바래누나

오, 햇빛의 따뜻함을 안고
내 해종일 장난질에 취해놀 땐
내 미쳐 다는 몰랐던 어머니 그 품
애뜻하고 소중한 고향의 모든것
오늘은 초소로 떠나는 이 가슴에
지켜야 할 조국의 모습으로 자리잡노라

소중해라
장군님 주신 땅에 행복을 심고
아버지가 피로 지킨 고향산천이어
우리 글을 배우던 나의 어린시절이 비껴있고
정든 어머니가 서있는 요람의 품이어
너는 내 마음에 깃든 조국애의 푸른싹을
이 몸의 잔뼈와 함께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키워줬구나

잘 있으라 잘 있으라!
나의 조국애가 시작된 고향아
나는 푸른 하늘에 군모를 벗어 흔들며
이 한마디 작별의 인사를 남긴다만
서운치 않아라
네 모습 총멘 이 가슴에 고이 안고
위훈이 빛나는곳으로 함께 가거니
불길도 포성도 네 품을 흔들수 없으리

봄에 대한 단상

봄날도 이른 봄날
눈녹은 양지쪽 전호가에
진달래꽃나무를 떠옮기며
병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네
봄은 그 어디에 먼저 오는가?

둘레둘레 모여앉아
꽃나무에 북을 다지던 병사들

저마다 푸른꿈 펼치고 한마디씩
자기 식의 생각을 신이 나서 보냈네

봄은 시내물 돌돌 흐르는
고향의 버들가지끝에 먼저 부풀고
지중지중 종달새 우짖는
양지쪽 령상모관가에 먼저 깃든다고

봄은 아물아물 아지랑이 피는
연초록 잔디밭에 남몰래 내리고
통통통 발동소리 울리며
두엄 나르는 트랙톨창가에 먼저 온다고...

하나 그런 이야긴 너무도 많아
누구도 딱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이번엔 분대장이 한마디
갓 옮긴 꽃나무에 물을 주며 말했네

-자, 이 꽃망울을 보라구
봄은 연분홍빛을 앞세우고
눈덮인 전호를 안아녹인 우리 가슴에
방긋이 먼저 찾아왔단말일세!

생각깊은 분대장의 그 말에

봄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듯
병사들은 그만 무릎을 쳤네
마음속 창가에도 봄빛이 푸르러
환희속에 일제히 무릎을 쳤네

-그렇지!
봄은 벌써 우리 가슴에 깃들었지!

오 봄봄 애뜻한 봄아
전호가에 먼저 온 정다운 봄아
너는 정녕
이 강산에 깃들 그 모든 봄을 위해
찬바람 고추바람 가장 많이 맞으며
조국애의 열도로 전호벽을 안아지킨
초병들의 그 억센 가슴에 자리잡았도다!

행군길에 남긴 산딸기

행군의 짙막한 휴식참
전사는 빈물통을 들고 샘물터로 가다
향기롭게 무르익은 산딸기를 보았네
보기만 해도 온몸의 구슬땀 식혀주는
산딸기 산딸기 빨간 산딸기

돌아보니 때마침 소대장도
타는 목을 추기려 샘물터로 오고있었네
탐스런 산딸긴 전사의 마음 이끌어도
그는 못본척, 아예 못본척
얼른 샘물터로 발걸음 다그쳤네
뒤에 오는 소대장이 따들라고

전사가 스쳐보낸 향기로운 산딸기
이번에는 소대장이 보았네
연초록 파란 물이 든 숲속에
점점이 빨간 꿀물을 올린듯
가슴속에 싱그러운 샘 터쳐주는
산딸기 산딸기 빨간 산딸기

소대장은 문득 생각했네
꼬마가 샘터에서 돌아올 땐
이 산딸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하여 그도 못본척, 아예 못본척
성큼성큼 가던 길 곧추 걸어갔네
전사가 돌아올 때 따들라고-

그 순간 아뿔싸!
다시 울린 행군나팔소리-
소대장과 전사의 발걸음을 재촉했네
서로의 눈길만 닿았던 산딸기는
아쉽게도 숲속 오솔길에 홀로 남았네
산딸기 산딸기 빨간 산딸기

허나 말없이 오고간 친형제의 사랑
두가슴에 꽃피난 관병의 살뜰한 정
딸기보다 아름다운 열매로 무르익어
천리행군길에 꿀갈이 단 향기를 풍겼다네
산딸기 산딸기 빨간 산딸기

병사시절 우리는 좋아

학창시절 마치고 갈곳 많아도
우리는 군복입고 초소로 왔네

투쟁속에 시작된 청춘시절을
위훈속에 수놓으며 정보로 간다네

병사시절 병사시절 우리는 좋아

어머니 사랑은 끝없다 해도
고향집 울바자를 넘지 못하네
동지애의 피줄기로 이어진 우정
천리방선 초소에서 꽃피워가네
병사시절 병사시절 우리는 좋아

불빛밝은 요람도 평탄한 길도
행군훈련 나날엔 그린적 없네
높은 산 험한 강 길없는 길에
청춘기의 자서전을 땀으로 새기네
병사시절 병사시절 우리는 좋아

지휘관의 반복구령 엄격하여도
값높은 표창으로 달게 여기네

사시절 땅에 젖은 군복속에서
우리 몸은 강철보다 굳세게 자라네
병사시절 병사시절 우리는 좋아

뜨는 해, 지는 달, 꽃피는 계절
총잡고 전호에서 맞고 보내네
한치땅에 피끓는 가슴 대이고
크나큰 조국땅을 안아지키네
병사시절 병사시절 우리는 좋아

빨간 령장처럼 불타는 시절
군모우의 별처럼 빛나는 시절
수령님을 위해 산 이 모든 날을
우리는 먼 후날 값높이 추억하리
병사시절 병사시절 우리는 좋아

《포차를 조심히 몰것!》

하루훈련 마친 보람찬 저녁
석양에 타는 노을빛 안고
포차들이 농장의 고개길을 내리는데
전해왔다 다급히 구령소리-
《포차를 조심히 몰것!》

문뜩 앞을 굽어살피니
산기슭엔 층층 펼쳐진 파원
다치면 떨어질듯 굴러날듯
봄여름 농장원들 흘린 구슬땀이
황금의 열매로 한껏 무르익어
길가에도 탐스런 가지를 드리웠었라

얼마나 풍요한 농장의 고개길인가!
얼마나 흐뭇한 가을날의 저녁길인가!
성미 급한 그 어느 운전사도
함부로 포차를 몰수 없는 길이어

순간 앞에서 전해온 목소리
울려갔다 노을비긴 그 령길까지
포병들의 심장과 심장을 거쳐
마치 엄숙한 전투명령과도 같이

《뒤로 전달, 포차를 조심히 몰것!》

무뚝뚝한 운전사도 그 어느새
요람을 지켜선 어머니가 된듯
발동소리 자장가처럼 울리고
포신처럼 투박한 장탄수의 손도
처녀의 살뜰한 손길이 된듯
귀한 가지 애지중지 들어올린다

애뜻해라 티없는 그 심정
농장의 행복에 금이 갈세라
마음의 기둥으로 받들어 고이며
조심히 령을 내리는 포차들의 대오여

오, 파원도 병사들의 마음도
노을처럼 붉게 타는 이 저녁
중대로 가는 길 잠시 늦어지면 어떠랴
인민이 가꾼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가장 소중히 아낄줄 아는 심장들에서
래일은 조국애의 포성이
원췌의 숨통을 향해 더 높이 울리리라

한순간을 살아도

리 화

한순간이란 사람의 일생에 견주어볼 때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찰나에 불과한것이다. 하지만 그 한순간은 얼마나 귀중한것이라. 한번 흘러가면 영원히 되찾을래야 찾을길이 없는 귀중한것이기 때문에 그 한순간을 위해 적구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일생을 기울여오기도 하고 전사는 피끓는 가슴으로 화구를 막으며 한목숨을 기꺼이 바치기도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약 우리에게 자기 조국의 존엄을 지키며 민족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진정한 애국주의자로 될수 없었을것이며 자기나라 혁명에 충실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었을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압록강변의 한 마을에서 있던 레사롭지 않은 한 사건은 이러한 문제에 일정한 답변을 주는것으로 되리라고 본다.

압록강중류어름의 5호물동 건너편에 큰절수라는 조선사람이 태반을 이루고있는 크지 않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판이하게 살아가는 두 집이 있었다. 한집에서는 남을 업어넘기기도 하고 소문없이 협잡도 한 덕에 기와를 엮은 덩실한 집도 한 채 짓고 제밥술이나 푼푼히 먹었지만 다른 한집에서는 온 식솔이 일년내내 가달발을 두지고 나무를 해내려도 사철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

밥술이나 먹는 집에서는 끝끝한 식솔을 두고도 간신히 연명을 하는 집사람들을 질책하곤했다.

《씩은 명태대가리하구 고지식하다는 자네네 집재산전부를 개한테 던져줘보게...》

그따위 코막구 답답한 인간의 량심은 개도 먹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농민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바위처럼 끄떡하지 않고 조선사람이라는 기개를 보물처럼 가슴깊이 간직하고 곳곳이 살아갔다. 날이 갈수록 조짚이영을 이은 집 형세는 기울어져갔지만 기와집에서는 살림이 늘어났다.

기와집에서는 늘귀가는 재물과 장사짐을 싣고 분주히 오가는 일 들 자신의 전 존재와 행동으로

써 사람이란 바로 자기네처럼 살아야 한다는것을 요란하게 시위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이 기와집의 생활판을 뒤 흔들어놓았다.

1937년 6월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 민혁명군의 주력부대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린 기세도 드높이 귀로에 오르다가 큰절수부락에 들리였다.

기관총이며 총창을 꽂은 총을 으리으리하게 둘러맨 유격대원들은 큰싸움을 치르고 방금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였으나 조짚이영을 잇고 처마끝에 서발굽새를 드리운 농가앞에 이르러 장구류들을 내려놓고 레절있게 《주인님 계십니까?》하고 부르고는 정중히 인사를 하며 퇴지에서 다리섬을 줌 하고 갈수 없겠느냐고 겸손하게 묻는것이였다.

(총창 휘두르는 사람들이 이처럼 불나위없는 촌사람한테 공손하다니?!)

세상에 이런 희한한 군대도 있는가.

그 농민은 마을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친형제처럼 위해주는 참사람들, 유격대원들의 성실한 모습에 깊이 감동되였다.

이런 경사가 어디에 있는가. 만주광야를 주름잡아 달리던 전설적인 조선군대가 이름없는 우리 마을에까지 찾아오다니.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를 맞이했으니 세상에 이런 경사가 또 어데 있으랴.

그 농민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유격대원들을 집안으로 손잡아 이끌어들이며 친혈육처럼 따뜻이 맞이했고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팡팡 패어들이고 정지에 걸어논 가마에 황황 불을 지펴넣었다.

잠시일망정 유격대원들이 따뜻한 방에서 몸을 푹 녹이게 하고 있는 곡식을 아낌없이 푹푹 퍼내여 더운밥에 뜨끈한 토장국을 대접하기에 있는 정성을 다했다.

유격대원들은 변변치 못한 갓김치를 맛보며 《꿀맛인데요, 통배추김치가 왔다가 울고가겠어요.》하며 연신 치하를 했고 조밥에 된장을 비벼 먹으면서도 《고향집 아래목에 앉아 어머니가 가져다주는 밥을 먹는것 같다》고 하는것이였다.

정성은 산같이 크건만 살림이 구차하여 서글프기 그지없는 음식을 내놓은 주인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글썽했다.

진실로 음식이 푸짐해서 저러라, 가난한 농군의 정성을 헤아려 저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뜨거운 정이 가슴가득히 차올랐을것이다.

그러나 기와집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자기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축날것 같아 주인은 부랴부랴 귀중한 재물들을 치워놓고 산으로 출행량을 놓았다. 후날 일제군경놈들에게 줄경을 치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척 하는게 상책이지...

유격대원들이 마을을 떠난 뒤에야 기와집에서는 자기 마을에 다름아니라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령술하신 군대가 들렸었다는걸 알고 가슴을 치며 자기의 실수를 통탄했다. 아무리 속에 뱅뱅이 눈깔같은 좁쌀알타산이 들어앉은자였으나 천하가 다 알고있는 항일유격대를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친것은 인생의 오점이었다는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후회란 항상 때늦게 오는것이니 가슴을 두드린들 무슨 소용이라.

그때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조국은 오래전에 그 이름없는 농민이 기올인 한순간의 지성을 잊지 않았다.

지난날 그 농민이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밥을 지어드렸던 그 수수한 무쇠가마는 오늘 보천보혁명박물관의 진렬대에 소중히 전시되게 되었다. 이름없는 산골농민의 미거는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빛나는 고귀한 업적으로 여겨주고 그를 영원히 빛내이도록 하여주었다.

오늘도 이 박물관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까만빛 보통가마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혁명전적지답사휴양권을 가지고 보천보를 찾은 나도 그 가마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만약 어제날의 그 농민이 자기의 자식들과 손자들을 거느리고 여기에 찾아왔다면 얼마나 감개무량할것인가. 그역시 언젠가는 박물관을 찾아오는 못사람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으리라.

그때 그는 자기 집의 낮익은 수수한 가마에 경건한 시선을 보내고있는 못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으랴. 그는 깊은 감동에 휩싸여 아들딸들에게 말했으리라.

《...이 애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행복을 주는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이구나. 몸과 마음 다하여 이 제도를 성심껏 받들어나가자꾸나! 》

인간이 자기의 조국앞에서 지나온 생의 행로를 돌이켜보며 후손들에게 이렇듯 땀땀한 말을 할수있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나.

그러나 전혀 다른 비참한 인간상이 또한 나의 눈앞에서 얼른거린다. 만약 그 기와집주인이 자손들과 함께 못사람들이 값진것으로 주조한 가마보다 더 고귀한것으로 지켜보는 자기 마을 농군의 가마를 보게 된다면? 그에게 아직 다문 한쪽의 량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가 과연 자기의 백발을 무심히 쓸어 넘길수가 있을것인가.

《할아버지! 이걸 보세요. 큰절수마을에서 유격대원들에게 밥을 지어드린 가마라고 써있군요. 할아버지도 그 마을에 사시지 않았나요? 그때 할아버지는 무얼 하셨나요?》

과연 그가 맑고 그윽한 어린 눈동자들앞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수 있을것인가. 그에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도 비렬한 자기의 지난 생활에 대한 뼈아픈 추억때문에 그는 숨이 막히게 될것이다.

이 가마야말로 한 농민의 깨끗한 한생을 말해주는 력사의 증견자로, 또 한사람의 추악한 한생을 고발하는 준엄한 심판관으로 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때에 그때는 자기의 자손들앞에서 저주와 증오를 받으리라. 설사 그대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있다 해도 더럽혀진 량심의 거울앞에서는 영원히 숨을곳이 없어 끝없는 번민속에 몸부림치게 되리라.

그렇다!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높이 받들어올리신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은 우리모두의 생명과 같이 귀중한것.

이 땅에 태어나 피뎀은 심장을 다해 조국을 섬기지 못한다면 영원히 수치를 면치 못할것이며 몸과 마음 다해 내 조국을 충심으로 우리려 받든다면 대를 두고 영광을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인간에게서 한순간의 행동은 질적축적의 발현이며 필연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인생을 주옥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들만이 높뛰는 심장을 조국을 위해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것이다.

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해...

이러한 신조를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삶을 지닐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힘있는 나라

김영필

위대한 수령 **김 일 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떨어져나서 4대자 연개조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일곱무알 사리때라 물이 쪽 빠져버리자 눈앞에는 지평선이 어디바로인지 헤아릴수 없는 기름진 땅-간석지가 무연히 드러났다. 그러자 살진 감탕벌에는 언제 돋았는가 싶은데 이미 한뼘씩 자란 야들야들한 검추(해초)가 한벌 깔려 해빛에 반짝거렸다.

썰물따라 날아온 청호반새와 도요새 무리들은 살통이나 만났듯 바지런히 대가리를 조아리며 먹이를 쫓고있었다.

나는 이곳 와도간석지건설장에서 현지체험을 하면서부터 가슴부풀도록 이 넓은땅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큰숨을 들이구는 습관이 새로 생겨났다.

너무도 벅차고 너무도 황홀하고 너무도 기뻐서...한마디로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참 먹음직한 땅》에 대한 어찌할수 없는 탐욕에서 이랄가.

그러나 나는 이곳 간석지건설장 제3직장 3소대 건설자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은 이제 먹을 땅이 드넓다거나 강력한 중기계의 대부대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만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생활의 외피에 대한 단순한 설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역시 처음에는 건학오는 대학생들이나 지원자들을 싣고오는 내륙지방의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대자연개조건설장의 정경에 반했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무시로 섬을 들었다놓는 발파소리가 팡팡 울리고 사태처럼 무너진 돌들을 굴착기들이 《자주》호니 자동부림배에 폭폭 퍼신는다. 한쪽에서는 불도젤들이 실새없이 부릉부릉 안간힘을 쓰면서 돌들을 밀어 굴착기의 《밥》을 마련해준다.

또 한쪽에서는 기계화와 배합작전으로 궤도식 광차들이 꼬리를 들고 달린다. 그래도 기계들은 자꾸 들이닥친다.

그러나 내가 감탄하고 머리속여버린것은 이 기계들의 위력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인 청년건설자들의 끝없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숭고한 내면세계였다.

나와 베개를 나란히 놓고 자는 리기철이라는 청년은 알고보니 무산내기였다. 나는 며칠전부터 남달리 쾌활하고 매 말마디에 유모아가 섞여 동무들을 곤잘 웃기군하던 그가 입을 꼭 다물고 아름이 번 돌만 골라잡고 씨름하는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행동이 궁금하여 호실동무들한테 물었더니 아버지의 60돐생일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이였다.

나는 그때 지금 개고막이 10일전투를 벌렸으므로 아마 직장에서 휴가신청을 잘랐는가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마침 휴식시간에 직장장이 나타나더니 따로 앉아있는 그에게로 다가가는것이였다. 나는 아닌체하면서 귀를 도사렸다. 직장장의 자못 성난목소리가 대뜸 들려서 나는 놀랐다.

《여보, 동무 정말 못떠나겠소? 외아들이란 사람이 그게 무슨 버릇이요.》

직장장은 원래 성미그대로 앞뒤말을 생략해버리고 짹짹히 말했다.

《직장장동무, 제 부탁을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여기 전보용지도 얻어왔는데 직장장동무의 명의

로 개고막이전투가 바빠서 그런다고 좀 써주십시오.예!-》

그의 목소리는 절절하므로 떨렸다.

그들의 말뜻을 알아차린 순간 나의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 쿵소리를 냈고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불덩어리같은것이 목구멍을 지지고 코안이 매와나서 나는 그만 남몰래 눈가에 손을 가져갔다.

그날밤이었다. 온 사업소가 개고막이전투장으로 펼쳐나왔다. 7호제방은 달리는 사람, 달리는 기계들로 들끓었다.

나는 돌 하나를 지고 기계들을 피해 《골목길》로 달려가다가 리기철동무가 전에없이 환한 얼굴로 자동차들을 유도하면서 떠돌고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메고갔던 돌을 바다에 굴러넣은 다음

이제는 그와 말해보리라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늘쌍 하던 말투로 《기철이, 어떻게 된거요?》라고 물었다.

《아-이거 보십시오.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60돐 생일걱정은 말고 그대신 간석지건설에서 꼭 위훈을 세우라는것입니다.》

그는 벌쭉벌쭉 웃으면서 편지를 내밀었다. 나는 구태여 편지를 보지 않았다.

그이상 알아서 무엇하랴.

그는 진정으로 하고싶은 말을 한마디 덧붙였다. 그 말은 너무도 소박함으로 해서 가슴을 울렸다.

《참 고마운 어머니지요. 그럴줄 몰랐습니다.》

고마운 어머니!

나는 다시 한번 가슴에 충격을 받았다.

고마운 어머니! 훌륭한 아들...

우리 조국은 바로 이러한 인민들, 이러한 아들딸들을 가지고있는것 이다.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 건설자들에게 머리가 숙어지며 떠이고 다니고싶도록 존경이 감을 금할수가 없다.

어쩌면 저렇듯 훌륭히 교양되었을가... 헤치고 들어갈수록 그들의 가슴속은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심장은 불같이 뜨겁고 거인적인 담력을 지닌 청년들이란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한번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소대 세포비서동무와 말해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것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간석지가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곳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석지건설장으로 파견장을 받은 우리 청년들은 어디가 좋고 무엇이 더 좋은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는 이곳을 새 초소로 삼고 우선 달려왔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그렇다. 이들은 당의 요구라면 조건없이 물과 불속이라도, 이 세상 그 어디라도 곧추 달려갈 그러한 청년들인것이다.

물론 바다를 길들이는 싸움은 거창하고 방대하다. 청춘의 심장을 바쳐 해볼만한 격전장인것이 이곳 건설자들은 작업반을 소대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또한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있다.

바로 군대와 같은 규율과 전투력으로 바다와 맞서자는것이다.

벌써 이곳 간석지건설장에는 후날 전설로 전해질 이야기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멀리 요덕군에서 살림을 하러 온 새각시를 데리고 새해 첫 전투장에 달려나와 《새살림은 여기 7호제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 소대장부부의 이야기, 70살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러 왔다가 그만 간석지땅이 탐나서 이사집을 실으려 황황히 떠나갔다는 이야기...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매 건설자들에게 보내준 악기를 불며 발파의 휴식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이야기...

이곳 간석지건설장에 펼쳐나선 청년들과 고향에 있는 그의 어머니들, 70살난 로인과 갓 시집온 새각시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훌륭한 사람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야 말로 힘있는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훌륭한 청년들이 말아나섰기에 오늘도 바다는 한치한치 밀려나가고 조국의 별은 넓어만지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소설과 시대정신

장효흡

우리 주체조국의 위대한 전변의 력사에 또 한 돌기 굽직한 년륜을 감아올릴 1983 년!

새해의 보람찬 나날이 흘러가고있다.

일터마다 창조의 노래높이 울리고 사람들의 얼굴엔 열정과 랑만이 넘쳐흐른다. 거창한 시대의 숨결이 어디서나 맥박치며 풍겨온다. 그 걸음새가 하빠르고 어제와도 달라 자기 년대의 이름으로만 불리우는 새로운 속도, 《80 년대속도》로 내달리고있는 오늘이다.

하다면 이 벅찬 진군길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며 무엇을 새롭게 해결해야 할것인가. 사람마다 스스로 내세우고 답을 찾는 이 물음은 우리 작가들에게 더욱 절실한것으로 제기된다. 그것은 작가들이 시대의 첨단을 걸어나가는 선구자들이며 자기들이 창작한 작품으로써 시대와 혁명에 복무해야 하는 우리 당 사상전선의 초병들이기때문이다.

더우기 현대성이라는 문학의 근본요구를 생각할때 누구든 이 자랑찬 시대와 들끓는 현실을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작품이나 작가적의무에 대해서로 말할수 없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리론은 창작가들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살며 인민의 목소리로 시대정신을 노래하는 참다운 예술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있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 그것은 다름아닌 시대정신이 옹게 구현된 작품을 말한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 특히 가장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형식인 단편소설들에서 시대정신을 더욱 높이 구현하자!

이것이 류레없는 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 작가들에게 제기한 긴박한 요구의 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시대의 기수인 우리 작가들이 사회앞에 스스로 지고나서는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면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들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몇편의 단편소설을 들어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1.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시대정신의 높이

주체적문제리론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시대정신을 옹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서 생활이 제기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잡고 그것을 시대의 지향에 맞게 그려내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시대정신을 옹게 구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시대정신은 인간과 생활밖에 있는것이 아니다. 시대정신은 그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한것으로서 작품에 그려진 생활속에, 그 깊이에 있다. 따라서 문학의 원천이며 작품의 모체인 현실을 떠나서는 그 어떤 시대정신도 보여줄수 없는것이다.

별을 그리자면 하늘을 보아야 하고 보석은 캐자면 땅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작가들은 현실속으로, 그들의 붓에 먹물을 묻혀주고 방향을 그어줄 생활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참다운 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시대와 생활의 물음에 옹은 해답을 주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들에서 시대정신을 옹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긴절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시대의 높이에서 새롭게 탐구해 들어가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곧 작품에 구현된 시대정신의 높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지난해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백보흠, 1982, 8 호), 《나의 선생님》(신용선, 1982. 7 호), 《스승의 얼굴》(한익훈, 1982. 8 호)들은 시대의 높이에 이른 인간문제의 탐구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량심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어느 한 고산지대의 농산기사로서 오래동안 숨은 노력을 기울여온 설태진은 높은 국가훈장과 함께 발명가칭호를 받는다. 그런데 그는 이 기쁜

때에조차 영예와 긍지가 아니라 깊은 자책에 잠겨 모태진다. 25 년전. 애젊은 시절의 한순간에 있었던 생활의 실책을 그리도 못잊어 하며 두고 두고 자기를 반성하는것이다. 열여덟살의 애젊은 나이에 그만한 실수는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누구나 너그럽게 이해해주었지만 그자신은 잠시나마 량심을 더럽혔던 한주일동안의 기상관측원생활을 리력서의 직업란에까지 옹러놓고 부단히 자기를 채찍질하는것이였다. 뉘떨어진 사람인가, 아니다. 혐오스러운가, 그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없이 높고 아름답다. 오늘의 그 생활자체로써. 그 정신적높이로써 독자들의 흥벽을 두드리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사죄하려고 찾아가는 리철원은 또한 어떠한가. 그는 자기가 설태전에게 사회생활의 첫어귀에서 신발을 바로신겨준 사람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생각해본적도 없다. 오히려 그는 설태진이때문에 몸에 입은 상처의 아픔보다 자기가 그에게 남겨준 생활의 흠집으로 하여 그가 받는 아픔이 더 크다고 하면서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살고있는것이다.

어디 그들뿐인가. 그의 딸 진옥은 차간에서 만난 손님이 설태진인줄 모르고 아버지대신 사죄하지 못한것을 더없이 미안해하고 처음 만나보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나》는 몇몇치 못한 려행길에서 돌아서고...

얼마나 아름답고 높은 고상한 정신세계인가. 참으로 로동당시대의 정신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샘물처럼 흘러들어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우리 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인간모습이며 공산주의래일에 잇닿아있는 고결한 정신적미의 소유자들이다.

이러한 감명깊은 인간세계가 떠났던 려행길을 갔는가, 가지 못했는가. 연구사업에서 성공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하는 시간적인 문제나 생산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오한 인간문제, 리없이 맑고 깨끗해야 할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량심에 대한 문제들 내세우고 물었기때문에 펼쳐질수 있었다는것은 뻔하다.

단편소설 《나의 선생님》이나 《스승의 얼굴》들에서는 각도를 좀 달리하여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자들과 앞세대들의 본분과 립장에 대한 문제,

주체과학을 탐구해나가는 과학자들의 성실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있다. 그리하여 그 어떤 《덕》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후대들에게 참된것, 완성된것만을 가르치며 한생을 끝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지식인들의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시대적높이에서 조명하고있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들이 지니고있는 그 량심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것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 뿌리를 둔 혁명적량심, 이것이야말로 생물처럼 맑고 깨끗하며 언제어디서나 변할줄도 다할줄도 모르는 생활의 정신적량식이며 드팀없는 혁명의 신념인것이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지니고있기에 일생에 후회되는 일이 없게 곧바로 살수도 있고 후대들앞에 지닌 앞선 세대의 사명도 다할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강조한데 이 소설들의 깊이가 있다.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 독창적이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시대정신을 옹게 구현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그러나 참신한 주제의 설정. 그자체로써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들에서는 예리한 사회문제들을 제기할뿐아니라 그것을 시대의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정치사상생활이나 로력투쟁. 문화생활과 같은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서 그속에서 발현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지향 고상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건결한 투쟁정신을 옹당한 높이에서 보여주는것이다.

단편소설 《봄빛》(백철수, 《조선문학》1982. 1 호), 《작은 마을》(손권, 《조선문학》1982. 8 호) 《접중화》(박정범, 《조선문학》1982. 8 호) 들에 서는 자기 생활을 조국의 한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직업과 고향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과 땀을 바치는 우리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공통된 리상을 각이한 인물들의 개성적인생활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순애나 옥림이, 람사대원부부들은 나이와 직업, 성미와 생김새가 서로 다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의 정당성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하나같이 활기있고 명량하며 락천적이다. 단편소설들은 이들의 지향을 통하여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리상이 가장 참다운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예술적해답을 주면서 오늘의 우리 생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기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이 작품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자기 개인이나 가정보다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누구에게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되어있다.

작가들은 시대의 언덕에 높이 서서 깊은 강물과도 같이 웅심깊고 풍만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그 밑바닥까지 꿰뚫어볼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시대의 지향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높은곳에서 더 높은곳으로, 다달은 세계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한 지향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끌어주어야 할것이다.

2. 시대정신의 대변자로서의 새 인간 전형창조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사람도 생활도 달라지게 된다. 오늘의 노동자, 농민은 그전날의 노동자, 농민과 다르고 그들의 생활도 전과는 같지 않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품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들에서 시대정신을 옹호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시대적변천과 함께 이룩된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정신적변모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들을 시대의 전형으로 훌륭히 그려 내야 한다.

시대는 성격을 낳고 성격은 시대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면서 앞으로 떠밀고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이 형상화하여야 할 새 인간들은 가는곳마다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낳은 새 인간전형, 주체형의 혁명가들을 진실하게 보여주려면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의 대변자, 그 체현자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질들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시대정신의 체현자란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새형의 공산주의자라고 가르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것으로 하여 신념도, 리상도 확고하고 말씨도, 걸음새도 새로운 사람, 이들이 바로 우리 시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들이며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의 주인공들이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쇠돌을 캐고 쇠돌을 뽑는 노동자들속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속에도 있고 지식인들속에도 있다. 그 누구를 그리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혁명하는 시대의 기상을 체현한 새로운 성격, 산 인간을 그런 혁명화의 본보기, 시대와 생활의 참다운 거울을 보여주겠는가하는데 있다,

단편소설 《모닥불》(로정법, 《조선문학》1982. 7 호)에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여 당정책 관철에서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 한 당일군의 전형적인 형상이 그려져있다.

기적과 혁신으로 충만된 오늘의 로동당시대를 노래하면서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시대의 기수인 당일군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또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형상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소설에 그려진 리당비서의 형상은 참으로 감명 깊다.

온 나라가 들끓는 모내기철이 오면 그는 아침밥을 싸가지고 이른새벽에 벌로 나가며 석싹한 목소리로 선창을 떼기도 한다.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주위사람들이 것처럼 권고해도 끊지 않던 담배를 강연회에 한번 출연한 뒤로는 혹을 떼듯 푹 떼버린다.

이신작직, 당의 결정지시에 대한 무조건성. 이것이 그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생활신조이며 행동준칙이었다. 명령이나 지시로 다긋지 않아도 행동으로 온 동네를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의 강연제강에서도 당의 요구를 헤아리고 심장으로 받아들일줄 아는 사람, 이러한 당일군을 사람들은 스스로 존경하며 따른다.

그는 또한 꼭 필요한 장소에 나타나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일을 찾아할줄 아는 그런 일군이다. 타산된 시간. 타산된 장소에서, 타산된 사람들과 벌리는 그의 정치사업은 요진통을 노리다가 내치른 권투선수의 주먹처럼 효과가 큰것이였다.

논판의 휴식참엔 농장의 재간둥이를 발견하고 사람들뜬에 끼워넣기도 하고 《논두렁지도원》이 되어버린 관리일군에겐 남모르게 슬그머니 소설책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구령을 주는것이였다.

그가 가있는곳이면 어디에나 구호가 나붙고 웃음판이 터지며 뻘속까지 젖어드는 간비속에서도 모닥불이 타오른다. 불이 번지자면 불씨가 좋아야 하고 좋은 불씨는 젖은 나무도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소설은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인 동시에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능숙한 조직동원자로서의 당일군의 이러한 품모를 그의 후더분한 인정미와 결부시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 리당비서는 자기가 피워놓은 불무지옆에 든든히 차리고 앉아 날이 선득선득하도록 낮을 갈아준다. 새땅찾기에 떨쳐나선 사람들의 마음의 무기도 함께 버려주면...

그런가 하면 농장원들은 당비서를 《정옥이아버지》라고 스스로없이 부르며 그가 가져오도록 한 우유를 마신다. 뜨끈한 우유를 감절로 뜨겁게 느끼면서...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랴. 독자들은 이미 꾸밈도 과장도 없는 생활속의 당비서들, 한껏 소박하고 평범한 그러면서도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한 농촌당일군의 인상깊은 모습을 눈앞에 보고있는것이다.

말없이, 소문없이 우리 당의 한 농촌진지를 곳곳이 지켜가면서 언제나 사람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당일군, 이런 사람이 바로 시대가 낳은 새 인간-숨은 영웅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당일군은 시대의 기수로 전형화되어야 한다.

시대정신의 체현자로서의 새로운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높은 계급의식을 강조하는것이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준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정신에는 높은 계급의식이 안받침되어 있다.

단편소설 《지평이》(리신현, 《조선문학》 1982. 7 호)는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시사성을 주는 작품이다.

소설은 나이가 많아 공장을 그만두지 않을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잠시도 공장을 떠나 살지 못하는 오랜 벽돌공인 장지삼의 형상을 통하여 인생의 말년까지 순간도 휘는 일없이 대바르게 살려는 우리시대 로동계급의 참된 인생관을 보여주고있다.

아들이 창안한 벽돌인출기에서 오랜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이 대를 이어 간직되는것을 본 그는 내심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기쁨을 감추며 넌지시 말한다.

《...한데 이녀석, 그 누가 뭐라고 하건말건 네 마음처럼 벽돌장을 굳혀야 한다. 알겠느냐?》

저도 모르는새에 《교부랑령감》이 났던 했다가 《호랑령감》으로 되돌아온 장지삼은 료양소에서 얻어들고왔던 지평이를 버리고 젊어진 마음으로 걸어가며 말한다.

《...보석도 닦아야 하느니라.》

이 소설에서처럼 자기 계급의 근본을 잊지 않고 누가 보건말건 성실하게 일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높은 계급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형상방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들에서는 또한 사람들의 정신생활과 사고방식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데 더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단편소설 《지평이》의 승철이나 금단이들과

같이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되고 자라난 세대대들의

아름다운 성격적특질을 두드러지게 살려내는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생활에 대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태도, 고상한 사상감정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낙천적이며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른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현상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린다.

새세대들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성격적특징을 전형화하여 보여줄 때 우리의 작품들에는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더욱 뜨겁게 차넘칠것이며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뚜렷이 표현될것이다.

우리의 작품들에서는 이밖에 부단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거쳐 자기의 결함을 극복하고 점차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가는 인물들의 형상도 진실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생활을 미화분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 사람들에게 참다운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성격의 개성화문제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드물기는 하나 우리의 창작실천에서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위훈의 난가리로 가리워놓거나 시대적전형의 창조라는 종착역만 보고 달리던 나머지 한본새로 그려놓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을 받으면 인차 끓는 가마가 있는가 하면 매우 더디게 끓는 가마도 있으며 기름처럼 끓는체를 하지 않으며 끓어나는것도 있다. 우리 근로자들의 성격에서도 이처럼 모가 나고 특징이 있는 것들을 잘 돋구어놓을 때 작품에는 숨쉬고 움직이는 산인간의 모습이 보이게 될것이다.

수박 겉핥기란 말과 같이 인물들의 외형이나 그려서는 아무것도 보여줄수 없다. 인간정신의 기사인 작가들은 마땅히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그 어떤 위훈의 높이보다도 그들의 정신적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몰을 박아야 하며 인간의 내면세계에 깊숙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그 어디에 가있든 자기들의 지향을 시대와 련결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면서 시대의 한복판을 정보로 걸어어나가는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개성적인 형상을 훌륭히 창조해야할것이다.

3. 시대적미감에 맞는 구성 형식의 개성적탐구

시대정신의 구현은 높은 정치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정치성도 문학작품에서는 형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야만 자체의 교양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형상의 옷, 그것은 앙상한 론리와 메마른 사건을 가리우는 《덧옷》이 아니다. 형상의 옷은 어디까지나 내용의 옷이며 내용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것과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룬 작품의 형식이다.

주체적문제이론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웅당 사상적내용에 있어서 풍부하고 심오하여야 할뿐아니라 예술적현상에 있어서도 새롭고 비반복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들에서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소양과 예술적사고력이 비할바 없이 높아진 현실적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의 독자들은 작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수비슷한 작품, 판에 박은듯한 도식적인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뜨거운 창작적열정을 안고 시대를 보는것도 자기투로 보아야 하며 사랑하는 자식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로 자기의 창조물인 작품에 그에만 꼭 맞는 형상의 옷을 지어주어야 할것이다.

형상의 새로운 맛은 주로 구성미에서 나타난다. 더우기 하나의 사건과 짙막한 이야기를 통하여 성격을 창조하고 사상을 밝혀야 할 단편소설의 경우 특색있는 형상창조의 비결은 곧 구성의 기교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면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소설에서 시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구성형식을 어떻게 탐구리용해야 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과 《모닥불》의 구성조직을 놓고 말해보기도 하자.

단편다운 매력과 예술적흥미로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받고있는 이 두 소설은 구성상 일련의 공통성과 함께 인간관계설정과 이야기줄거리조직, 생활묘사의 각도들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은 단편치고는 비교적 다양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있다. 소설에는 리철원과 설태진, 리철원의 딸 진옥이, 그리고 《나》와 실험공처녀 등 초소도, 경력도 서로 다른 여러 인물이 나오나 그들은 잊을래야 잊을수 없고 땀해야 땀수 없는 혈육의 정으로 얹혀져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 긍정인물들의 호상관계를 혈육의 정으로 맺어주는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관계에 기초한 중요한 미학적요구이다. 또한 이것은 작품창작의 교양적목적으로 볼때에도 전적으로 타당하다.

소설에서는 이처럼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준데 기초하여 새로운 인물이 출현하고 그들의 호상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고있다.

실험공처녀의 부상으로 하여 그닥 즐겁지 못한 려행길에 오른 《나》는 려차간에서 만난 설태진의 기이한 려행길에 대한 이야기에 끌려들어간다.

진옥의 출현으로 하여 리철원의 변함없는 성실성과 위훈이 소개되며 더 깊은 자책에 잠긴 설태진은 마음속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서는 못견딜 절박한 심정에 이른다. 이때 진옥은 동무를 찾아보기 위하여 다른 차칸으로 간다. 그리하여 설태진의 이야기는 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나》는 그들의 남다른 사연을 알게 된다. 설태진은 기어이 리철원을 만나볼 작정으로 상동역에서 내린다. 뒤늦게 쫓아온 진옥에게서 리철원 역시 20여년동안 심각한 자책속에 산다는 말을 들은 《나》는 가슴치는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마지막 길동무인 진옥이마저 내리려 한다.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없다. 것처럼 소중하고 돋보이는 사람들이 자기곁에서 다 떠나가버려는 것 같았던것이다. 결국 그들과 다른 길을 걸을수 없었던 《나》는 급히 따라 내리며 땀땀치 못한 려행길에서 돌아선다.

보다싶이 이야기의 어느 매듭 하나 인물들의 등퇴장과 호상관계의 심화를 떠나 그려진것이 없다. 독특하게 탐구되어 깊이있게 맞물려진 인간관계는 그자체로써 문학적인 이야기를 낳고 줄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전개시키는것이다.

그리하여 소설은 《나》의 《가지 못한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생활의 길을 밝혀준 참된 길동무로 될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단편소설 《모닥불》에서는 관리부위원장 윤상과 《나》의 대화형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형상적계기의 설정과 해명의 과정으로 사건을 조직하고 성격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리당비서의 이신작칙과 능숙한 정치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들을 이른새벽의 논판진출과 담배강연, 소설책이야기, 비오는 날의 모닥불지피기 등 몇개의 특징적인 계기를 통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 리용된 대화형식은 필요한 비약과 함축을 자유롭게 하면서 구성을 간결하게 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주고있다.

두 단편소설은 이처럼 구성조직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으나 다 같이 인물들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감정을 쌓아가고 극적인 장성과 정서적인 굴곡을 보장함으로써 독자들의 마음을 조였다풀었다 하면서 그들을 감명깊은 작품 세계에 이 끌어가고 있다.

물론 이 두 단편의 이야기줄거리조작을 두고 어느쪽이 더 좋다 나쁘다 하고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때로는 넓은길을 따라 함께 걸어간 여러 사람들보다 호젓한 숲속의 오솔길로 단둘이 걸어간 사람들이 더 이야기거리가 많을수도 있는 것이다. 또 화단이라면 외줄기에 소담스럽게 핀 꽃도 있고 가지마다 아롱져 부채모양을 이룬 꽃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대적미감에 맞는 구성형식의 탐구에서 생활 반영의 각도와 묘사시점을 옹계 설정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같은 물건이라도 해빛이 비쳐드는 각도와 거울이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 반사되는 모양이 같지 않다.

이 소설들은 둘다 1 인칭으로 씌여졌다.

최근 사회주의현실주의의 단편들에서 1 인칭 형식이 많이 쓰이고있는것은 들끓는 현실에서 받는 강한 정서적충동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격조높이 터쳐놓기 위한 일정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더욱 새로운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편소설 《가지 못한 길》에서는 시종일관 《나》의 시점에서 생활을 그리면서 그의 심리적충격과 정서적체험이 쌓여지는데 따라 감정조작을 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물론 이 작품의 종자의 요구에 맞게 옳바로 설정된 시점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단편소설 《모닥불》에서는 같은 1 인칭 형식으로 쓰면서도 《나》가 아니라 관리부위원장 윤상의 시점에서 생활을 그리고 있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능숙한 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있는 세련된 당일군으로서의 리당비서의 풍모는 같은 조직동원자의 위치에 있는 일군의 눈에 비쳐들 때 얼마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두드러져보이겠는가.

이것은 또한 흠냄새 나는 사회주의농촌근로자들의 생활을 밝고도 랑만적인 양상으로 그리며 1 인칭형식의 류사성과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수 있다.

보는바와 같이 묘사시점의 설정은 형상의 초점을 두드러지게 살리는가, 못살리는가 하는 형상의 근본문제와 관련되어있다.

이 두 단편은 시작과 꿈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

단편소설 《모닥불》이 관리부위원장 윤상의 형상을 통해 불을 지피는 문제에 대하여 암시하고

점점 심화시키다가 해명해주고있다면 《가지 못한 길》은 처음에 보여주는 《나》의 려행길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번쳐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이 서로 맞물려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따져놓고 보면 기본문제는 이미 첫대목에서 충분히 암시되었었다.

높은 미학적안목을 가진 우리 독자들은 뒤끝이 뻔드름한 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그렇다고 하여 이야기를 오리무중으로 끌고가는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시작과 꿈을 잘 떼고 맺는것은 단편소설형상의 특색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기교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단편소설의 구성형식에 대하여서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화나 세부묘사, 언어표현과 같은 예술적형식전반의 문제에까지 넓혀간다면 우리 작가들의 개성적인 얼굴이 드러나보일 마당은 참으로 넓은것이다.

시대적미감에 맞는 사회주의현실주의의 단편창작과 관련하여 한마디만 더 한다면 단편소설을 짧게 쓰자는것이다. 독자들은 짧은 단편을 요구한다.

여기서 짧다는것은 페이지수와 같은 분량상의 개념만이 아니다. 여념이 없이 단숨에 읽어내려가게 하는 긴장감과 흥미, 사건전전의 박력과 속도감. 이런것들이 짧은 단편의 징표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이러한 짧은 단편일수록 정서적충격이 크고 사색의 여지가 많아서 오히려 독자들속에서 오래오래 이야기되는 《긴》소설인것이다.

만일 독자들의 사색이 한껏 넓어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세계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작품이야말로 시대정신이라는 《목표관》을 정통으로 맞힌 《명중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불이나 좀 주고가시우.》

이것은 단편소설 《모닥불》에 나오는 관리부위원장 윤상이가 취재를 마치고 떠나는 작가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을 어찌 한 작가에게 하는 말로만 생각할수 있겠는가.

불을 지피는 인간 또 그 불씨를 받아안은 인간들을 생동하게 형상하여 독자들의 가슴에도 불을 지펴야 할 의무가 우리 작가들에게 지워져있지 않는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인민들의 믿음어린 기대이다.

작가들은 당정책으로 무장한 밝은 눈을 가지고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벽찬 현실에 들어가 사회주의현실주의의 단편소설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시대를 안고 넓혀간 사색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만이 알찬 열매를 맺을것이다.

작가들의 새해 창작결의

새해 첫 아침에

1982년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1983년 새해를 맞이한 이 아침.

백두산에 내리는 흰눈처럼 깨끗한 마음과 백두설령우에 핀 만병초처럼 불붙는듯한 열정과 모진 눈서리,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이 나라의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받들고 따를 전사의 신념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삼가 최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한해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위에 장엄한 변혁의 대서사시가 수놓아진 감격에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경탄속에 가장 뜻깊고 경사롭게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 탄생 일흔둘째정치축전장의 그 환희, 그 감격...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만년대계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세계만방에 높이 솟아오른 주체사상탑과 개신문, **김일성**경기장의 제막식들...환영의 꽃보라와 수천만대군의 꽃물결의 흐름...

참으로 감회도 크고 영광도 많던 지난 한해였습니다.

이 기적같은 현실속에서 이 나라의 평범한 한 이름없던 시인인 저도 몰라보게 성장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아직 가사의 초보적인 문법도 모르는 저를 중요한 가사창작조에 불러주고 친히 중요한 주제의 창작과제들을 안겨주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걸음발을 떼어주듯이 한걸음 두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일깨워준 그 귀중한 가르침을 그대로 가사에 옮겨놓은데 불과한 저의 가사들이건만 당에서는 가사를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해주면서 꿈에도 상상할수 없었던 최고의 영예인 **《김일성상》**계관인의 높은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천년이 흐르고 만년이 흐른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이사랑 이 은덕을 제가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밤을 만밤을 밝히더라도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기쁨을 드릴만 있다면, 저의 한 심장바쳐 당의 뜻을 받들수만 있다면 한목숨바쳐 아까울 것이 없는 저의 이 생명입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들을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한걸음을 걸어도 하나의 생각을 하여도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저는 들끓는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러러 받들고 따

르는 우리 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와 불굴의 신념을 반영한 가사들과 서정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하겠습니다.

리정술

농촌로세대의 위치문제를 두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이 농촌에 나가서 현실에 깊이 파고들 어간다면 소설을 쓸만한 좋은 소재들은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는 새해에 농촌 로세대가 차지하는 위치문제를 두고 붓을 들려고 계획하였다.

여기서 나는 농촌에서 로세대가 응당한 지위를 차지할때 젊은 세대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배워 자기의 사랑과 청춘을 땅에 바치게 되며 따라서 우리 나라 농촌계급진지는 더욱 공고해진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한다.

독자들은 소설에서 평범한 한 농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속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성장하여 우리 당 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찰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는 농촌혁명가-농민영웅을 보게 될것이다.

나는 이 작품을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 2부로서 상반년안에 초고를 끝내고 연말까지 완성하여 독자들앞에 내놓을것을 약속한다

고병삼

뜨거운 심장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해가 다르게 늙어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위훈으로 빛나게 될 새해 1983년을 맞이하는 나와 마음도, 몸도 날과 더불어 젊어만 진다.

수십년 문필활동을 해오지만 지금처럼 뜨거운 심장으로 붓을 든 때가 언제였던가싶어진다.

한것은 올해 내가 독자들앞에 내놓게 될 장편소설 **《개척자들》**(가제)의 주인공인 어느 한 제철소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뜨거운 심장과 하나로 맥박치기때문이다.

사람들을 아량있게 포섭하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불같은 열정을 지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단순한 대보수가 아니라 용광로를 더 늘구도록 대답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신철민, 그가 바로 우리 시대 당일군의 전형이며 소설의 주인공이다.

우리 당일군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지녀야 한다는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모든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즐기치게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나는 우리시대 당일군의 정신사상도덕적품모를 전형화하려고 한다.

하여 것처럼 다심하고 소탈한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어머니당의 한 일군의 형상을 통해 우리 당중앙에서 제시한 현명한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형상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려는것이 나의 지향이다. 이 창작적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붓을 든 나의 심장부터 뜨거워져야 한다는것을 나는 작품창작과정을 통해 굳게 믿게 되었다.

변희근

중편소설 《그 이듬해》를...

우리 혁명에 또 하나의 년륜을 그은 전투적인 198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결의는 자못 큼니다.

저역시 승엄한 감정을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해에 저는 대자연정복자들의 투쟁모습을 담은 중편소설 《그 이듬해》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 중편소설에서 행복이란 투쟁과 순결성에 대한 표징이며 희생과 성실성의 결실이라는것을 형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이 없는 사람에겐 희생성도, 성실성도 없을것입니다.

저는 제가 창조하려는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역사적위업을 위하여 새해도 한걸음 한걸음 힘있게 전진하겠습니다.

김동렬

하다남은 일이 많은 해

《80년대속도》로 달리는 우리의 벅찬 현실이 주는 크나큰 충격-이것이 나의 창작과제이다.

참으로 올해에는 하고싶은 말이 많다.

그러나 욕망이 커데 비하여 나의 실천은 그 어느 한 부분밖에 감당할수 없는것이 또한 나의 고충이다. 작년에 결의한 장편기행 《대동강의 흐름을 따라》는 절반가량밖에 나오지 못했고 변모된 대동강을 노래하는 서사시 역시 진행중에 있다.

탐구와 사색의 결핍과 싸우며 올해 한해도 이 서사시를 안고 씨름해야 한다.

좋은 서정시들도 이해에 쓰고싶다. 도식과 류형을 창작세계밖으로 구축해버리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새해이다. 그러자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문예방침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현실체험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체의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해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할 계획도 아름답다.

이 모든것을 다 하자면 온 한해 현지에서 생활 하여야 하며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것 같다. 공간이 없이 보다 많은 일을 제끼는 혁명가적인 창작기풍을 발휘하여야 할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작가적인 탐구, 품위있고 무게있는 종자를 거둬쥐고 그것을 시적인 형상으로 꽃피우는 창작가의 기쁨속에 몸을 잠그며 모태기는 나의 투쟁이 곧 《80년대속도》로 달리는 우리 인민의 전진에 발을 맞추는 길이 아니겠는가!

오영재

앞서가는 발자국을 따라

앞에는 망망한 서해천리, 뒤에는 아득히 지평선에서 뻗어나온 방파제,

꿈도 많고 포부도 큰 청년건설자들이 화강석을 하나하나 쌓고있었습니다.

출장길에 얼핏 들린 서해간석지건설장, 저물녘의 세차던 바다바람, 아름답게 어리던 저녁노을, 분주히 오가던 대형자동차들, 길고 역센 팔을 휘젓던 배기중기들, 그리고 이속에서 청춘의 불타는 심장으로 한치한치 방파제를 쌓아가던 건설자들의 모습이 뜨거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있습니다.

폭풍을 안고 밀려온 파도가 청년건설자들의 의지와 신념으로 쌓아온 방파제를 순간에 무너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치열한 전투장이 나를 부르고있습니다.

새해엔 나의 시에 서해바다의 찬 바람이, 쌓아가는 화강석의 무게가, 건설자들의 랑만에 찬 웃음과 노래가 그대로 옮겨지게 하겠습니다.

맹세는 언제나 실천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앞서가며 만년방파제로 발자국을 남기는 청년건설자들처럼 나도 생활정서가 넘치는 서정시를 창작하여 시문학에 새 발자국을 남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엔 간석지건설자들과 함께 생활하여 체험한 시초를 써서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구희철

혁명의 참된 교과서, 투쟁의 힘있는 무기

독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지침으로하여 왕성하게 창작된 우리의 혁명적작품들은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해 편집부에는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창조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전국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과 그리고 조선인민군 군인들, 각계각층 독자들로부터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작품들에 대한 독후감과 자기들의 소박한 의견을 적어보낸 수많은 편지들을 보내왔다.

편집부에서는 독자들로부터 보내온 편지들중에서 그 일부를 추려서 아래에 소개한다.

앞으로도 혁명적작품들에 대한 감상과 의견들을 더 많이 써보내주기를 바라면서...

편집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문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한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은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에게 혁명적량식을 주는 교과서로, 그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대부대선회작전의 력사적로정을 줄거리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비범한 군사예술과 현명한 령도,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다함없는 충성심을 깊이있게 형상한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준엄한 전투》를 감명깊게 읽은 평양시 평천구역 원호순은 력사에 길이 전해질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량강도 삼수군의 한경옥도 이 작품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오중흙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동지애를 따라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다하는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크나큰 흥분속에 이 작품을 읽은 조선인민군 중사 백세일은 작품이 지난날 착취와 압박을 받

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에게 계급적자각을 높여주는 투쟁의 교과서라고 하면서 마에다부대가 량강구마을에서 감행한 《토벌》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불타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끓게 하였다고 하였다.

력사의 분수령인 1930년대초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하여 간고한 지하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대지는 푸르다》에서 후손만대 길이 전해질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학술적으로가 아니라 보다 생활적으로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 평양시 두수오리공장의 리종호는 자신의 본신희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수령님께 충성다한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살며 일하겠다고 굳게 결의다졌다.

또한 날을 따라 발전하는 우리의 주체문학의 화원속에 활짝 꽃피여난 장편, 중편, 단편 소설들은 우리 인민들이 즐겨 애독하는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다.

장편소설《축원》(천세봉)을 읽은 함경북도 회령군의 강희숙은 작품의 주인공 한중녀어머니처럼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다함없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위대한 주체농법관철에 청춘의 힘과 지혜를 다바쳐 투쟁하겠다고 하였다.

지질대학 기계학부의 황인철은 《조선문학》1982년 4호에 실린 단편소설《진리의 탐구》(리화)를 읽고 작품의 주인공 계응심의 연구사업에 대한 불타는 열정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인공의 성격이 생동하게 형성된 이러한 소설을 더 많이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최영복동무가 일하는 광산의 최영일은 《조선문학》 1982년 1호에 실린 단편소설 《앞서간 발자국》(허여극)을 읽고 10년나마 당생활을 해왔지만 작품의 주인공처럼 살지 못한 자책감을 금치 못하면서 앞으로는 당조직생활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하였다.

평안남도 개천군의 조정길도 이 소설을 통해 혁명적조직관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보진부 25호공장의 강영숙은 주인공 녀당원처럼 당조직에 충실할 결의를 다지였다.

황해남도 벽성군 최광근은 《조선문학》 1982년 1호에 실린 단편소설 《봄빛》(백철수)을 읽고 주인공 손애분조장의 모범을 따라 새땅찾기전투에서 300프로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소설을 많이 실려줄것을 부탁하였다.

《조선문학》 1981년 2호에 실린 단편소설 《그를 알기까지》(김봉철)를 읽은 함경남도 고원군의 김원학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은 그 어떤 보수를 바라거나 그 누구의 박수를 바라는것이 아니라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평안남도 순천군의 김영남은 《조선문학》 1981년 11호에 실린 단편소설 《영희》(박사영)를 읽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다운 우정에 대하여 배웠다고 하였으며 평안남도 평원군 청보리의 리종룡도 작품의 주인공 영희와 서상철의 높은 정신세계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모내는 기계운전공으로서 자신도 영희처럼 일해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조선문학》 1982년 1호에 실린 단편소설 《보답》(최봉무)을 읽은 함경북도 회령군의 김영만은 자기는 오늘 차례지는 모든 행복이 응당한것으로 알고 하루하루를 값없이 살아왔다는것을 깊이 자책하면서 앞으로 소설의 주인공처럼 빛나게 살아가겠다고 하였다.

평안북도 동창군의 강찬주는 《조선문학》 1981년 11호에 실린 단편소설 《18년후에》(리택수)에서 용택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비추어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진국반장의 모범을 따라배우겠다고 하였으며 량강도 풍산군 오흥일도 이

소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만일이 작품을 읽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직위와 명예를 위해 화려한 일터를 찾아 헤매었을것이라는 자책을 금치못하였다.

황해남도 중화군의 김정국은 《조선문학》 1979년 10호에 실린 단편소설 《우리 선생님》(장기성)은 날이 갈수록 많은 독자들속에서 사랑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주인공의 참된 교육자적 립장과 자세를 통하여 교편을 잡고있는 자신의 생활을 비추어보고 많은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평양시 중구역의 김현철은 중편소설 《벗들의 추억》(김봉철)을 다시금 읽으면서 새세대 청년들에게서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배웠다고 하였다.

그뿐만아니라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우리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추동하는 고무적인 힘으로 되고 있다.

《조선문학》 1982년 1호에 실린 시 《나의 공장》(윤명숙)을 읽은 청진시 경성군의 최정희는 자기앞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일터도 많고 직업이 많아도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인민들의 웃감을 짜는 방직공처럼 긍지높은 사람은 없다는것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평양시 동평양블록공장 한봉수는 《조선문학》 1982년 2호에 실린 시 《조국의 사랑》(신국봉)은 비록 몇편밖에 안되지만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을 아무런 허식도 없이 진실하게 노래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지난날과의 대비속에서 생활적으로 절절하게 노래함으로써 강한 여운을 안겨주었다고 하였다.

황해남도 벽성군의 최창군은 《조선문학》 1981년 2호에 실린 시 《위대한 날에》(최영화)를 읽은지가 오래나 아직도 시에서 받은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충성다하려는것은 시인의 마음이자 곧 독자들의 지향이라고 하였다.